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47

김 구

글 김 문 수
그림 손 장 섭





삼국통일의 명장
① 김 유 신



인류의 스승
② 그리스도



신라의 고승
③ 원효대사



항해 탐험가
④ 콜롬부스



고매한 문장가
⑨ 최 치 원



근대 교육의 창시자
⑩ 페스탈로찌



고려의 시조
⑪ 왕 건



천재 음악가
⑫ 모차르트



한국의 발명왕
⑬ 장 열 실



가곡의 왕
⑭ 슈베르트



조선 중기의 학자
⑮ 이 활



동화의 아버지
⑯ 안데르센



조선의 문장가



아프리카의 탐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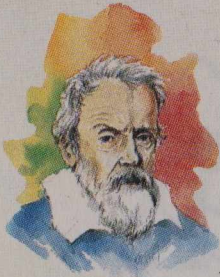
북학파의 명수



농민을 그린 화가



서역을 토벌한
[5]고 선 지



자연 과학의 아버지
[6]갈릴레이



해상 무역의 왕
[7]장 보 고



근대 과학의 건설자
[8]뉴 우 톤



북하서를 들어 온
[13]분 익 점



유럽을 정복한
[14]나폴레옹



위대한 임금
[15]세종대왕



악성
[16]베에토벤



머리의 귀감
[11]신사일당



노예 해방의 대통령
[22]링 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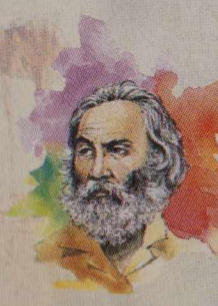
책적을 무찌른 성웅
[23]이 순 신



진화론의 창시자
[24]다 아 윈



원래 화가
[10]회 회 도



민주주의의 시인
[30]회 트 먼



실학의 거두
[31]정 약 용



백의의 천사
[32]나이팅게일

기 증 자

학교이름 서울 대모 국민학교

학 년 반 제 3 학년 4 반

이 름 이 목 진

칸라판/수년소녀 위인전기47

김구

글 김구
그림 김성환
13002675

수집
문장
철손

원



김성환만사



와 슬기와 인내로 앞장 서서 싸웠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나라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저마다 자기 민족의 위대한 지
도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범 김 구 선생처럼 한결같은 의지와 곧
은 지조로 오로지 겨레의 앞날을 위하여 목숨을 바
친 지도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진정한 애국자의 생애를 알고, 위
대한 선각자의 행실을 거울로 삼아, 미래의 영광된
조국과 통일된 조국을 이룩하는 데에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를 굳게 다지기 바랍니다.



머 리 말

백범 김 구 선생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다가 마침내는 조국 통일의 비원을 가슴에 안고, 민족의 영광을 다지는 주춧돌로 한 몸을 바쳤습니다.

‘집이 어려울 때 효자가 나오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나온다.’라는 동양의 옛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김 구 선생에게 꼭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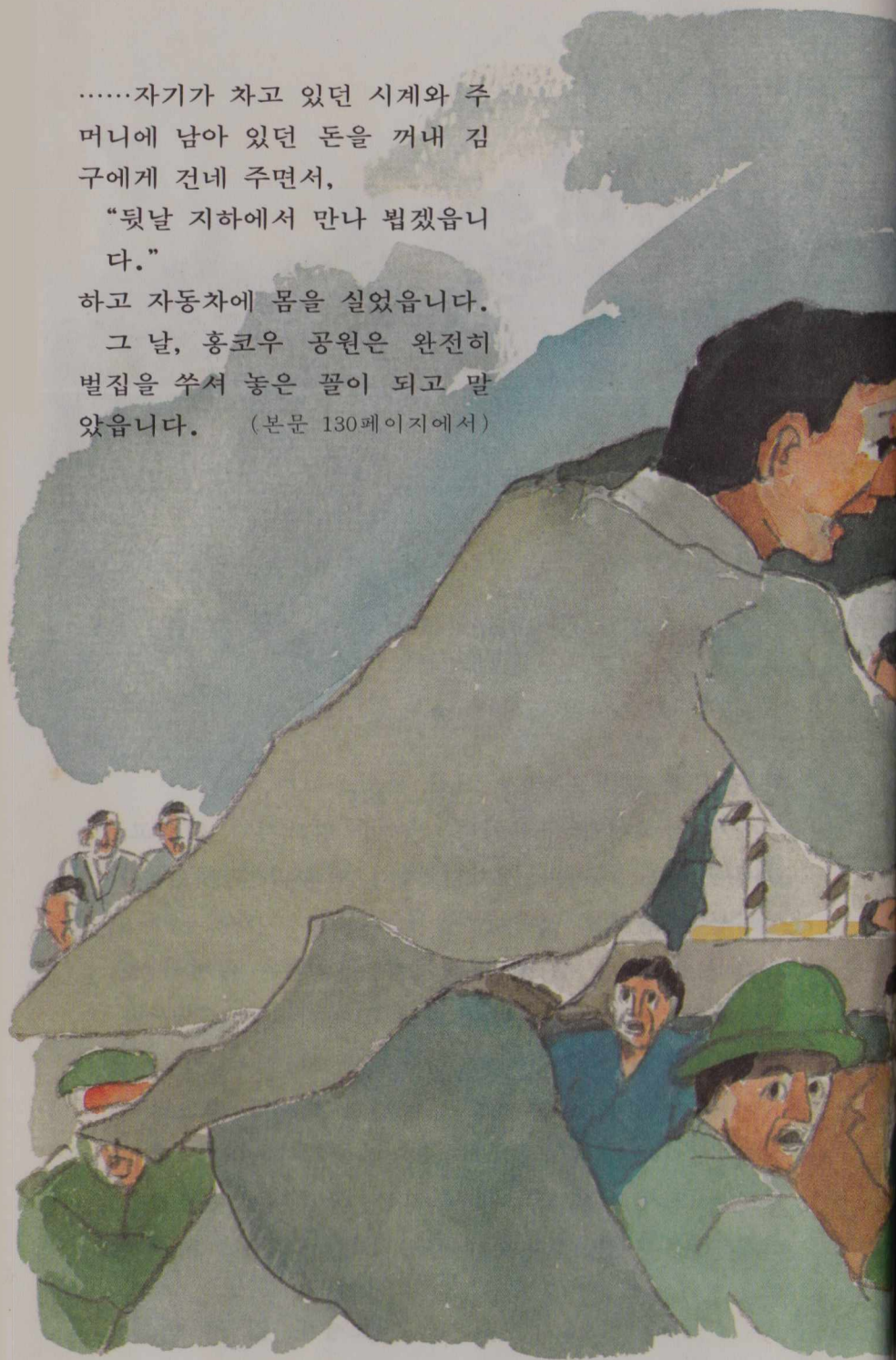
김 구 선생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고, 나라의 비운을 만나자 용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와 주머니에 남아 있던 돈을 꺼내 김구에게 전네 주면서,

“뒷날 지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자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날, 홍코우 공원은 완전히 별집을 쭉서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0페이지에서)







차 례

머리말	2
동냥 젖으로 자란 아이	8
깨진 과거에의 꿈	19
동학 교도가 되다	26
안 진사와 김 창수	36
일본군 중위를 죽이다	44
학교로 바뀐 인천 감옥	54
탈 옥	63
나그넷길에서 쫓 꿈	73



다시 감옥으로	83
어머니의 위로	94
큰 뜻을 품고 상하이로	102
상하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되다	110
이 봉창과 윤 봉길	116
현상금이 걸린 김 구의 목	132
그리운 고국으로	139
38선을 없애자	146
해 설	154
연 포	158
■역사 인물 사전	161

〈백운방(白雲坊) 기동(基洞)〉이 그 마을의 주소였지만, 그런 주소가 적힌 편지는 한 통도 옳게 찾아드는 적이 없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 다른 고장의 소식을 얻어 듣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 텃골의 소식 또한 다른 곳으로 잘 흘러가지 않았읍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아주 없다시피하니 자연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텃골 안의 사정은 텃골 안에서만 빙빙 돌며 흘러다니게 마련이었읍니다.

1876년 초여름에 팔봉산(八峰山) 기슭의 초가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읍니다.





동냥짓으로 자란 아이

황해도 해주에서 서쪽으로 80리쯤 떨어진 곳에 텃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주는 옛부터 경치 좋고 인심도 좋아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텃골은 해주와의 교통이 매우 불편한 벽촌이었으며, 이렇다 할 특산물도 나지 않는 곳이어서, 세월이 흘러도 발전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을 찾는 사람도 별반 없었고, 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나들이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아기는 김 순영(金淳永)과 곽 낙원(郭樂園)이라는 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김 순영이란 사람은 팔봉산 양가봉(楊歌峰) 기슭에 자리한 조그마한 초가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물 여덟 살이었고, 그의 아내 곽 낙원은 열 여덟 살로 남편과는 열 살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우리 나라의 독립 운동을 위해 큰 일을 한 김 구(金九) 선생인 창암(昌巖) 어린이였습니다.

창암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창암 아기는 다른 아기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우람했기 때문에, 웬만큼 먹어서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암 아기는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여보, 어쩔 수가 없소. 이러다가는 이 불쌍한 어린 것을 굶겨 죽이겠소. 동냥젖이라도 얻어먹여야지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소.”

김 순영은 아내가 부끄럽다고 내놓지 않는 갓난 창암 아기를 빼앗다시피 하여 온 동네를 안고 돌아다니며 동냥젖을 얻어먹였습니다. 그러나, 동냥젖으로도 모자랄 때는 암죽을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는 동안, 어느덧 창암 아기의 나이가 세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창암 아기는 다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마마라는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요즈음은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접종법이 있지만, 그 때의 그런 산골에는 예방 접종은커녕, 병에 걸린 다음에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에 걸리면 부모들은 아기의 목숨을 그저 하느님께 맡기며,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 주세요.”

라고 비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창암 아기는 그 병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곰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엷은 창암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살길을 찾아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동무들과 사귀었다가는 오래지 않아 그만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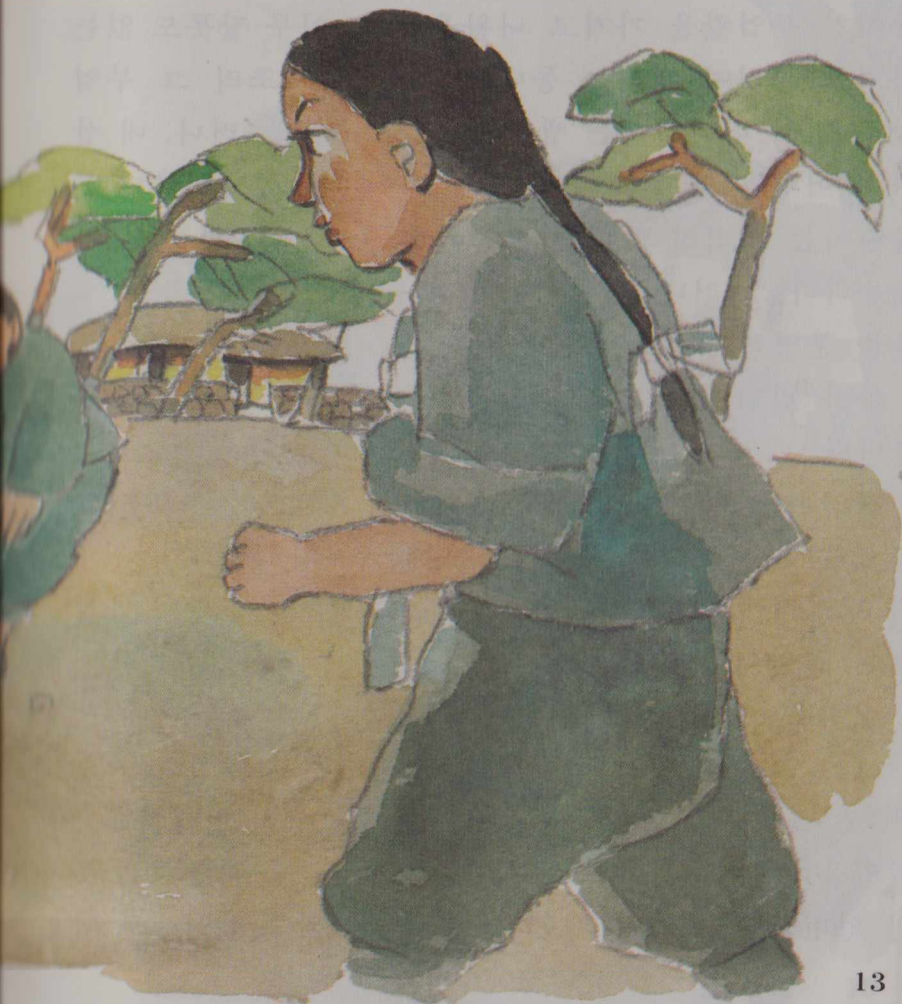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창암이는 늘 제 또래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물론, 창암이가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았읍니다. 새로 이사 온 창암이의 얇은 얼굴을 보고,

“곰보, 곰보!”

하고 제 또래들이 놀려 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암이는 아무리 낯선 곳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으며, 아무리 저보다 힘이 세 보이는 아이 앞에서도 비굴하게 굴지 않았읍니다.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을 때에



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창암이는 장난도 아주 심한 아이였습니다.

창암이가 네 살 되던 해에 식구가 모두 강령(康翎)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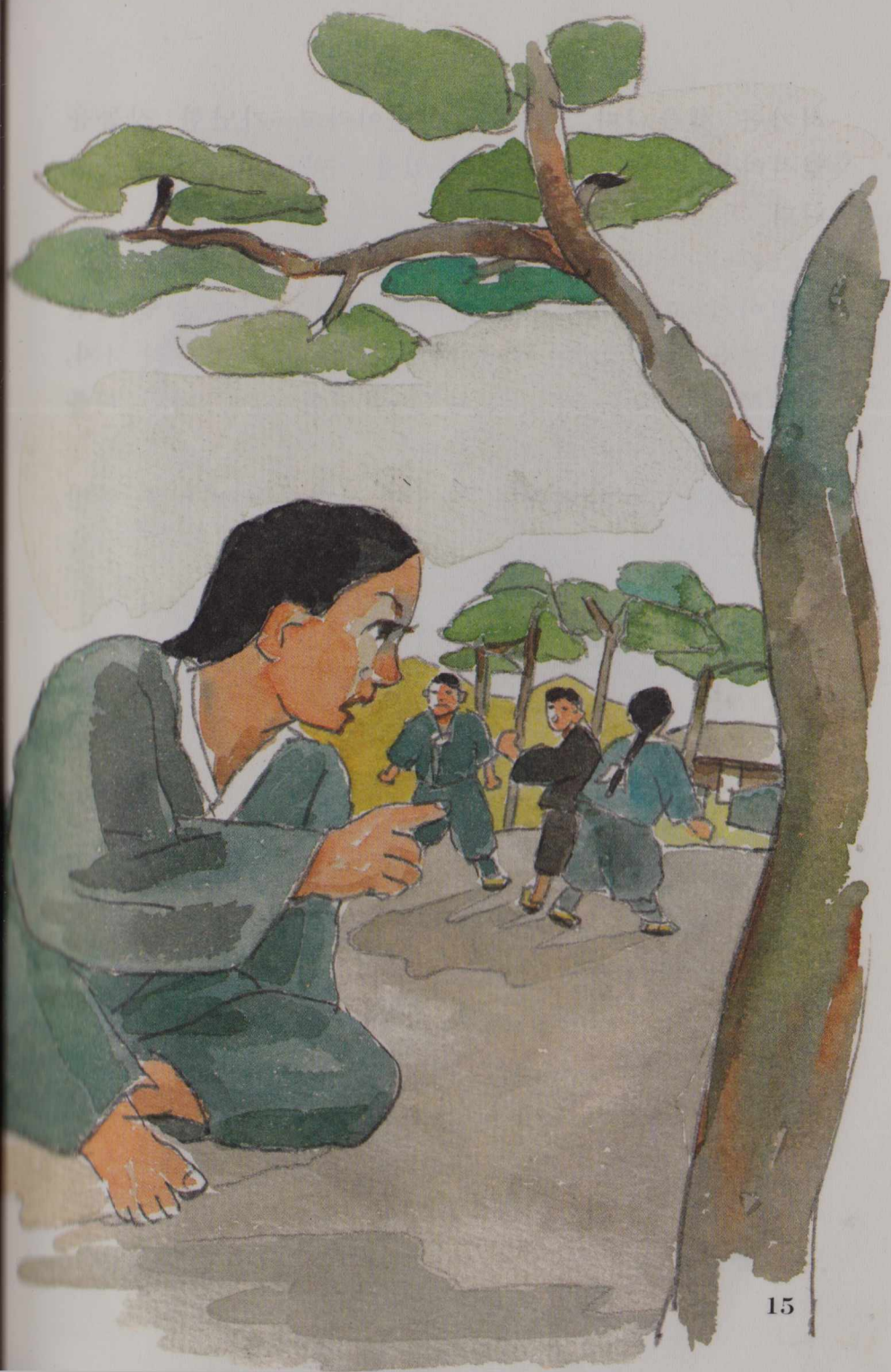
동네 어린이들이 또 새로 이사 온 낯선 창암이를 놀려 댔습니다. 여러 아이가 때를 지어 때리며 놀렸기 때문에 창암이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집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놀리며 때리는 동네 아이들을 모조리 그 부엌칼로 찢러 버리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네 살 짜리 어린 창암에게 칼로 찢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암이는 오히려 동네 아이들에게 못매만 흠씬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암이는 못매를 맞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졌습니다.

아마 창암이의 그러한 성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창암이의 아버지 김 순영은 겨우 자기 이름자나 쓰고 읽고 할 정도의 학식밖에는 없었지만, 신체가 건장하고 성격이 활달하며 매사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잘 마셨습니다.

그는 그 고을에서 돈푼개나 있다고 으스대며 상놈들을 못 살게 구는 양반들에 대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양반들을 두들겨 패곤 하여, 곧잘 해주 감영으로 잡



혀가곤 했습니다. 부유한 양반이라고 가난한 상놈을 멸시하는 꼴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이 많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는 놀랄 만한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려 하자, 오른쪽 무명지를 칼로 잘라 어머니의 입에 자기 피를 흘려 넣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창암이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아버지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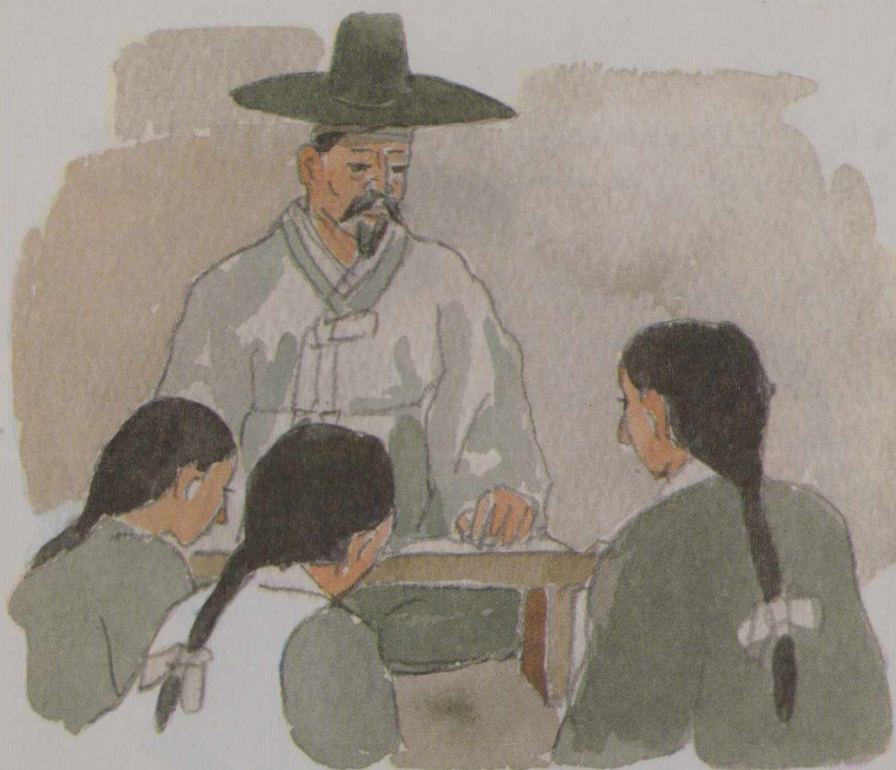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창암이는 여덟살이 되자 틈틈이 한글을 익혔으며, 또한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천자문(千字文)》을 익히기도 하여, 제법 글을 읽게 되자 어른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주는가 하면, 더 많은 글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서당에 보내 주셔요.”

“.....?”

“저도 글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글공부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창암이는 아버지에게 서당에 보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뒤에 창암이네 사랑방에는 서당이 마련되었습니다. 창암이 아버지의 주선으로 이 생원이라는 분을 서당 선생님이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암이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생원 밑에서 본격적인 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고 싶은 글공부는 불과 서너 달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눕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 집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질구레한 살림살이까지 모두 내다 팔아야만 했으며, 또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암이는 부모님 곁을 떠나 큰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깨진 과거에의 꿈

창암이가 열 세 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병환이 좀 차도가 있어서, 큰댁에 얹혀 살던 창암이는 다시 부모님 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차차 집안 형편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끼니를 이어 가는 정도이지 넉넉한 살림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암이도 글공부에 대한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창암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 글공부를 다시 계속하고 싶지 않나?”
하고 던지시 물었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 글공부를 계속한다면 무슨 책을 읽고 싶니?”

“《자치 통감》과 《삼략》을 읽고 싶어요.”

창암이는 이런 사서(史書)와 병서(兵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암아, 너도 알다시피 그런 글을 계속 배우려면 이름난 훈장(선생)님을 찾아가 배워야 하는데, 우리 집 형편에 어디 그럴 돈이 있느냐? 그러니, 내 생각 같아서는 이제 편지도 쓸 줄 알고, 축문이나 영수증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도 네 손으로 쓰고 짓고 할 수 있으니 글공부는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창암이는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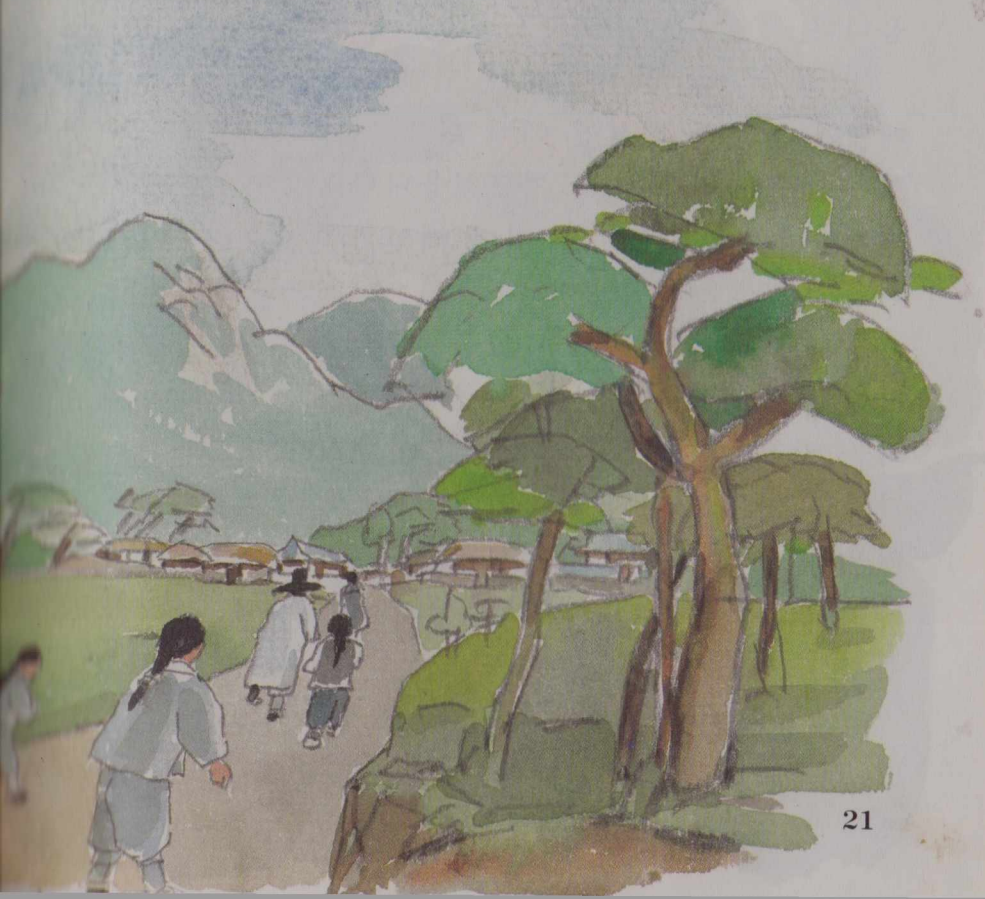
그런 일이 있는 후로 창암이는 글공부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창암이는

“학골에 큰 선비가 있는데, 그 선비에게 글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창암이의 가슴은 다시 두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골이라면 텃골에서 1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창암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골에 있다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당의 훈장인 정 문재(鄭文哉)라는 선비에
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암이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선비는, 특별히 창암이
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글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
을 했습니다.

그는 지체 있는 양반 출신의 선비는 아니었지만, 어
느 이름 있는 선비 못지 않게 학식과 덕망을 지닌 사람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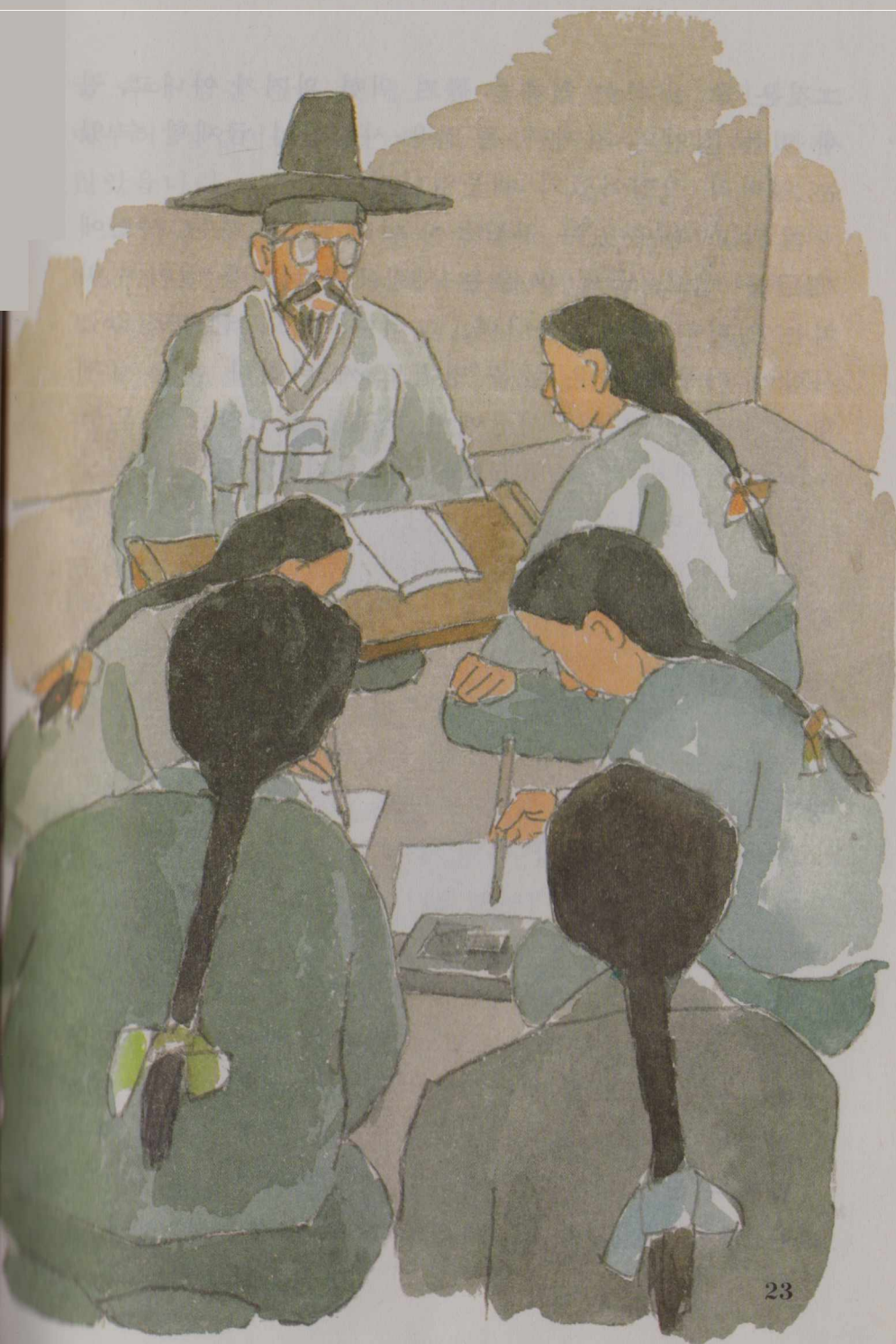
창암이는 그 날부터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
리 길을 통학하며 당시(唐詩)와 《대학(大學)》을 배웠
습니다.

정 문재 선생은 창암이가 남달리 글 재주가 있으며,
게다가 남보다 열성인 데에 탄복하여, 과거를 치를 수
있는 공부까지 겸해서 가르쳤습니다.

창암이가 열 여섯 살 되던 해인 1892년, 해주에서 경
과(慶科)가 열렸습니다.

경과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실시하는 과
거인데, 그 해가 임진(壬辰)년이었기 때문에 그 때의 과
거를 임진 경과(壬辰慶科)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우리 나라의 마지막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가 어디 있으며 우리의 주장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쨌든 창암이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데, 과거를 보러 간 창암이는 여간 놀라지 않았습니



그것은 글 잘 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과거가 아니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나 돈 많은 사람만이 급제할 수 있는 엉터리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미리 글 잘 하는 사람에게 글을 빌고,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글씨를 빌어서 바치는 엉터리 과거였습니다. 그러니, 돈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글을 명필로 써 바친다 해도 급제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물려든 응시자들은 모두, “시험관에게 권력 있는 사람의 편지 한 장이나 명주나 비단 따위의 선물을 갖다바치는 게 급제의 비결인데, 우리네 촌놈들이야 어디…….”

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갔던 창암이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니꼽게 보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창암이의 가슴은 몇 달이 지나도 개운치 않았습니다.

“젠장, 글공부만 잘 하면 출세할 줄 알았더니…….”

창암이의 실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책과 담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창암이는 어느 날 책을 뒤적이다가,

‘태산이 무너져도 함부로 마음을 움직이지 말며, 군졸과 동고 동락을 같이 해야 한다. 나아가고 물러섬을 법같이 하며,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라는 글귀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그

글 속에 담긴 깊은 뜻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암이는 글을 배워 출세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다.

그 후부터 창암이가 읽은 책들은 《손자(孫子)》, 《오자(吳子)》, 《육도(六韜)》, 《삼략(三略)》 같은 병서(兵書)들이었습니다.





동학 교도가 되다

이렇게 병서를 즐겨서 읽던 창암이의 손에 《마의상서(麻衣相書)》라는 진귀한 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풍수 지리와 관상 등에 관한 것이 적힌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암이가 그 책을 손에서 놓을 줄 모르자, 아버지는



“그래, 잘 생각했다. 풍수나 관상 보는 법을 잘 배워두면 그것도 좋으니까. 우리 조상님네 산소를 명당 자리에만 골라 모신다면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관상만 잘 보게 된다면 해도 능히 어려운 장래를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고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창암이로서도 흥미 있는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마의상서》를 꼬박 석 달 동안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울을 놓고 자기 자신의 관상을 보니, 자기는 평생 가난하고 천하게만 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관상을 본 그 순간부터 창암이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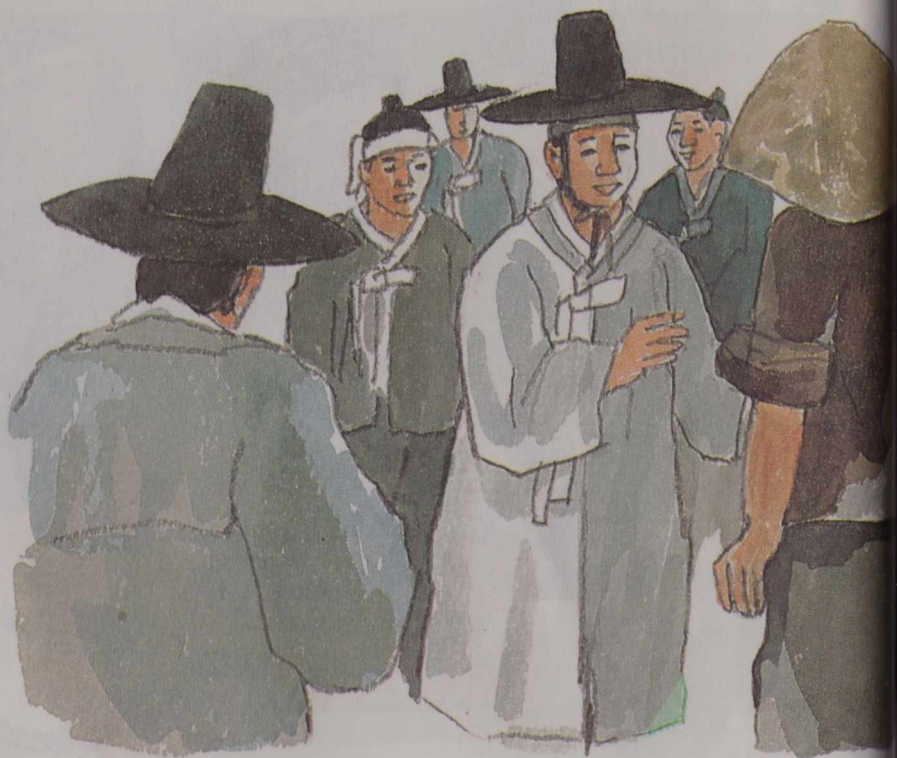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진 그를 다시 밝은 희망의 세계로 이끈 것은,



‘얼굴이 좋은 것이 몸 좋음만 못하며,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음만 못하니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은 조선 왕조 5백 년이 망하려는 때였습니다.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우리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는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양반과 벼슬아치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창암이가 동학(東學) 교도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때 그의 나이 열 일곱이었습니다. 창암이에게 동학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일깨워준 이는 오 응선(吳應善)이라는 잿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암이에게 동학은 최 제우(崔濟愚) 선생이 세운 것으로, 세상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지켜 백성을 안정시키고, 덕을 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학 교리에 감동한 창암이는 곧 동학 교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놈으로 태어난 것이 한스럽기만 했던 창암이에게 동학의 평등주의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암이는 동학에 입도한 뒤, 창암이라는 이름을 창수(昌洙)로 고치고 열심히 교리를 익히는 한편, 전도에도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전도

하여 얻은 신자들을 연비(連臂)라고 했는데, 김 창수는 동학에 입당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백 명의 연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학 교리에 밝고, 힘써 전도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 김 창수는 황해도의 인망 높은 도유로 뽑혀, 동학의 대도주인 해월(海月) 최 시형 선생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접주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김 창수가 만난 사람 중에는 손 응구(孫應九)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곧 나중에 해월 선생의 뒤를 이어 대도주가 된 의암(義菴) 손 병희(孫秉熙) 선생이었습니다.

김 창수 접주는 팔봉산 밑에서 산다고 하여 <팔봉도소(八峰都所)>라는 깃발 아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팔봉도소에 모여든 사람 중에는, 산에 들어가 짐승을 잡는 포수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총을 가진 교도가 무려 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른 살 안팎의 낯선 두
사나이가 김 창수 접주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구월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오. 나는 정 덕현, 이 쪽
은 우 종서라고 하오.”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김 창수는 정 덕현과 우 종서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공손
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층 더
오만불손한
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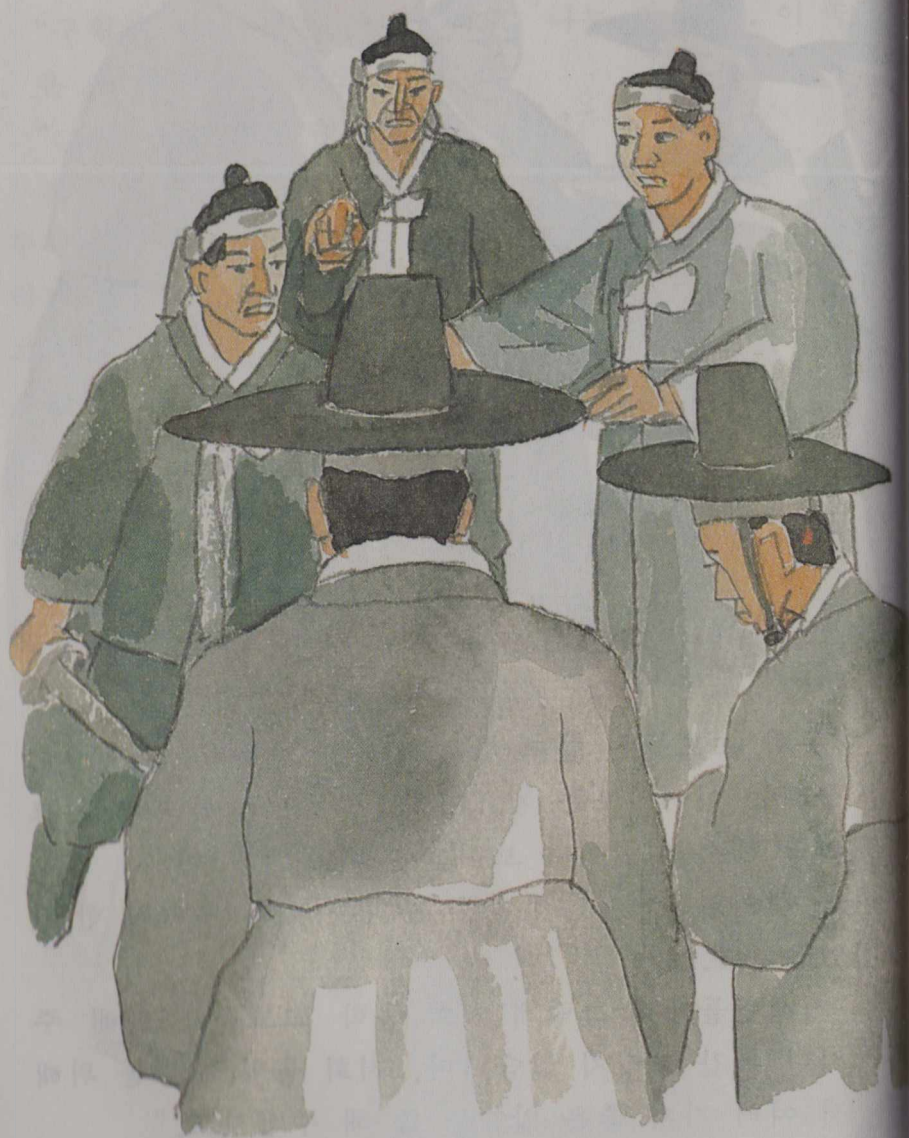




"동학 교도들은 한 놈도 쓸 만한 놈들이 없다는데, 물리는 이야기로는 자네가 그 중에서는 좀 배짱도 크다고 해서 얼굴이나 보려고 왔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창수는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저희 동학 교도를 염려해 주시니 여간 고맙지 않습니다. 저희 동학 교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네들이 과연 우리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가 있을 지 모르겠군.”

정 덕현과 우 종서는 이렇게 동학 교도를 앞잡아 보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였습니다.

그러자, 김 창수의 뒤에서 잠자코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부하 몇 사람이 더 이상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는 듯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하며,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김 창수는 재빨리 부하들을 제지하며, 더욱 그들을 공손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 덕현이란 사람이

“과연 듣던 대로 훌륭하신 접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저희들도 접주님과 함께 행동할 작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오만불손하던 태도와는 다른 겸손한 태도를 지었습니다. 김 창수는 그들이 자기를 도와 주러 찾아온 사람임을 알고, 그 날부터 정 덕현을 모주로, 우 종서를 종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주 정 덕현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철저히 지키 나갔습니다.

- 1). 교도들의 기상을 정숙히 하되 병졸에게도 하대하지 말 것.
- 2). 동학 교도의 이름을 빌어 곡식이나 돈을 걷는 강도적 행위를 엄금하고 인심을 얻도록 행동할 것.
- 3). 어진 사람을 구하는 글을 돌려 좋은 인재를 많이 구할 것.



안 진사와 김 창수

동학군이 지켜 나갈 계획에 따라, 김 창수는 교도들과, 재령, 신천에 있는 쌀을 모두 구월산으로 옮겼습니다. 동학 교도라는 이름을 앞세워 백성들을 괴롭히고 행패부리는 자들은 용서 없이 잡아다 벌을 주었습니다.

구월산에서 김 창수가 이끄는 동학 교도들이 차츰 질서를 잡아 세력이 커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창수는 열과 두통이 심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같은 동학군을 이끌고 있던 이 동엽(李東燁)이라는 접주가 교도들을 이끌고 김 창수의 동학 교도들을 습격해 왔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 동엽의 교도들이 민간인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린 일이 있을 때, 김 창수의 교도들이 이 동엽 등을 잡아다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김 창수가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양쪽의 교도들이 숨막히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창수의 교도들은 접주가 병석에 누워 있는 데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 패한 김 창수는 신천 청계동의 안 진사(安進士)를 찾아갔습니다. 그 안 진사의 이름은 안 태훈(安

泰熙)인데, 글 잘 하고 글씨 잘 쓰며, 뛰어난 지략의 선
비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 창수가 이 안 진사
를 찾은 데는 또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원래 안 진사는 포수 수백 명을 거느리고 동학 교도
들을 토벌하던 사람이었는데, 김 창수가 동학 교도들
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 그에게 밀사를 보냈던 일이 있
었습니다.





그 때 김 창수는 그 밀사에게,

“우리 동학 교도들을 토벌하는 안 진사가 왜 내게 당신 같은 밀사를 보냈소?”

하고 물었습니다.

“김 접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 진사께서는 의려소(義旅所)를 두고 동학 교도를 토벌하고 계신 분입니다만, 원래 안목이 높은 분으로, 인재를 아낄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안 진사의 태도가 우리 동학 교도와 무슨 관계



라도 있단 말이오?”

김 창수는 밀사가 늘어놓는 말뜻을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진사께서는 김 접주님을 큰 인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안 진사가 나를 큰 인재로 생각한다고?”

“그렇습니다. 안 진사께서 그토록 김 접주님을 큰 인물로 생각하고 계신데, 김 접주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안 진사의 군대를 치신다면, 안 진사께서도

부득이 군사를 풀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김 접주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까 봐 염려되어 안 진사께서 절 보내신 것입니다.”

“.....?”

김 창수는 혹 자기가 안 진사에게 속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안 진사의 태도에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 진사와 김 창수 사이에는 서로 군사와 교도를 풀어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것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서로 돕자는 두 가지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러한 약속도 있고 해서, 김 창수는 이 동엽의 교도에게 꽤한 아픈 가슴을 달랠 겸 청계동으로 안 진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천봉산(天峰山) 밑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청계동은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서, 50호쯤 되는 인가가 웅기중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동네 어귀에 이르자, 파수병이 나타나 몸을 수색하고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를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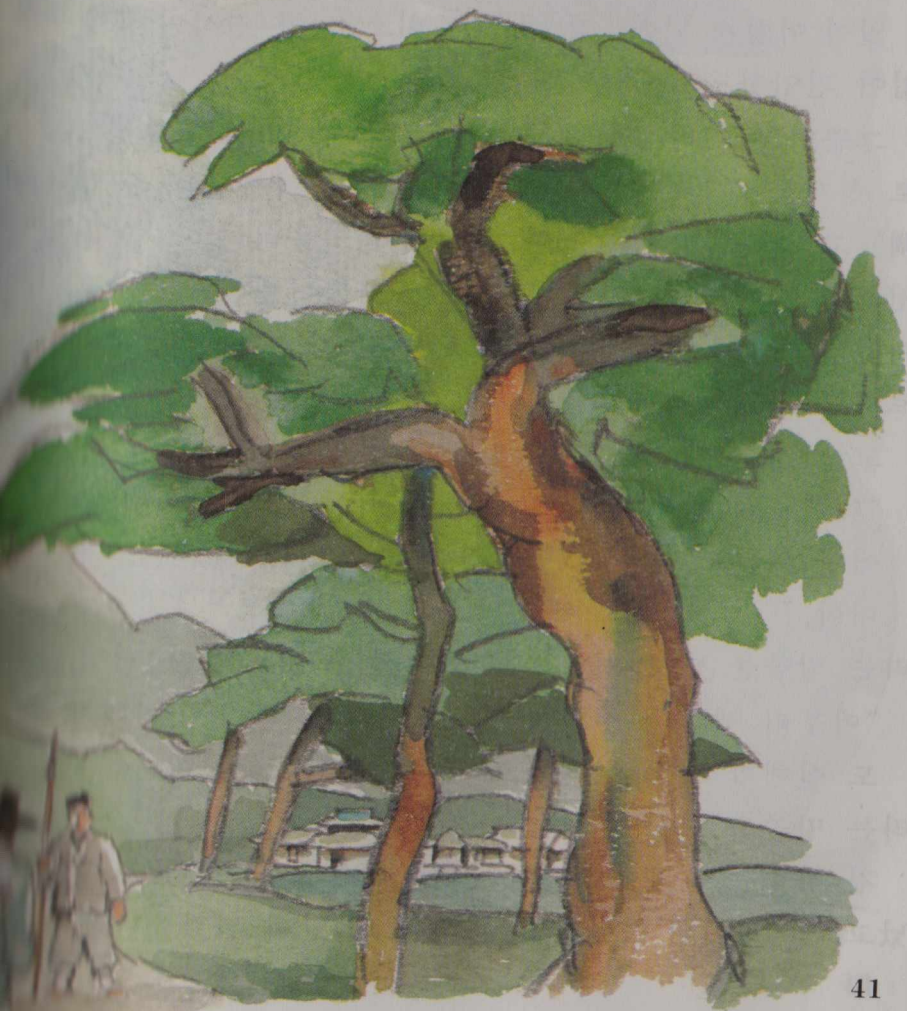


김 창수는 숨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 그 파수병의 안내로 안 진사를 만났습니다.

안 진사는 김 창수를 아주 따뜻이 맞아 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따뜻이 맞아 주시니 정말 황송하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께서는 편안하신지요?”



“아시다시피 이런 불효자를 두신 까닭에 편한 생활을 하실 수가 없는 형편이옵니다.”

김 창수의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안 진사는 자기 부하에게 총으로 무장한 군사 30명을 주면서,

“오늘 안으로 텃골에 가서 김 접주 부모님을 숙히 모셔 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김 창수는 비로소 안 진사의 힘을 입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창수는 때마침 안 진사의 초청으로 청계동에 와 머물고 있는 이름 높은 학자인 후주(後周) 고 능선(高能善) 선생도 뵈게 되었습니다. 고 능선 선생도 김 창수의 사람 됨됨이를 꿰뚫어볼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김 창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고 선생은 김 창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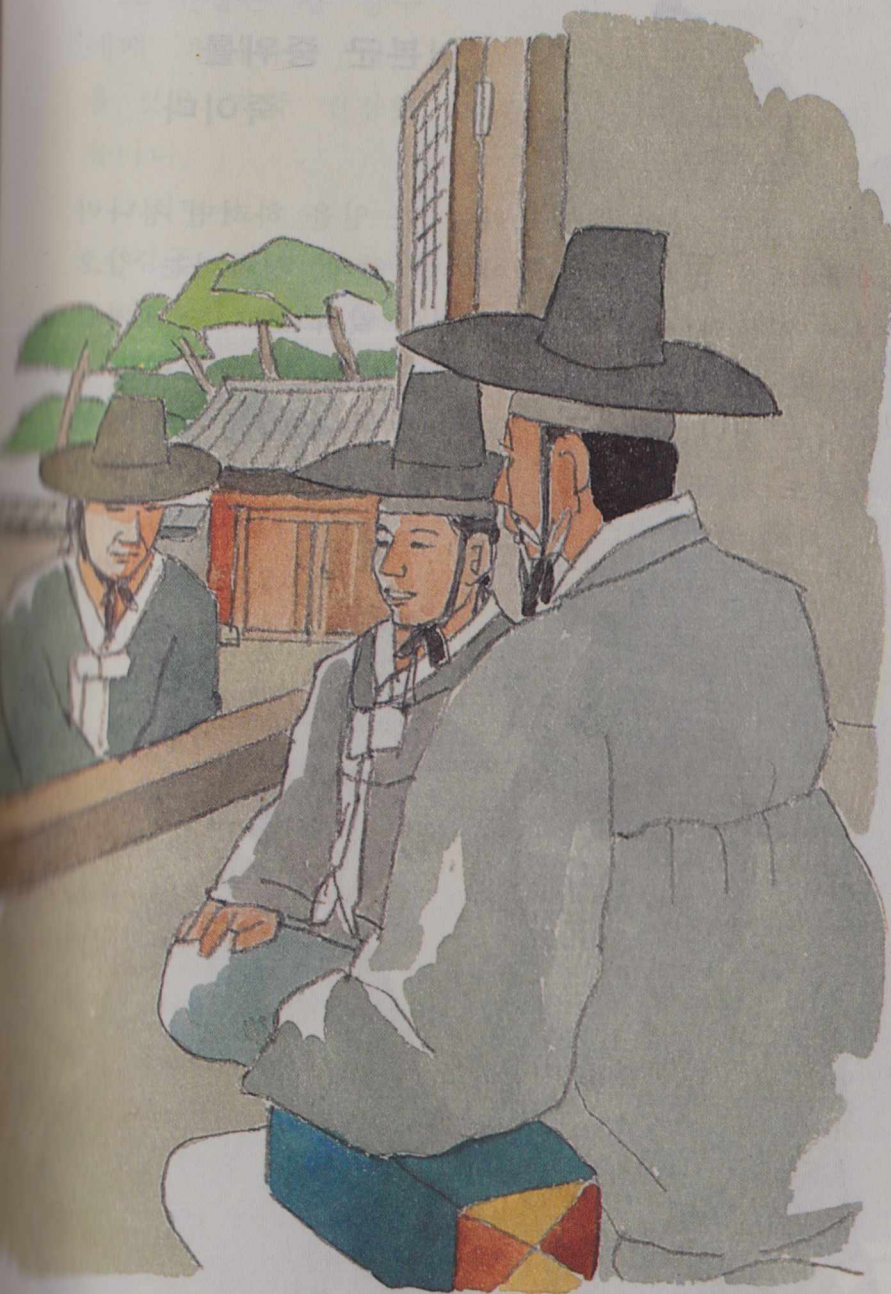
“제아무리 학식이 높고 재능이 뛰어나도, 의리에 벗어난다면 도리어 그 학식과 재능은 화근이 되는 법이야.”

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들려 주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더라도 실행할 결단력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 창수는 청계동에 와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도 만났고, 안 진사의 큰아들인 안 중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중위를 죽이다

“훗날 우리 나라를 일으키는 큰 일을 하려면 청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하네. 청나라는 갑오년에 일본과 싸워 진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언젠가는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과 다시 싸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의 사정에도 밝아야 하고, 청나라 인물들과도 친해 두었다가 훗날 때가 오면 써 먹어야 하는 거야.”



고 선생은 김 창수에게 청나라에 다녀올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군, 자네가 청나라에 가 있는 동안 자네 부모님은 우리가 다 알아서 모실 테니까…….”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고 선생의 권유와 호의에 김 창수는 크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다녀올 결심을 하고 김형진(金亨鎭)과 의논을 하여 참빗 장수와 황화(荒貨) 장수로 변장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열 아홉 살의 김 창수는 큰 뜻을 품고 평안을 거쳐서 육로



로 정평, 함흥, 삼수와 갑산을 지나 압록강 기슭을 돌아 남만주 삼도구에서 김 이언(金利彦)의 의병 부대에 가담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병 부대에서 김 창수는 위원, 강계 등지로부터 화약을 실어 오는 책임을 맡고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김 이언 의병 부대가 강계성에 포진하고 있던 일본군을 토벌하려다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창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도중에서 김 창수는 청나라의 젊은 장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교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창수는 청나라를 여행하는 자기의 뜻을 글로 적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청나라 장교는

"우리 원수도 왜놈이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왜놈을 원수라고 하오?"

라고 적어 김 창수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 수많은 우리 민족을 죽였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일본으로 가져갔소. 또, 이제는 우리 나라를 송두리째 삼킬 계략을 꾸미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우리의 국모인 명성 황후를 시해했소. 그러니 어찌 우리의 원수가 아니겠소?”

김 창수가 써 준 글을 읽은 청나라 장교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 글에는, 자기가 청·일 전쟁 때 평양에서 전사한 청나라 장수 서 옥생(徐玉生) 장군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나라 장교와 김 창수가 서로 글로 써서 나눈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서 오는 길ियो?”

“관찰사에게 부친의 시체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연락이 와서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의 시체였소. 그래 이렇게 낙심하고 돌아가는 길ियो.”

“그거 정말 안 되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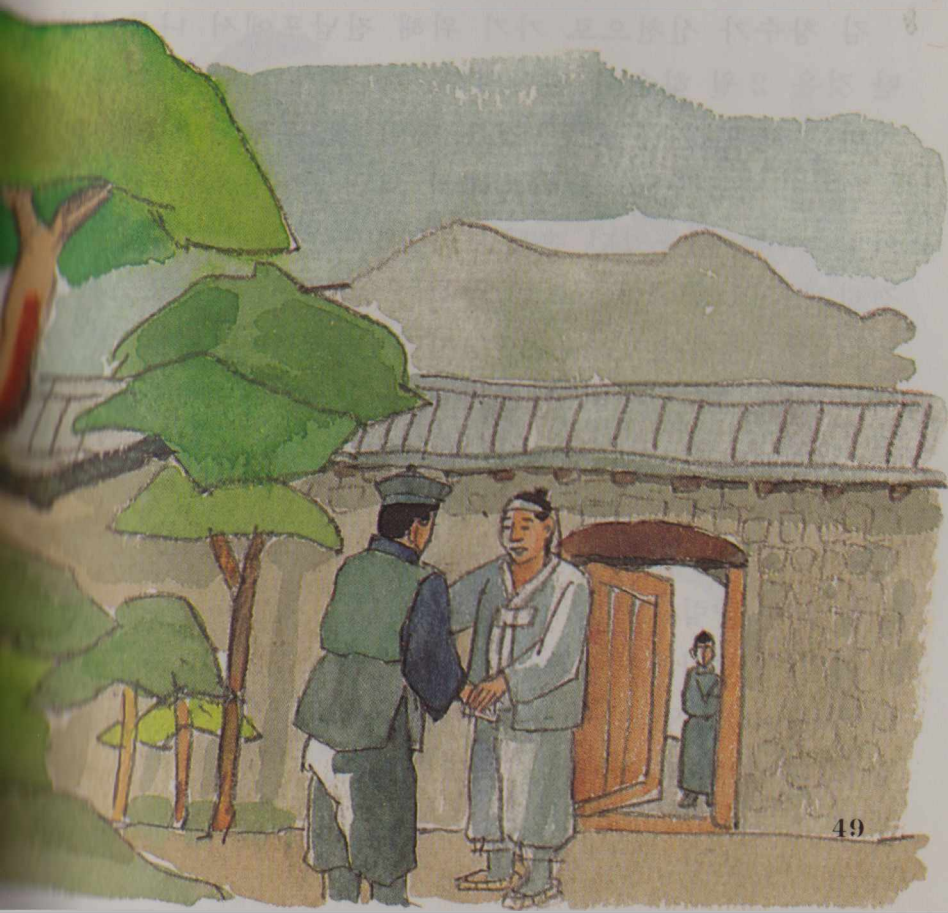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집으로 함께 갑시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이 너무나 어수선하여 나라를 위해 할 일을 찾고 있는 중이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 작정이요. 그 때, 꼭 댁에 들르겠소.”

김 창수와 청나라 서 옥생 장군의 아들은 의형제를 맺고, 다시 만나기로 굳게 기약한 다음 헤어졌습니다.

우리 나라를 서로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틈바구니에서, 일본 공사 미우라가 일본 낭인(부랑자)을 시



켜 1895년 8월 20일, 경복궁을 습격하여 친러책을 써 온 명성 황후를 시해한 뒤 친일파가 득세하자, 친러파는 친일파의 우두머리 김 홍집(金弘集)을 죽이고 고종 황제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모셔 갔습니다.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친일파와 친러파의 심한 갈등으로 우리 나라 조정은 어지럽기 그지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안 김 창수는 구태여 외국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김 창수가 인천으로 가기 위해 진남포에서 나룻배에 탄 것은 2월 하순의 일이었고, 그 배가 대동강 하류의 치하포(鵝河浦)에 닿은 것은 달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 날 밤을 강가의 여관에서 지낸 김 창수는 이튿날 아침, 여관에 묵었던 손님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상투가 아니면 머리를 땅아 내린 사람들뿐인데, 그 사람만은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는 황해도에서 산다고 했는데, 김 창수가 자세히 들어 보니 황해도의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놈은 우리말을 잘 하는…… 뭔가 염탐하러 온 왜놈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던 김 창수의 눈에, 그가 입은 흰 두루마기 밑으로 나와 있는 일본 군도(軍刀)의 칼집 끝이 보였습니다.

‘옳다. 저놈이 우리 국모를 죽인 놈인지도 모른다!’

김 창수의 온몸에 뜨거운 피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수치를 씻고 조선 사람의 기백을 보여 줄 때가 왔다고 생각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창수는 그 일본인이 밖으로 나가는 틈을 타서 살 그머니 그의 뒤를 따라가서, 잽싸게 발길질로 왜놈의 배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 바람에 저만치 나가둥그러진 놈의 목을 나는 듯이 달려가 밟은 김 창수는

“이놈은 왜놈이다! 이놈을 도우려고 내게 덤비는 놈이 있으면 목을 비틀어 죽일 테다!”



하고, 방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을 밟힌 왜놈은 틈을 타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들었읍니다. 그것을 본 김 창수는 찹싸게 그 칼을 피했읍니다.

“이놈아! 내가 네놈의 칼에 죽어?”

김 창수는 왜놈이 내리치는 칼날을 피하면서 왜놈의 옆구리를 다시 한 번 힘껏 걷어찼읍니다. 그 바람에 왜놈이 칼을 떨어뜨리며 쓰러졌읍니다.

김 창수는 재빨리 그 칼을 주워 들고 외쳤읍니다.

“우리 국모를 죽인 이 왜놈아, 이 원수 놈아!”



이 한 마디가 떨어
지기 무섭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수히 난도
질을 했습니다. 왜놈은
쓰치다 조오료오라는
일본군 중위로, 우리
나라 엽전 800냥을 지
니고 있었습니다.

김 창수는 여관 주
인을 불러서,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골고루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는 붓글씨로,

〈이 왜놈은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해주 텃골 김 창수
가 죽였노라!〉

라는 포고문을 큼직하
게 써서 큰 길가에 붙
이는 한편, 그 사실을
안악(安岳)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유유
히 고향을 향해 발걸
음을 옮겼습니다.





학교로 바뀐 인천 감옥

김 창수가 치하포 여관에서 왜놈을 죽인 지 석 달이 지난 1896년 5월 11일 새벽, 30여 명의 일본 순검들이 텃골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김 창수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김 창수는 그 길로 해주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혀 지낸 지 한 달쯤 뒤에 김 창수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놈이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죽이고 강
도질을 한 놈이냐?”

“아니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소!”

“이놈! 네놈의 짓이
분명한데 거짓말을
하느냐?”

김 창수의 좌우에
섰던 사령들이 양쪽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넣고 비틀어 댔읍니다.
주리를 튼다는 무서운
고문이었습니다. 그러
나, 김 창수는

“나는 강도질한 일
도 없고, 또 내 죄는
이런 관찰부에서 처
리할 일이 아니니,
날 내부(지금의 내
무부)로 보내 주기
를 요구하오.”

이렇게 자기 주장만
거듭할 뿐, 이를 악물
고 고통을 참으면서도





끝내 거짓 자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쯤 지난 7월 어느 날, 김 창수는 인천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창수의 어머니도 옥살이하는 아들의 뒤를 따라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 감옥에서도 김 창수는 단순한 강도로 취급되어, 여덟 명의 다른 도둑들과 함께 긴 차꼬(발에 채는 형틀의 일종)에 발목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창수는 옥에서 경무청으로 심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심문하는 경무관이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죽인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창수도 순순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본인이 가진 돈이 탐나서 죽였다면서?”

“나는 우리 나라 국모 폐하의 원수를 갚으려는 뜻에서 왜놈을 죽인 일은 있으나, 재물을 강탈한 일은 절대로 없소!”

김 창수는 경무관에게 이렇게 대답한 뒤, 그 곳에 있는 왜놈들에게,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통상을 하자면서 화친하는 조약을 맺어 놓고 어째서 우리 나라의 황후 폐하를 죽였느냐? 난 죽어서도 네놈들에게 당한 우리 나라의 치욕을 씻고야 말겠다!”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경무청에서는 김 창수가 가볍게 다룰 죄수가 아닌 정치범임을 깨닫고, 그 날부터 대우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국모를 죽인 원수를 갚고자 왜놈을 죽인 김 창수>에 대한 소문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창수의 어머니는 전에 없이 기쁜 얼굴로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김 창수는 어머니에게 어째서 기뻐하시는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요즈음, 세상이 온통 네 칭찬으로 들끓고 있단다. 나한테도 아주 훌륭하고 용감한 아들을 두었다고 부러워한단다……. 그리고, 어제는 김 경무관이란 사람이 돈 백 오십 냥을 내게 주면서 네게 보약을 지어 먹이라는 구나. 내가 세 들어 있



는 집 주인도 자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도와 주겠다고 하더구나.”

김 창수는 어머니의 이런 대답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머니가 기뻐하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부터 김 창수를 면회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이렇게 면회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맛있는 음식이나 감옥 안에서 입을 옷가지들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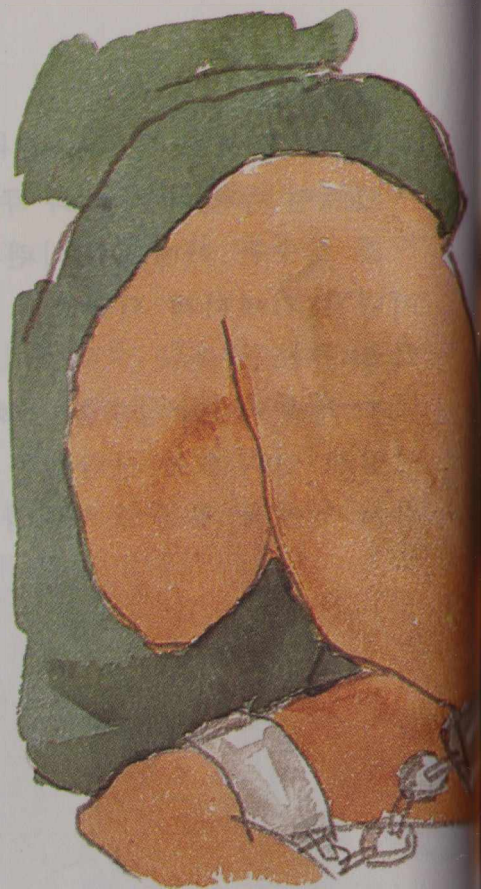


김 창수는 면회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감사하다는 정중한 인사로 받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는 다른 죄수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에게는 책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서신사(泰西新史)》 《세계지지(世界地誌)》 같은 새로운 학문의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학문의 책을 읽고 나자, 김 창수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도 늘었고, 오늘날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같이 있는 죄수들에게 알아 듣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김 창수는 죄수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무식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렇게 고달픈 옥살이를 하





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앞으로 밝은 세상에 나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창수는 온갖 힘을 다 기울여 그들에게 글은 물론, 토덕이나 예의 같은 것도 가르쳐 주었고, 옛 성현들의 말씀도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 주었습니다.

김 창수가 이렇게 죄수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신문도 그 사실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수를 가두어 놓은 인천 감옥이 마치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글방처럼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온 인천에 퍼졌습니다.

“거, 김 창수라는 자가 인물은 인물이야.”

“이런 사람이 어서 감옥에서 나와 큰 일을 해야만 나라꼴이 잘 되어 갈 텐데…….”

인천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김 창수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탈 옥

외국인과 관계된 사건은 인천 감영에서 맡아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창수도 계속 인천 감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해 7월 27일, 김 창수의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황성 신문(皇城新聞)》에 실렸습니다.

김 창수는 그 기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분을 죽인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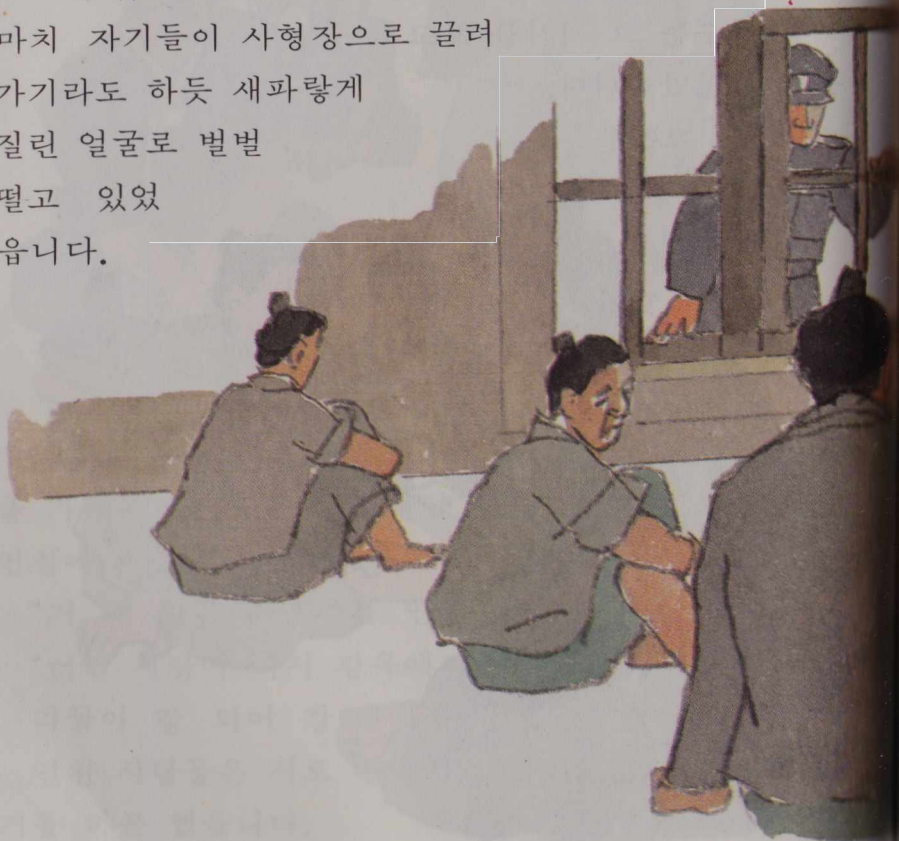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줄을 지어 면회를 청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김 창수는 감옥 안에서 조용히 책장만 넘겼습니다.

드디어,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된 날이 왔습니다.

“김 창수!”

감방 문 앞으로 어지럽게 다가선 발길이 우뚝 멈춰 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갇혀 있던 죄수들은
마치 자기들이 사형장으로 끌려
가기라도 하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
습니다.



“김 창수!”

“왜 그러시오?”

그제야 김 창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읽던 책에서 눈길을 거두고, 감방문을 여는 관헌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살았소. 지금 막 황제 폐하께서 김 창수에 대한 사형을 중지하라는 칙명을 내리셨소!”



관헌의 목소리도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께서도 뒤늦게서야 김 창수의 죄가 단순한 살인 강도죄가 아니고 국모를 죽인 자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저지른 살인죄임을 깨달으시고, 급히 어전 회의를 열어 그의 사형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인 8월 26일, 《황성 신문》에는 다시 〈김 창수는 살인 강도가 아니라 국모의 원수를 갚은 사람이라 특사한다.〉는 황제의 담화문과 함께 김 창수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특사령이 내려오니, 김 창수를 당연히 옥에서 풀어 주어야 하겠지만, 인천 감영에서는 일본의 압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왜놈들 때문이야. 황제의 칙명도 내려했는데,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가둬 두다니……. 내가 병이라도 나서 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그것을 좋아할 놈들은 오직 왜놈들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서 빠져 나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감옥 안에서 두 해 겨울을 보내고 그가 스물 두 살이 되던 그 해 3월 어느 날, 김 창수는 이렇게 결심을 하였읍니다.

마침 그 때, 같은 감방에 조 덕근이라는 10년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김 창수를 줄라 가며 감옥에서 탈출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탈옥하려면 돈이 필요하오. 한 200냥쯤은 있어야 할 것 같소.”

“곧 마련하겠습니다.”

조 덕근은 이튿날로 곧 200냥의 돈을 마련했습니다. 면회 온 사람을 시켜 급히 변통해 온 것입니다. 김창수도 면회 온 어머니에게 한 자 길이쯤 되는 세모난 쇠창살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2, 3일 안으로 탈옥하겠으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는 이 밤 안으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자기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인 3월 9일에 탈옥을 하기 위한 연극이
벌어졌습니다. 김 창수는 그 날 당번인 옥사장을 불
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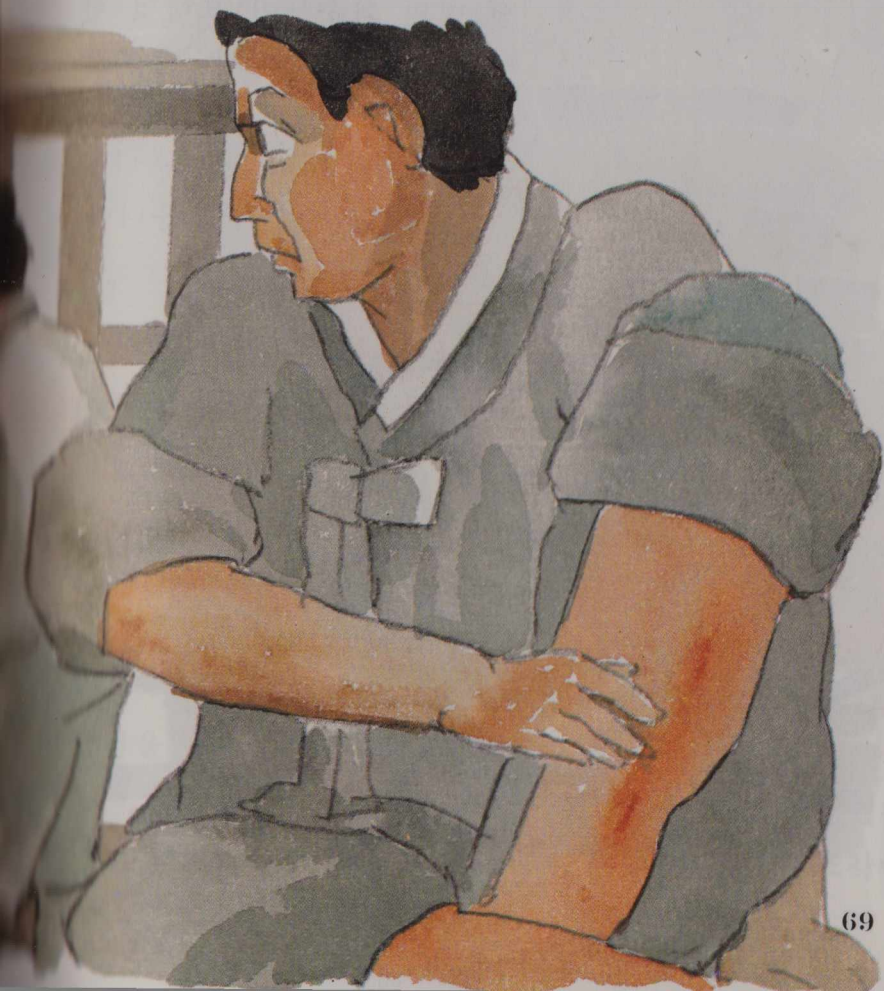
“자, 이 돈으로 쌀과 고기를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고생하는 여러 죄수들에게 한턱 내고 싶
어서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150냥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들어 주는 댕가로 그 옥사장에게 따로 스물 닷 냥을 몰래 쥐어 주었습니다. 옥사장이 아편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옥사장이 눈감아 주는 범위 안에서 아주 간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옥사장은 김 창수를 믿은 데다가, 또 자신은 아편을 피우기 위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 창수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구해 두었던 쇠창살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벽돌을 부수어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죄수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판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탈옥하기로 비밀리에 약속이 된 죄수들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조 덕근 이하 다섯 명의 죄수들이 요령껏 한 사람씩 비밀 통로를 찾아 감방 밖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김 창수도 그들을 따라 비밀 통로로 감방을 빠져 나갔습니다.

감방을 빠져 나가자 다시 높다란 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담만 무사히 넘어가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김 창수는 한 사람씩 그들의 엉덩이와 발을 받쳐서 담장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네 명의 죄수를 무사히 담장 밖으로 보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죄수가 담 밑으로 뛰어내리며 셋조각이



라도 건드렸는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순검청에서 탈옥하는 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비상을 알리는 호각 소리와 함께 이곳 저곳에서 물려오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려 왔습니다.

김 창수는 그야말로 진퇴 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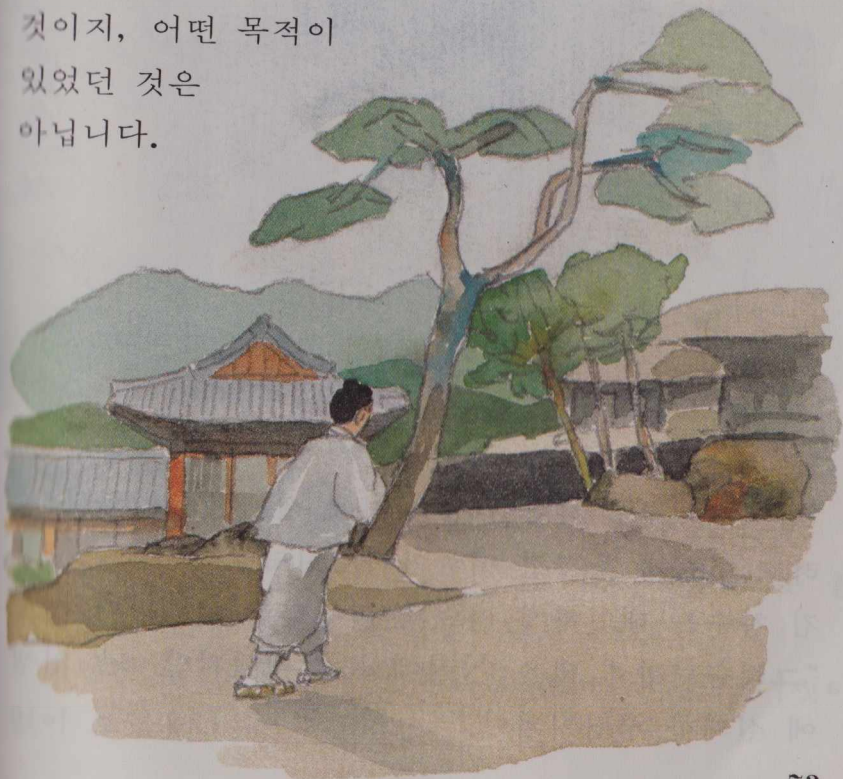
그는 쇠창살을 들고 있던 오른손에 힘을 주고는 정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느님의 보살핌이었는지, 다행히 그 쪽에는 파수 순검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나그네 길에서 꿈 꿈

감옥을 탈출한 그는 곧장 수원, 오산, 강경, 무주, 남원, 전주, 목포, 광주, 함평, 강진, 고금도, 완도, 장흥, 보성, 화순 등지의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식객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감사로 갔읍니다.

그러나, 그가 계룡산에 들른 것은 하동(河東)에서 충청도 쪽으로 향하여 발길 내키는 대로 걸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것이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별다른 생각도 없이 절구경을 하며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그에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절구경을 오신 모양이지요?”

한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가 김 창수에게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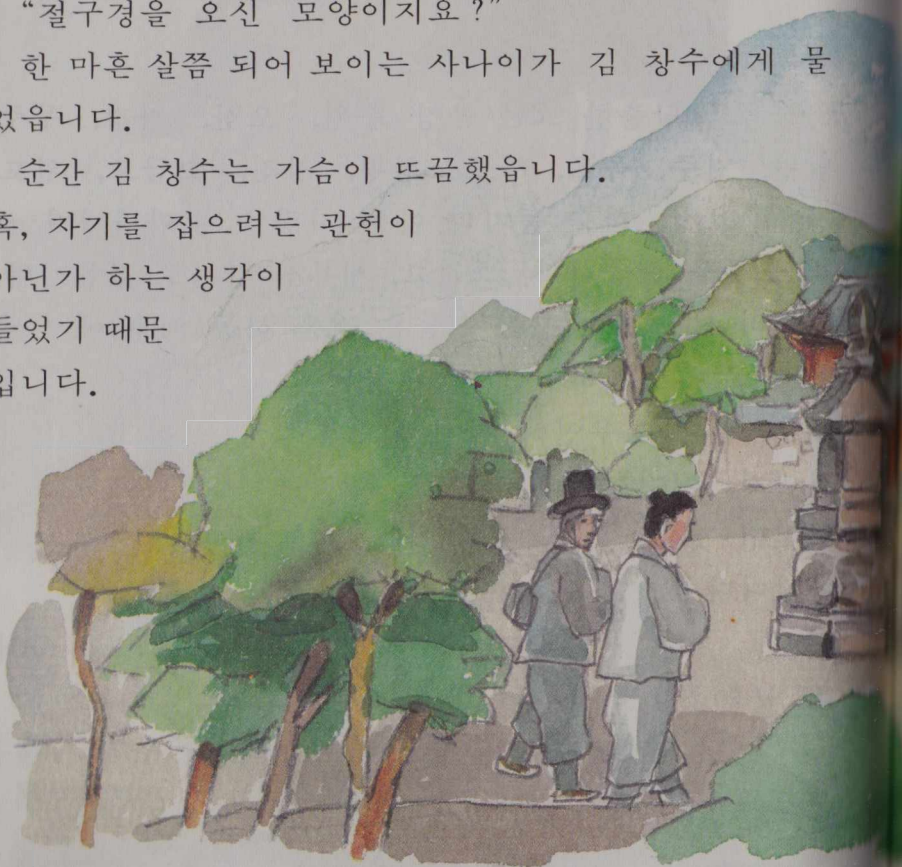
순간 김 창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 자기를 잡으려는 관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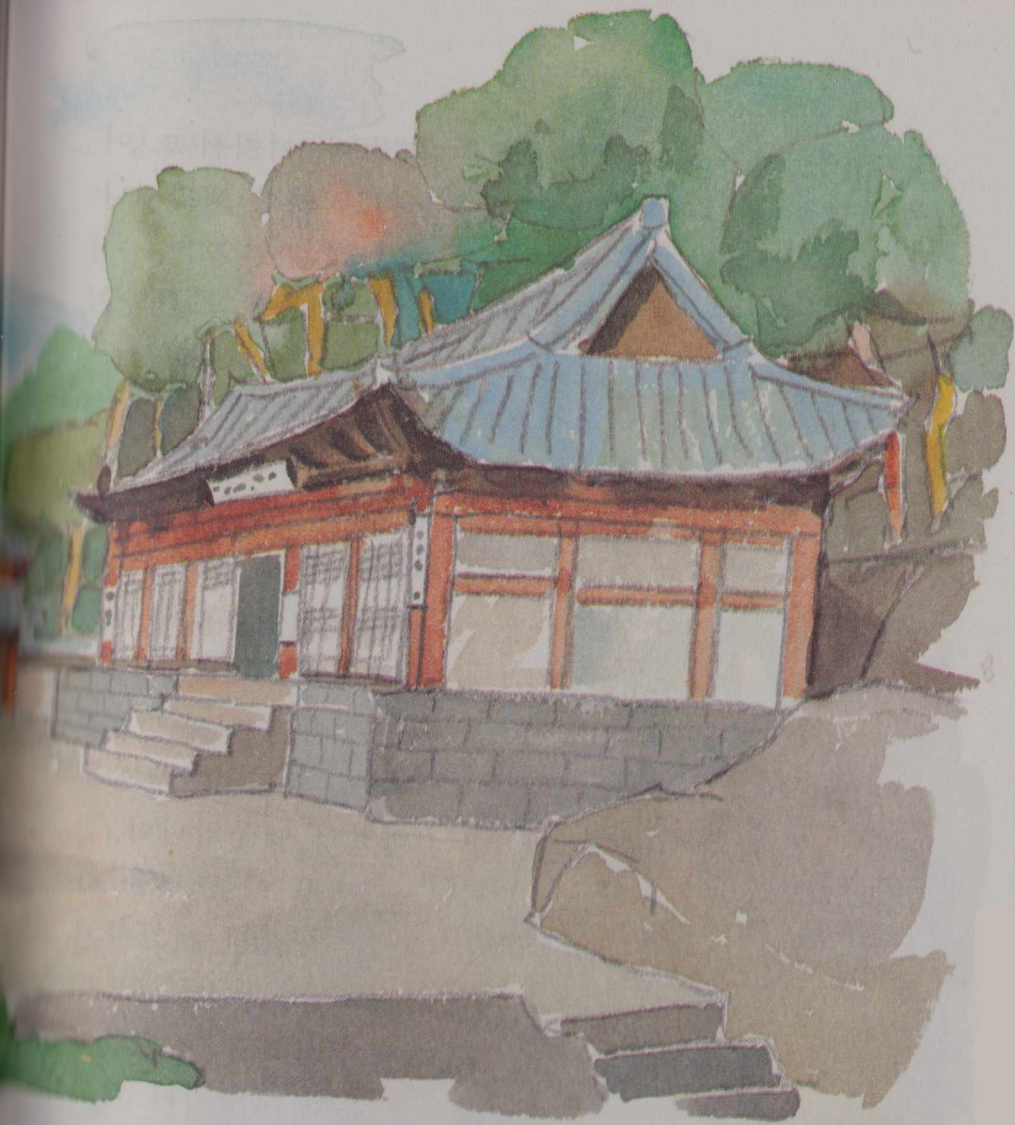
입니다.



“전 본디 개성 사람인데, 장사에 실패한 뒤 화나 풀려고 이렇게 무작정 떠돌아다닙니다만…….”

김 창수는 태연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닥은 장사에나 실패했지만, 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외다.”



“인생에 실패를 하다니요?”

“일찍 홀아비 신세가 되어, 아무 데도 마음을 못 붙이고 이렇게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나이의 태도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마곡사에 가서 중이 되려고 합니다.”

“중이오?”

김 창수는 사나이가 힘도 안 들이고 하는 말에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도,

‘중이나 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도 세상 만사가 부질없으신 모양이니 나와 함께 마곡사에 가서 중노릇이나 합시다.”
“글쎄요. 하기는 나도 마곡사에 들를 작정을 세우고 있었읍니다만…….”



김 창수는 얼버무려 대답을 했읍니다만, 실은 그도 이 사나리와 함께 마곡사로 가서 중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탈옥한 죄수가 숨어 사는 방법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니다.

마곡사로 들어간 김 창수는 그 곳의 용담화상(龍潭和尚)에게서 계(戒)를 받고, 하은당(荷隱堂)이라는 늙은 스님의 제자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절에서 부르는 이름을 원종(圓宗)이라고 하엿읍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중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잠시 동안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오래 계속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읍니다.



스물 세 살이 되던 가을, 그는 원종이라는 법명과 가사와 장삼을 버리고 고향인 텃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투를 올리고 농사일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사일도 고향도 그의 마음을 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고향에서 삽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스물 네 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김 두래(金斗來)로 고친 다음 다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강화도로 간 그는, 그 곳에서 30여 명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글공부를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주(茂朱)에 사는 유 인무(柳仁茂)라는 사람이 김 창수를 찾아 강화도까지 왔습니다.

“저는 유 인무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창수 형을 찾아다녔소. 창수 형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소. 형의 행동에 무척 감동했소. 뜻을 같이 하고 일생을 같이 지냅시다.”

유 인무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김 창수를 만나게 되매 여간 기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한 못한 놈을 그토록 칭찬해 주시니 오히려 얼굴이 뜨겁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니 앞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김 창수도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는 무주 유 인무의 집에서 그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김 형, 내 좋은 이름 하나 지어 드릴까요?”

“왜, 창수라는 이름은 나쁘니까?”





“그 이름

으로는 이제

행세할 수 없잖습니까?”

“그도 그렇군요. 그럼, 어디 이름을 지어 주시죠.”

유 인무는 김 창수에게 이름을 거북 구(龜)자로 지어 주고, 자(字)를 연상(蓮上), 호(號)를 연하(蓮下)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김 창수라는 이름이 김 구(金龜)로 바뀐 것은 이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김 구에게 <황천(黃泉)>이라는 글자를 써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천이란,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곳입니다.



깜짝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읍니다. 그는 그 꿈에서의 일이 불길하게 생각되어, 이튿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고향인 텃골로 향했읍니다. 집에 당도해 보니, 아버지의 병환이 아주 위독했읍니다.

약을 정성껏 달여 드렸으나 효험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에 아버지가 할머니께 해 드린 것처럼 허벅지에서 피를 내어 아버지 입에 넣어 드렸읍니다. 그러나, 아무 보람도 없이 아버지는 보름 만에 아들의 무릎을 벤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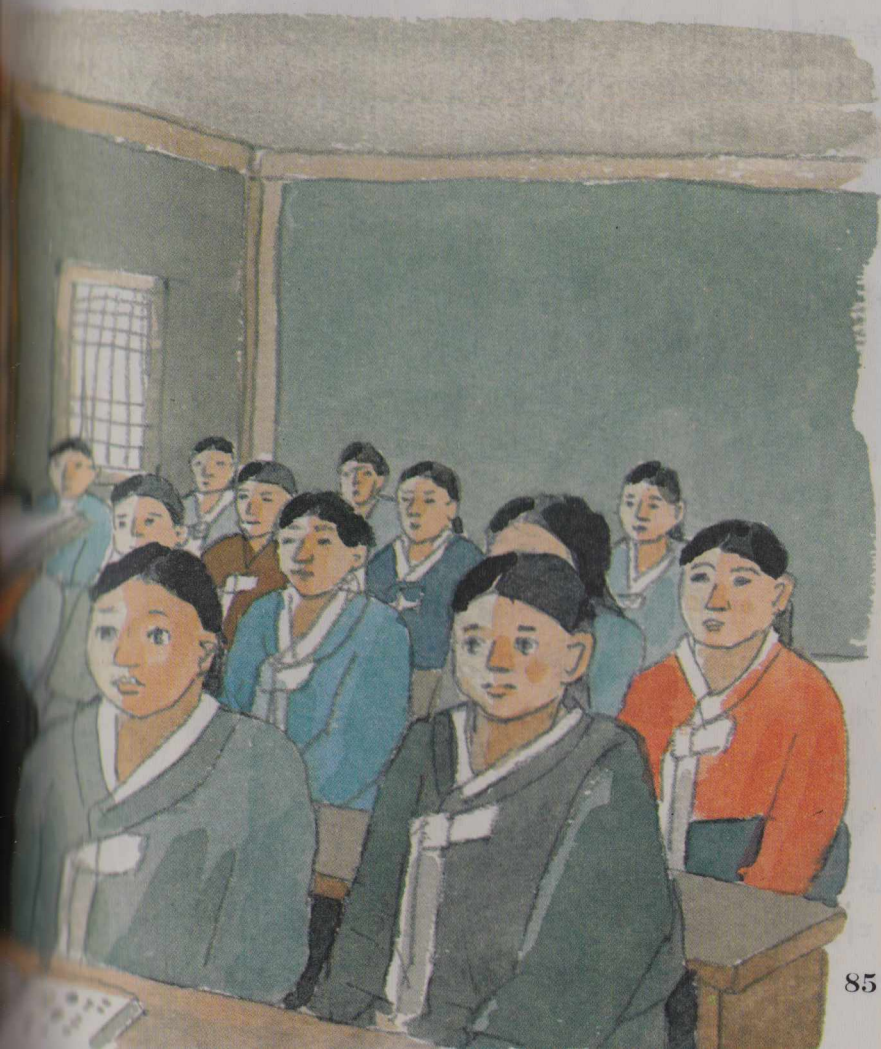
다시 감옥으로

김 구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여러 번 결혼하려고 했으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1903년, 즉 김 구가 스물 일곱 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모시고 장연(長連)으로 이사했는데, 그 곳에 사는 오 인형(吳寅炯)이라는 진사가 그에게 20여 마지기나 되는 농토와 과수원을 주었습니다.



김 구는 결혼한 다음 해에 진남포 예수 교회의 청년회 총무 자격으로 서울 상동(尙洞) 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의 목적은 교회 사업을 토론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 주된 목적은 애국 운동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대회에는 이 준(李儁), 이 동녕(李東寧)과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구는 그 곳에 학교를 세우고 다른 학교에서는 가르칠 생각도 못 하던 산수, 지리, 역사 따위의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토록 학교 생활에 열심이던 노총각 김 구는 스물여덟 살 되던 해에 열 일곱 살인 최 준례(崔遵禮)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나가며 착실하게 종교 생활도 했습니다.





그들은 상동 교회에서 한·일
보호 조약을 폐기하도록 고종 황
제에게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한
다음,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문
(大漢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젊은 김 구는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려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왜놈들
은 우리 나라 내정을 간섭하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했읍
니다. 우리 동포는 모두 한 마
음 한 뜻이 되어 나라를 되찾
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문 앞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곧 왜
놈 순검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군중들과 연사들을 해산시켰읍
니다. 그러나, 연사들은 왜놈 순검
에게 굴하지 않고 일본의 침략상
을 계속 폭로하고 규탄했습니다.

일본 순검들은 이들 다섯 지사
(志士)들을 경무청으로 잡아 갔읍
니다.



이 때, 연설하던 한 애국 지사가 일본 순검 하나를 발로 차 쓰러뜨리자, 군중들이

“왜놈을 죽이자!”

라고 고함을 질렀고, 왜놈 순검들은 군중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댔습니다. 민중의 분노는 총탄 앞에서 일단 수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김 구는 그 날, 민 영환(閔泳煥)이 자결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조상(弔喪)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께 올리는 상소가
별다른 효과가 없게 되자,

그들은 계획을 바꾸
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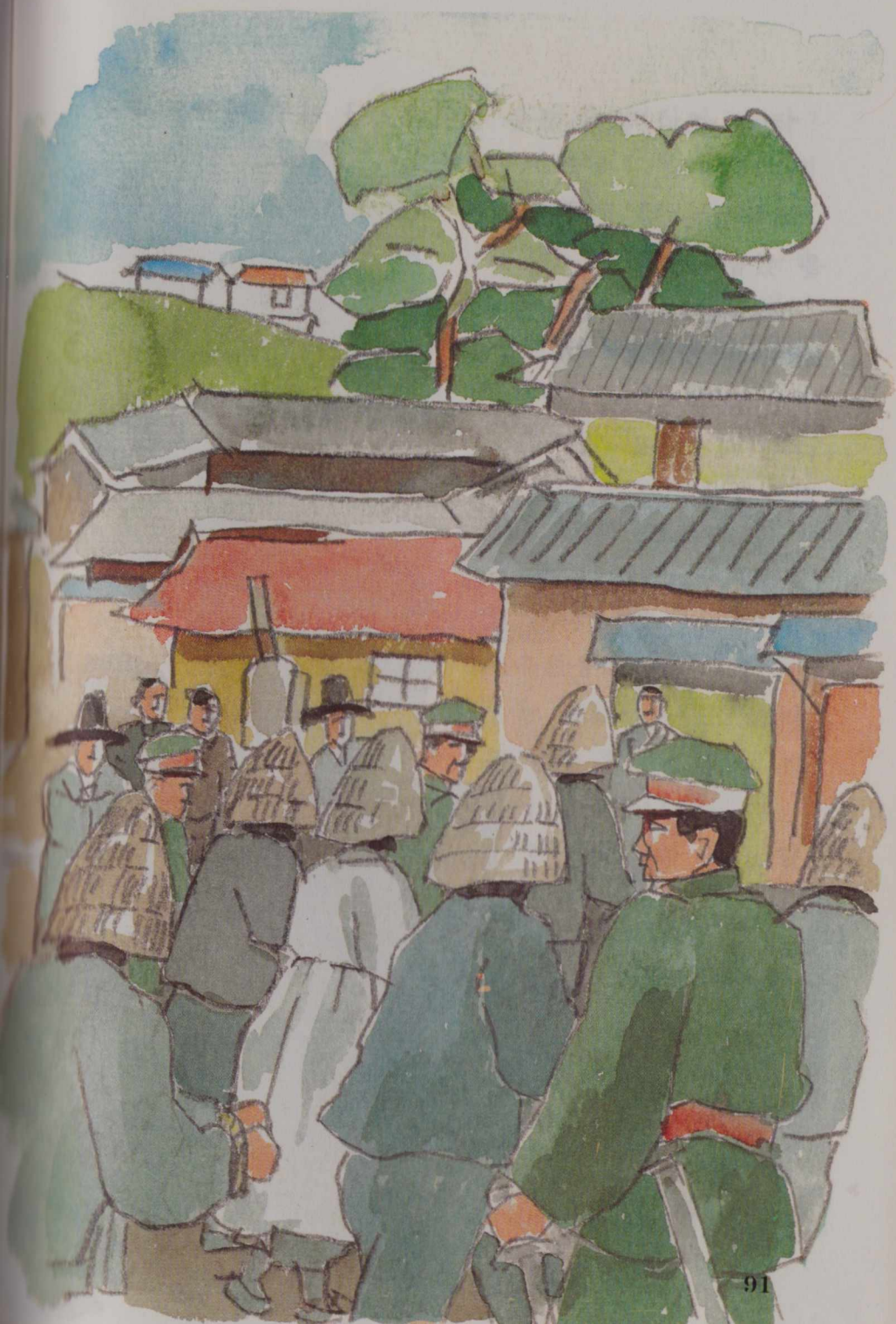


“우리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국민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애국심을 불어넣어 줍시다.”

“그렇소. 지금으로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이렇게 합의를 본 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구가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 교육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던 1907년, 미국에서 활약하던 도산 안창호(安昌浩)가 귀국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대성 학교(大成學校)를 세우고, 뜻이 맞는 동지들을 모아 애국 운동을 위한新民회(新民會)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新民회는 애국 사상이 강한 400여 명의 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김 구도新民회의 중요한 회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新民회에서 그 때 결정한 것은, 만주에 무관 학교를 세워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독립군을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출신도에 가서 무관 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김 구는 황해도의 자금 조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대사를 비밀리에 진행시켜 나가던 1911년 1월 5일 새벽이었습니다. 왜놈 헌병들이 김 구의 숙소로 찾아와 그를 잡아 갔습니다. 그를 잡아 간 헌병대 파견소에는 이미 다른 애국 지사들도 많이 끌려 와 있었습니다. 헌병대에서는 그들을 체포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 곳에서 재령, 사리원을 거쳐 서울로 압송해 갔습니다.

간악한 왜놈들은 민족 운동의 비밀 결사인新民회를 뿌리뽑고 기독교를 탄압하며, 그리고 애국 지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꺾어 자기들 멋대로 우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애국 지사들을 아무 죄도 없는데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김 구는 왜놈들의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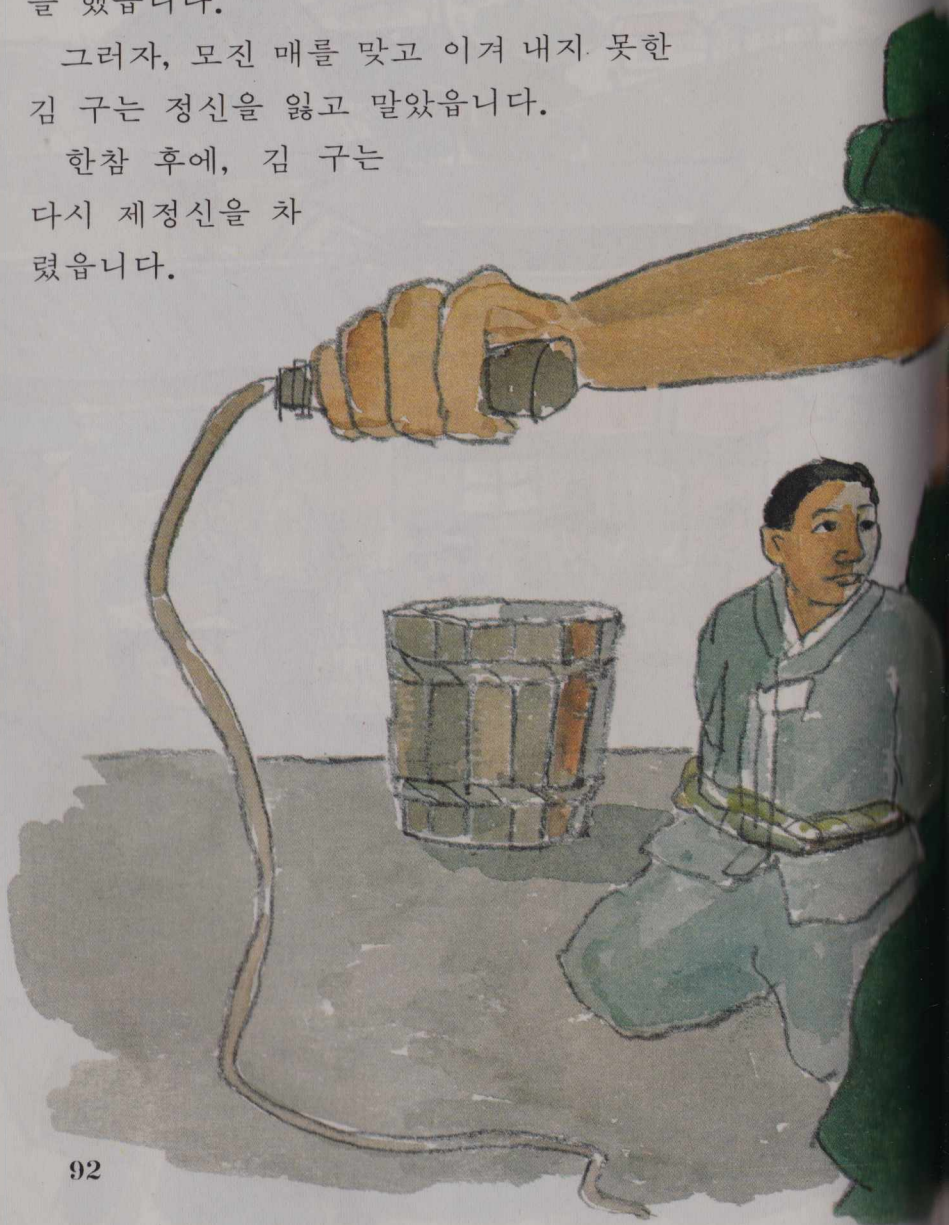
“김 구! 네가 잡힌 까닭을 알겠지?”

“잡아 오니 끌려 왔을 뿐이다. 난 아무 이유도 모른다!”

왜놈들은 김 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모질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진 매를 맞고 이겨 내지 못한 김 구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김 구는 다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지 ?

바른대로 말해! 안 명
근과는 어떤 관계냐?”

“난 안 명근과는 아무
런 관계도 없다. 다만
그가 안 중근의 사촌
동생이라는 것만 알
뿐이다.”

“거짓말 마라!”

몇 명의 왜놈이 다시
김 구를 천장에 거꾸로
달아매고 심한 매질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정
신을 잃었습니다. 그리
고 얼마 후, 어스름푸레 정
신이 들었습니다.

“안 명근과는 무슨 일
을 했느냐?”

“난 그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김 구는 끝까지, 안 명
근과 만주에 세울 무관
학교 건립 기금 모집에
대해 상의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위로

계속하여 모진 고문을 받던 김 구는 어느 날, <최고 신문실(最高訊問室)>이라는 패말이 붙은 방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 속일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숨기지 말고 털어 놓으란 말야!”

와타나베(渡邊)라는 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김 구에게 소리쳤읍니다.

“.....”

“지금까지 지내 온 네 경력을 이야기해라!”

“난 서민의 자손으로 태어나 어려서는 농사를 지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종교와 교육 사업을 해 온 사람이오.”

“그럼 지금은 뭘하고 있지?”

“지금은 황해도 양산 학교의 교장으로 있소.”

“야, 이놈아! 네놈이 교육자인 체하지만, 뒤로는 온갖 음모를 꾸미고 돌아다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와타나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댔읍니다.

“나는 아무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 사람이오!”

“이놈아! 네놈이 안락에서 안 명근과 공모하여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리고, 간

도에 무관 학교를 세우려고 부자들을 찾아다니며 강제로 건립 기금을 강탈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나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소. 더구나, 안명근이와는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요.”

“간도에 무관 학교를 세울 기금을 마련하러 다니지도 않았단 말인가?”

“간도에 무관 학교를 세우려 했던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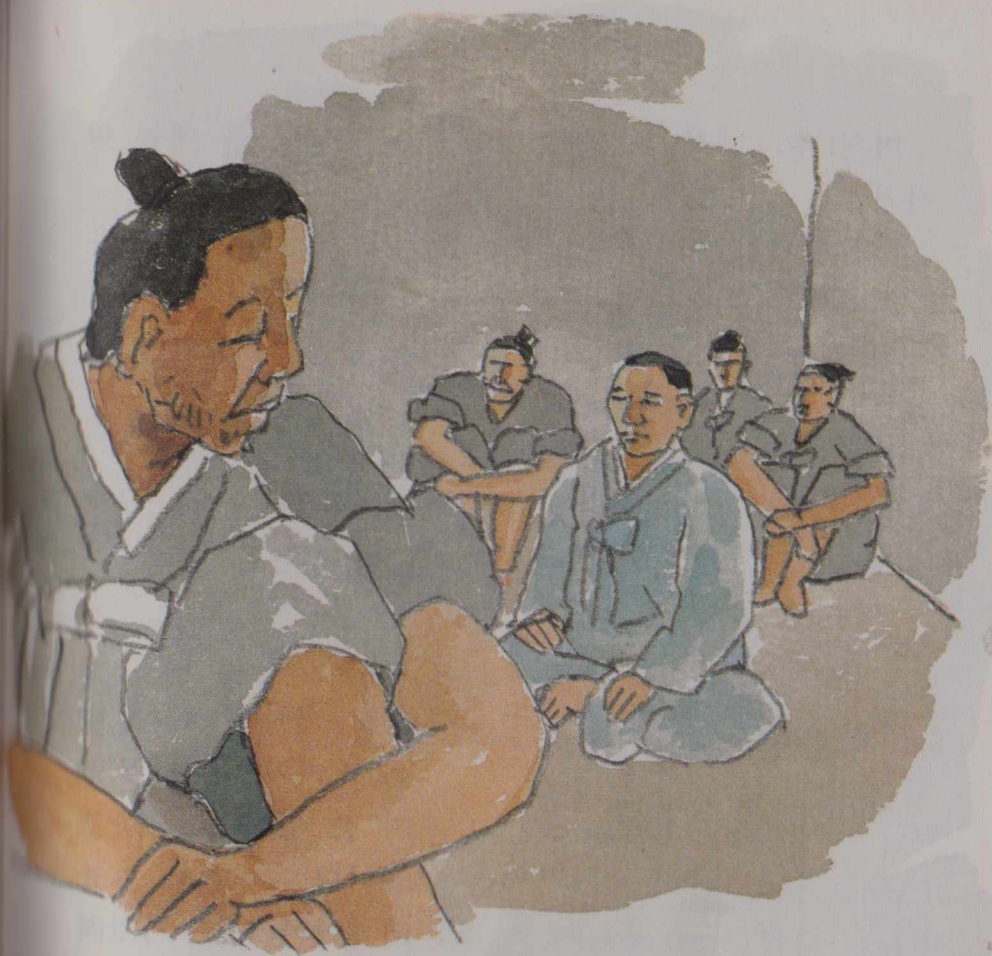
“이사 갈 생각이었다고?”



“그렇소. 가난한 농민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기회를 주고 싶어 간도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요. 그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기부받은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전혀 없었소.”

김 구는 이처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놈 형사들도 만만치 않았읍니다. 계속 참을 수 없는 고문과 함께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진 고문 중에는 <학춤>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양팔을 등 뒤로 결박하고 공중에 대롱대롱 달아매 놓고는 몽둥이로 사정 없이 때려 기절시키는 고문입니다.





이러한 고문을 당하고 유치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김구는 일부러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이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다고 해도 내 정신은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한 고함 소리는 같은 유치장에서 고생하는 여러 동지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쉽게 풀어져 일본 형사들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김 구를 신문하기 시작한 한 왜놈 형사가

“이 미련한 녀석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는데, 네놈만 입을 다문다고 모든 것이 감추어질 것 같으냐?”

라고 소리쳤읍니다.

“나는 실토할 것이 아무것도 없소.”

“듣기 싫다. 네놈은 우리가 새로 마련한 발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

김 구는 그 왜놈 형사의 입에서 튀어 나온 소리가 무슨 뜻인지 곧 알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놈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소리는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였읍니다. 그 왜놈의 말뜻은, <새 발의 주인>이란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새 발>이란 우리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뭐라고?”

김 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럭 소리를 질렀읍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솟는 듯했읍니다.

“조선은 우리가 마련한 새 밭이다. 그러니, 그 밭을 마련한 우리가 밭 가운데서 귀찮게 구는 돌맹이 같은 네놈들을 가만 둘 것 같으냐? 귀찮은 돌맹이들은 하루 빨리, 그리고 모조리 추려 없앨 작정이다!” 김 구는 속이 타는 듯했읍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읍니다.

“이 도둑놈들아!”

김 구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신문하는 왜놈의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읍니다.

김 구는 17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구는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엄청난 형을 받게 되니, 그 절망감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와서는,

“나는 네가 이렇게 옥살이를 하는 것이 큰 벼슬 자리에 오른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구나.”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 구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밝고 자유로운 세상에 나가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굳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12년, 그가 서른 여섯 살 되던 해입니다. 일본 천황 메이지(明治)의 죽음으로 대사면(大赦免)의 특사령이 내려져서 김 구는 10년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던 터이므로, 5년만 더 감옥에서 견디면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메이지의 부인인 메이지 황후가 죽어 특사령이 내려 다시 감형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의 형기(刑期)가 남았을 뿐입니다.



큰 뜻을 품고 상하이로

뜻하지 않았던 특사로 감형이 되자, 김 구는 희망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이름과 호를 다시 고쳤습니다. 김 구(金龜)라는 이름을 김 구(金九)라고 고쳤습니다. 앞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왜놈의 국적에 올라 있는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호도 백범(白凡)이라고 고쳤습니다. 호에 쓴 백(白)자는 백정(白丁)이라는 데서 딴 것이고, 범(凡)자는 범인(凡人)이라는 말에서 딴 것이었습니다. 김 구가 자기 호를 백범이라고 지은 것은,

‘백정처럼 천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글을 배워 애국심을 가질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김 구는 감옥 안에서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고 할 때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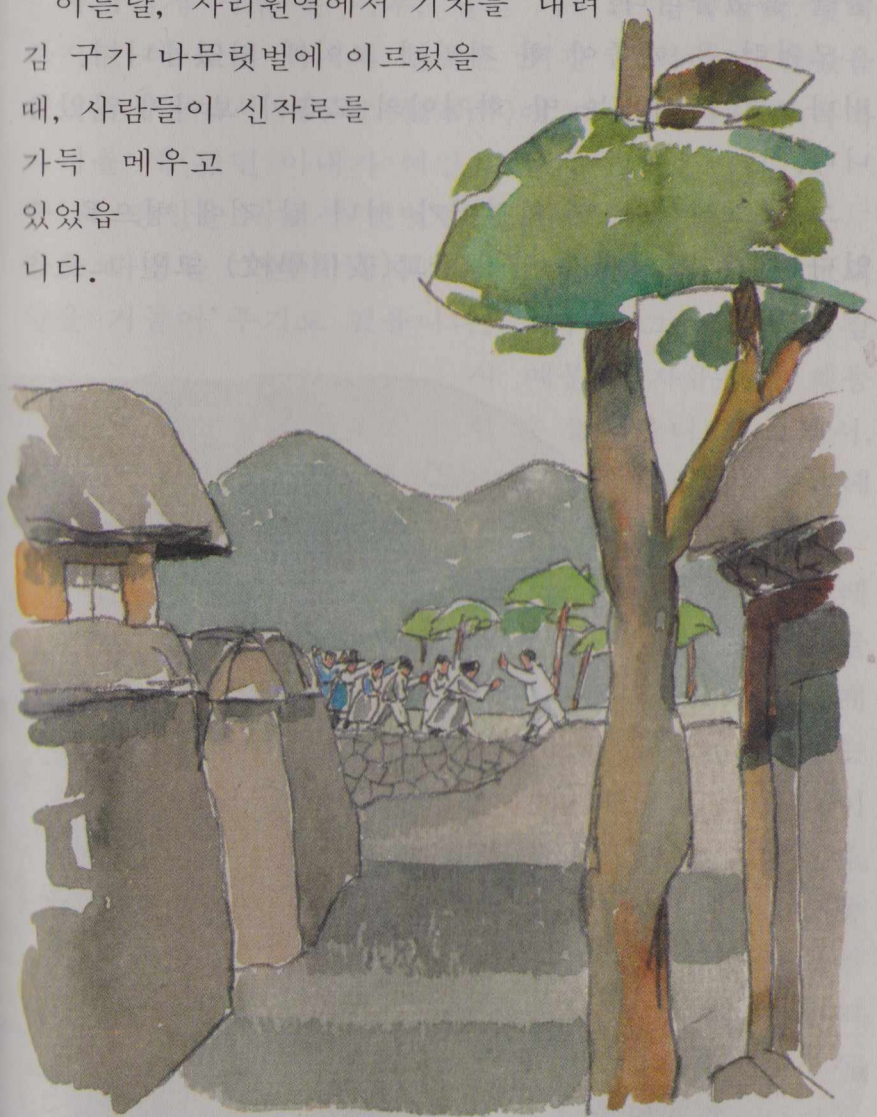
“이 마당이 우리 나라 정부 청사의 마당이고, 이 유리창이 우리 나라 정부 청사의 유리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1914년 7월, 그 날은 몹시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날 김 구는 가석방이 되어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옥문을 나선 그는 우선 안악에 있는 집으로 자기가
석방되어 간다는 내용의 전보를 썼읍니다. 그리고, 서
울로 가서 경의선 열차에 몸을 실었읍니다.

이튿날, 사리원역에서 기차를 내려
김 구가 나무릿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신작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읍
니다.



김 구의 출옥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맨 앞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다가서는 아들 김 구를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딸 화경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딸 화경이가 서너 달 전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과, 아내가 안신 학교(安信學校) 교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도 대충 듣게 되었습니다.

김 구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시집 온 이후, 줄곧 자기의 감옥살이 뒷바라지만 해 왔던 아내의 얼굴은 여간 수척하지 않았읍니다. 서울에서 제본소(製本所)에 다니며 자신의 옥바라지를 해 왔던 아내가 여간 고맙지 않았읍니다.

‘꼭 당신을 위해서 떳떳한 남편이 되겠소.’

라고 다짐한 그는 아내가 교원으로 있는 안신 학교의 일을 거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경의 감

시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농촌에 숨어 살기로 했습니다.

김 구가 이렇게 농촌에서 무식한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 주는 동안에, 3년이란 세월이 흘러 1919년이 되었습니다. 이 때가 바로 3·1운동이 일어나던 해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온 민족은 3·1 독립 운동을 일으켰읍니다.



김 구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더 이상 농촌에서 지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목상으로 변장하고는 몰래 경의선을 타고 압록강을 건넌습니다.

그 뒤에는 좁쌀 장수로 변장하고 안동현(安東縣)으로 갔는데, 그 곳에는 김 구처럼 큰 뜻을 품은 동지들이 변장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어물 장수, 떡 장수로 변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구가 그 곳에서 동지 15명과 함께 영국 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한 것은, 이미 임시 정부가 수립된 지 이틀 후인 4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 정부의 내각은 당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 승만, 이 동휘, 이 동녕, 안 창호, 이 시영, 김 규식, 노 백린, 문 창범 같은 애국 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 구는, 황해도 장연 사람으로서 고향에서 교육 사업을 할 때 자기를 따랐던 김 보연이라는 사람이 상하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 보연은 김 구가 상하이로 온 것을 몹시 기뻐하며, 같은 뜻을 지닌 이 동녕, 이 광수, 김 홍서, 서병호 등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그들을 만나 꿈을 키워 나갔던 김 구는 어느 날, 임시 정부의 내무총장인 안 창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 총장, 저를 임시 정부의 문지기로 써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지기라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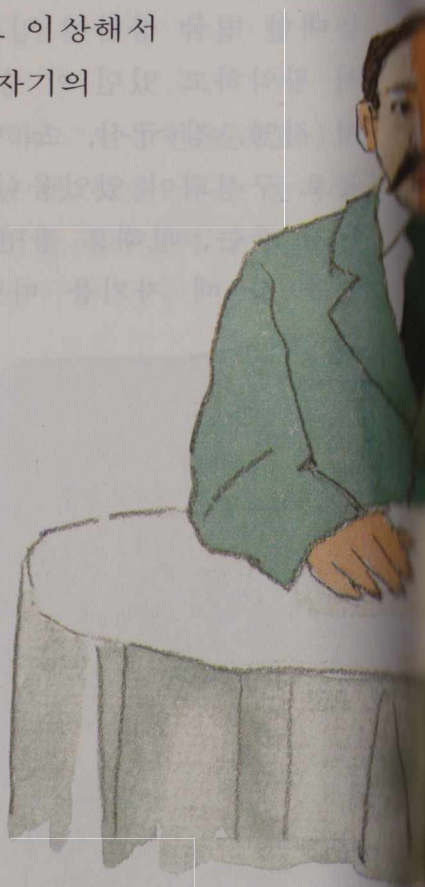
안 창호는 김 구의 청이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김 구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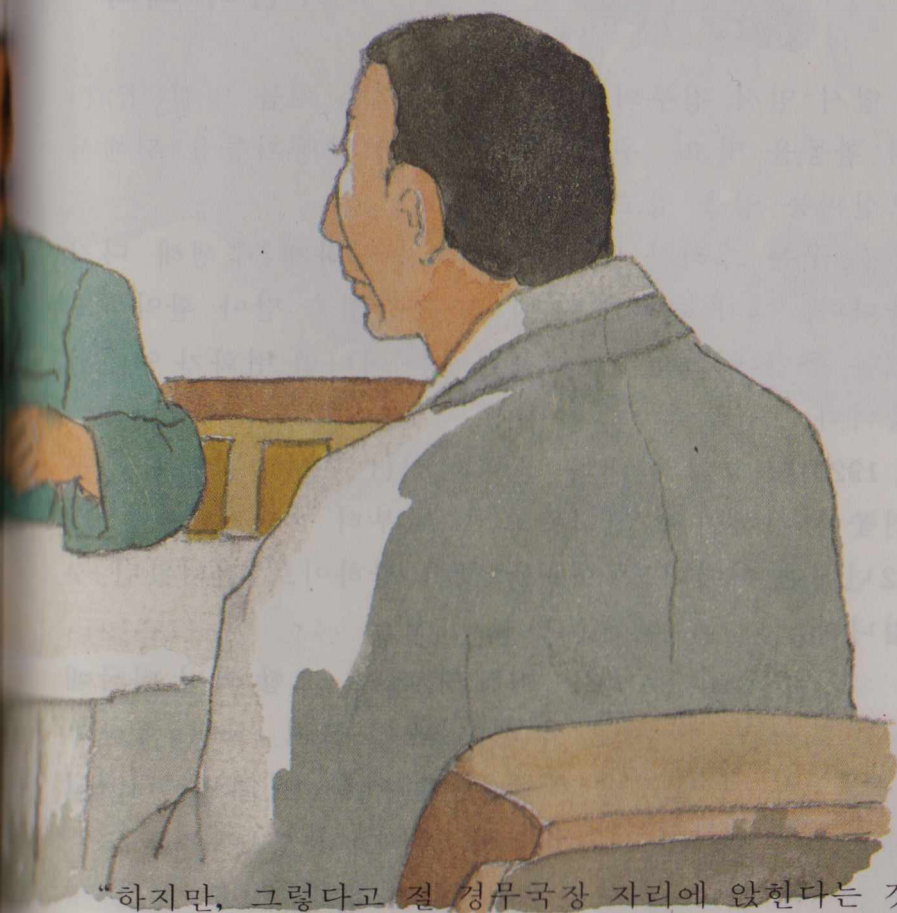
“정말 그것은 내 소원이
오. 감옥에 갇혀서 그
곳 마당을 쓸고 유리창
을 닦고 할 때마다, 나는
하느님께 빌었었소. 제발
우리 나라의 정부가 서
서 그 정부 청사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해
달라고 말ियो.”

이러한 김 구의 청을 듣
고 난 안 창호는, 그 사항
을 국무 회의에 올려 그를
경무국장(警務局長)에 임
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날더러 경무국장 직을 맡으라니, 그건 안 될
말ियो.”

“신 익희나 윤 현진 같은 젊은 후배들이 중책을 맡
고 드나드는 곳의 문지기를 당신에게 맡긴다면, 그들
이 그 문을 드나들기가 거북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렇다고 절 경무국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백범, 자꾸만 그렇게 경무국장 자릴 사양한다면 나도 앞으로 백범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소.”

김 구는 안 창호의 이런 강경한 말에 더이상 그 자리를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되다

당시 임시 정부의 경무국장은 주로 왜놈 밀정(密偵)의 활동을 막고, 우리 나라의 독립 운동가들을 뒤에서 보살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 구는 그러한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임시 정부의 일을 맡아 활약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가정 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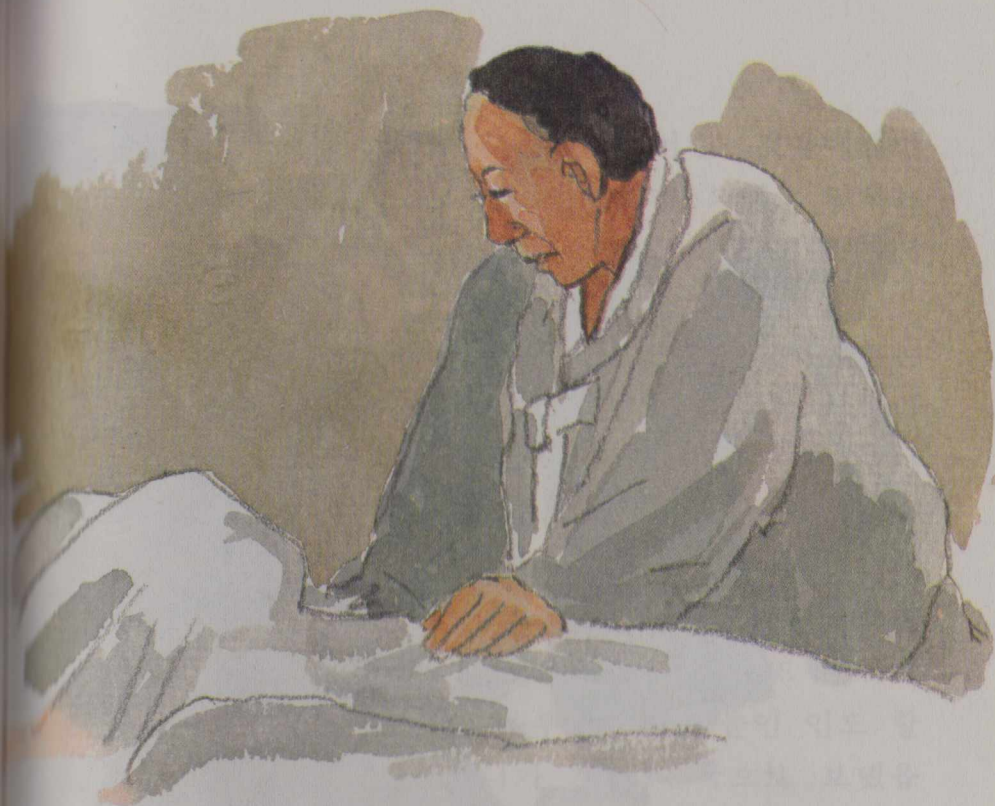
1920년, 그의 아내가 맏아들 인(仁)을 데리고 남편을 뒤쫓아 상하이로 건너왔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22년에는 어머니도 아들을 찾아 상하이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김 구



이렇게 되어, 고향 아닌 타국에서 한 가족이 모여 살게 된 그 해에, 둘째 아들 신(信)이 태어났습니다.

1923년, 마흔 일곱 살이 된 김 구는 임시 정부의 경무국장에서 내무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하이에서 <백범 김 구>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경찰들에게는 호랑이처럼, 또 폭탄처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을 낳은 뒤 늘 몸이 좋지 않던 부인이 자리에 몸져 누고 말았습니다.

김 구는 서둘러서 자기 아내를 홍코우 폐병원(虹口肺病院)에 입원시켰으나, 이미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1924년 1월 1일, 김 구는 줄곧 자기를 위해 고생만 해 왔던 어진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오직 독립 운동하는 자기 뒷바라지만을 해 왔던 불쌍한 아내가 죽자, 김 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된 인과 젓먹이 신을 바라보는 김 구의 가슴은 칼로 도려 내는 듯 아팠습니다. 더구나, 할머니의 빈젓을 빨며 우유로 자라는 신을 볼 때는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신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건너가 살아야겠다.”

김 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네가 이 어린 것들에게만 정신을 쏟게 되어, 일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다.”

일이란 독립 운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구는 어머니의 그러한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어린 신을 그 해에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또 어머니의 분부대로 만아들인 인도 할머니가 계신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상하이에서 모여 살던 단란하던 그 때를 생각하며, 김 구는 외로운 상하이의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김 구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기어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야 말 테다.”

김 구는 오로지 임시 정부와,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임시 정부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임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국무령(임시 정부의 최고 지도자)이 그 자리에 선출되면 오래지 않아 자리를 내놓곤 했습니다.

즉, 초대 이 상룡(李相龍), 제 2대 양 기탁(梁起鐸), 제 3대 홍 진(洪震) 등의 국무령이 불과 몇 달 동안에 차례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3대 국무령 홍 진이 국무령 직을 내놓게 되자, 그 국무령 자리에 앉아 임시 정부를 이끌어 갈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애국 지사들이 김 구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의 대표격인 이 동녕이 “이젠 백범이 국무령 직을 맡아 임시 정부를 이끌어 가 주어야겠소!”

이렇게 김 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구는 깜짝 놀라며 사양했습니다.

“안 될 말씀입니다.”

“어째서요?”

“첫째, 저는 황해도 해주 근처의 빈한한 농촌에서 자란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아무리 명색 뿐인 임시 정부라 하지만, 어떻게 한 나라의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위신에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여러 훌륭한 국무령들도 재정과 인물난으로 임시 정부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사퇴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도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참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백범이니까 당신을 도와 일할 사람도 생길 것이며, 또 백범이니까 오랫동안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오”

그리하여 1927년 1월, 김 구는 마침내 임시 정부의 수반인 국무령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 봉창과 윤 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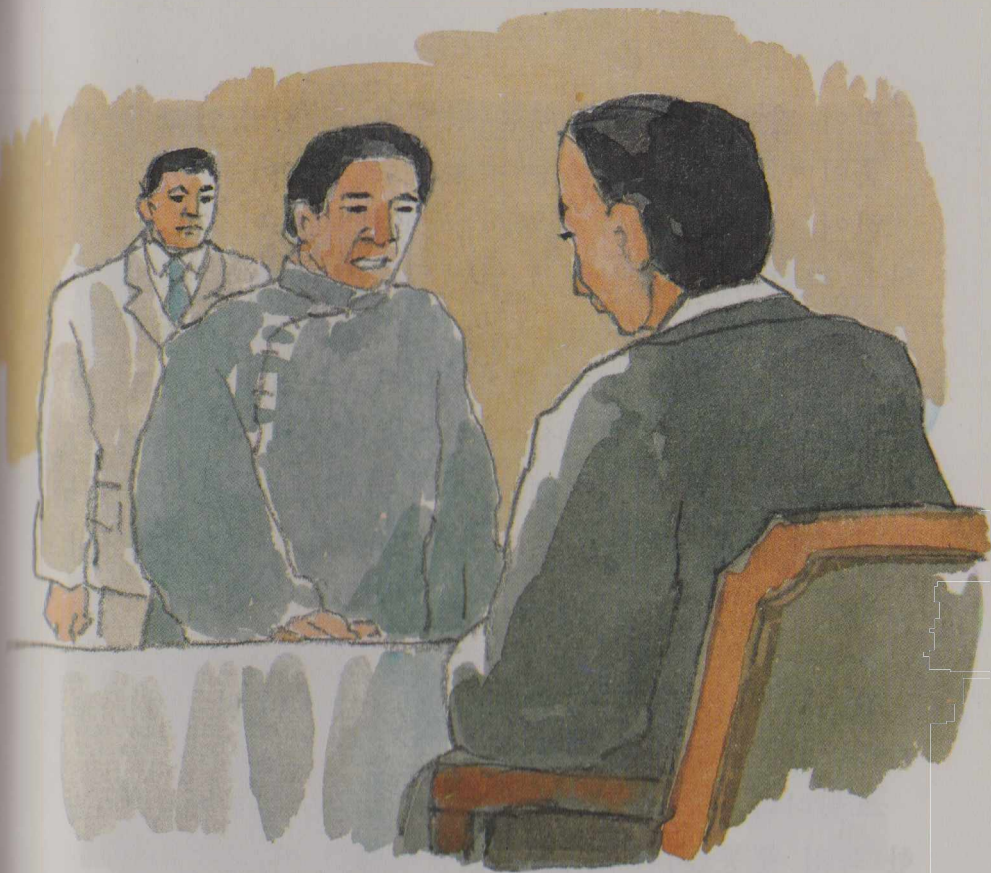
국무령에 취임한 김 구는, 일을 더 활발하게 많이 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서, 국무령 한 사람만이 책임져야 하는 국무령 제도를 없애고, 내각 모두가 맡은 바 책임대로 수행하도록 국무 위원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수반도 주석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주석>은 국무 위원의 대표라는 뜻일 뿐이며,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권리와 책임은 모든 국무 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하이는 매우 쓸쓸했습니다. 3·1 운동 직후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 망명해 온 애국 지사들로 들끓던 상하이였습니다. 그러나, 김 구가 임시 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그 당시에는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독립 운동가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참사의 임시 정부 요인 중·일 전쟁이 한창일 때, 임시 정부는 떠돌아다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 구.



“어째서 이 상하이 땅에서 우리 애국자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한 국무 위원이 김 구 주석에게 묻자, 그는 침통한 얼굴로,

“첫째로 임시 정부의 군무차장 김 회선, 《독립 신문》 사장 이 광수, 의정원 부의장 정 인 같은 작자들이 친일파로 변하여 본국으로 돌아갔고, 둘째로는 본국의 도, 군, 면까지 그 조직의 뿌리를 내렸던 독립 운동가의 조직인 <연통제(聯通制)>가 왜놈들에게 발각

되어 많은 동지들이 왜놈 경찰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이며, 세째로는 모두 생활고로 밥벌이를 하기 위하여 이 곳을 떠나 뿔뿔이 헤어진 때문이오.”

하고 그 까닭을 소상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

“더한층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 때, 어디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말이지요. 돈이 원수요.”

“본국과 만주와는 이제 연락이 끊겼으니,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에게 연락해서 자금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김 구는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카고와 하와이에서 그 곳 동포들이 모금한 독립 운동 자금이 많이 왔습니다.

김 구의 기쁨은 여간 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자금을 품에 안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임시 정부에서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을 해 보자.’

김 구는 자금을 보내 준 교포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럴 듯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의 교포 한 사람이 사무실로 김 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소? 동포.....”

“전 이 봉창(李奉昌)이란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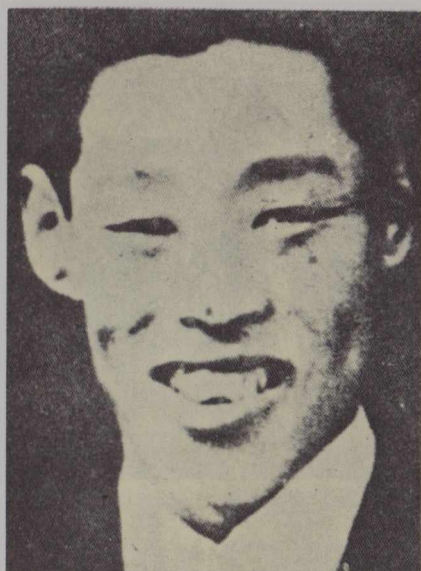


“.....?”

“제 나이 서른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상하이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도중 간간이 일본말을 함께 섞어 하는 그 사나이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내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봉창

“저 같은 노동자도 독립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야 물론이죠. 노동자든지 부자든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립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김 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 날은 그를 여관에 안내해 일찍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 구는 그가 묵고 있는 여관

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석께서 웬일이십니까?”

“지나가다 한번 들렀소.”

“그렇잖아도 전 주석님을 조용히 모시고 말씀 올릴 기회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해 보시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서요.”

“.....?”

“제가 상하이로 건너온 목적도 그 때문입니다.”

“고맙소, 젊은이! 당신 같은 열렬한 애국자를 만난 기쁨 여간 크지 않소. 나하고 손잡고 일해 봅시다.”

김 구는 이 봉창이라는 사나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

를 나누는 동안 그의 진심을 꿰뚫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음을 격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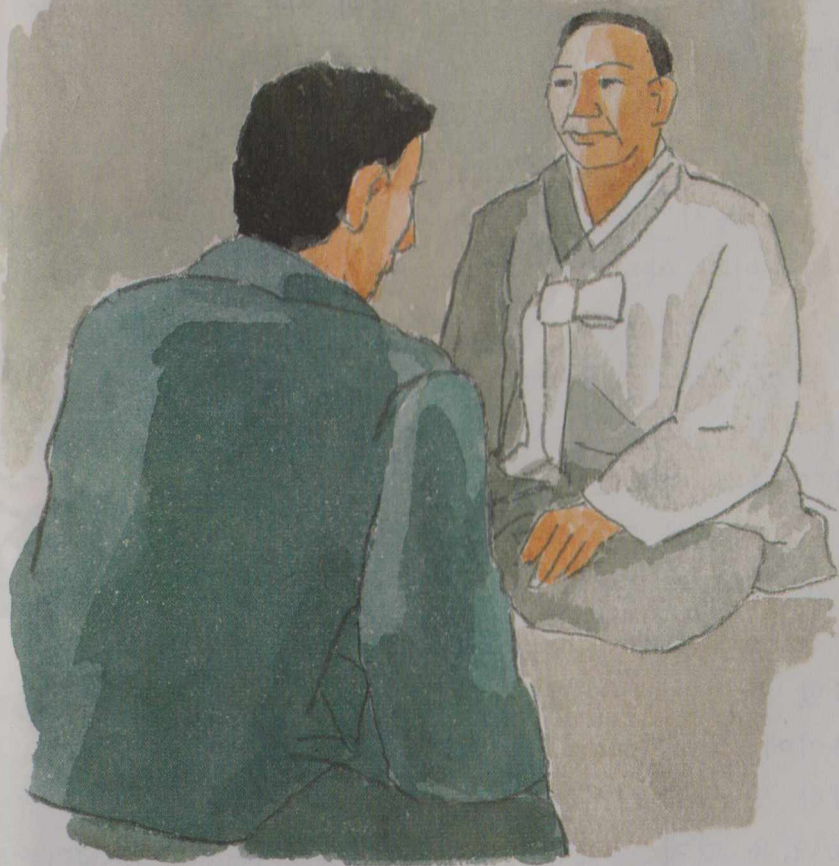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터이니 무슨 일이든 제게 맡길 것이 있으면 맡겨 주십시오.”

“.....”

“일본 천황의 목이라도 베어 오겠습니다.”

“천황의 목을?”

“그렇습니다.”



“내 1년 안으로 이 동지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 주겠소. 그런데, 문제는…….”

“절 믿지 못하시겠단 말씀입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임시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 동지의 생활비를 댈 수가 없어서 그것이 미안할 뿐이오.”

“그런 걱정은 조금도 마십시오. 저는 일본어에 익숙하니깐 어디든지 가서 밥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이 봉창은 일본인이 많이 사는 홍콩으로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구 주석과는 한 달에 한두 차례 몰래 만났습니다.

“백범, 그 이 봉창이란 청년 혹시 일본놈의 꼬나불이나 아닌지 모르겠소.”

김 구가 이 봉창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본 동지들이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 청년의 일이라면 내게 맡겨 주시오.”

김 구는 그저 이렇게 대답할 뿐, 이 봉창과 자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일에 관해서는 조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931년 12월 11일, 김 구는 이 봉창을 불러,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소.”

하며,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봉창은 임시 정부 주석 김 구 앞에서 선서식을 한 다음, 김 구가 몰래 마련한 두 개의 폭탄을 받았읍니다. 하나는 일본 천황에게 던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봉창이 자결할 폭탄이었읍니다.



“선생님, 어째 그런 얼굴로 절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이 봉창은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구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사라지지 않았읍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목숨을 바치러 가는 이 봉창을 명랑한 얼굴로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동지, 성공을 빌겠소!”

김 구는 이를 악물며 작별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후, 일본에 도착한 이 봉창은 상하이의 김 구 주석에게 전보로 자기의 행동을 알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봉창은

「송금해 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온 돈은 헤프게 써서 지금 여관비와 밥값이 밀렸던 판인데, 200원을 더 보내 주시니 모든 빚을 갚고도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탁하신 물건은 1월 8일에 어김없이 처분하겠습니다.

이 봉창 올림.」

이런 전보를 보냈읍니다. 그 전보는, 1월 8일에는 틀림없이 가지고 온 폭탄으로 일본 천황을 암살하겠다는 내용이 숨겨진 전보였읍니다.

드디어, 1932년 1월 8일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일본의 서울 토오쿄오(東京)에서, 새로 생긴 만주국의 황제인 부의(溥儀)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계가 여간 삼엄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 봉창은 그런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일본 천황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길목인 사쿠라다 문으로 접근해 갔읍니다.

바로 그 때였읍니다. 천황을 태운 마차가 나타났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요란한 폭음이 났읍니다. 동시에 천황의 마차가 기우뚱했읍니다.





한편, 상하이의 김 구는 임시 정부의 사무실에서 분
함을 억지로 누르며,

「조선 청년 이 봉창이 던진 수류탄은 앞에 있던 군
위병과 말만 부상시켰을 뿐, 일본 천황은 무사했다.
그러나, 수류탄을 던진 조선 청년 이 봉창은 피신도
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른
다음 태연하게 포박되었다. 취조 결과, 그 청년의 신
원은 애국 단원임이 밝혀졌다.」

이런 신문 기사만 계속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
읍니다.

“일본 천황을 죽이지 못하다니, 억울한 일이다!”
김 구는 읽던 신문을 내동댕이치며 몹시 억울해하였
읍니다.

“김 주석, 비록 일본 천황을 죽이지는 못했다 하더
라도 성공은 성공이오. 그 사건이 온 세계에 퍼져 나
간다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기 위해 얼마나 피눈
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일깨워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고 동지들이 위로를 하면서,

“김 주석, 신변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
던 어느 날이었습니
다. 한 사나이가 김
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홍코우 시장
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윤 봉길이란
사람입니다. 제가
상하이에 와서 이
처럼 고생을 하는
것도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
다. 저는 오래 전



부터 독립 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세운 사람입니다.”

“윤 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소.”

김 구는 윤 봉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동지들로부터 〈윤 봉길이야말로 진정한 항일 투사〉라는 칭찬을 들은 기억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요전에 이 봉창이 한 일을 이번에는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 동지를 만나니 마음이 든든하오. 실은 나도 윤 동지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던 중이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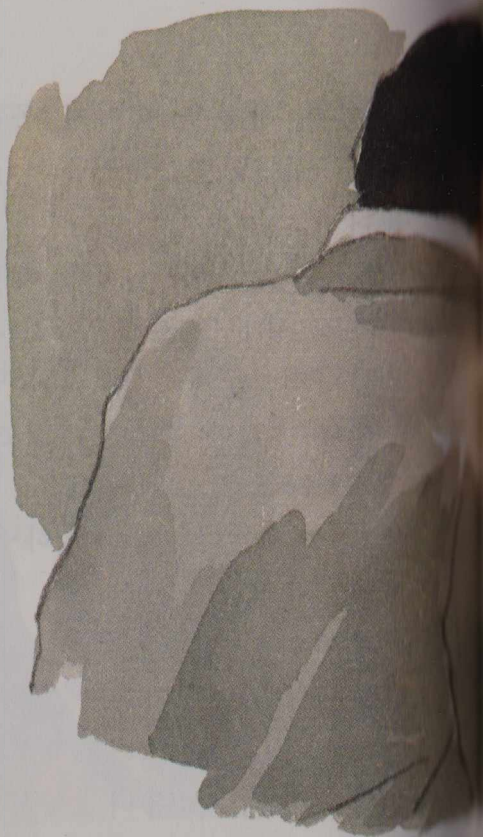
“정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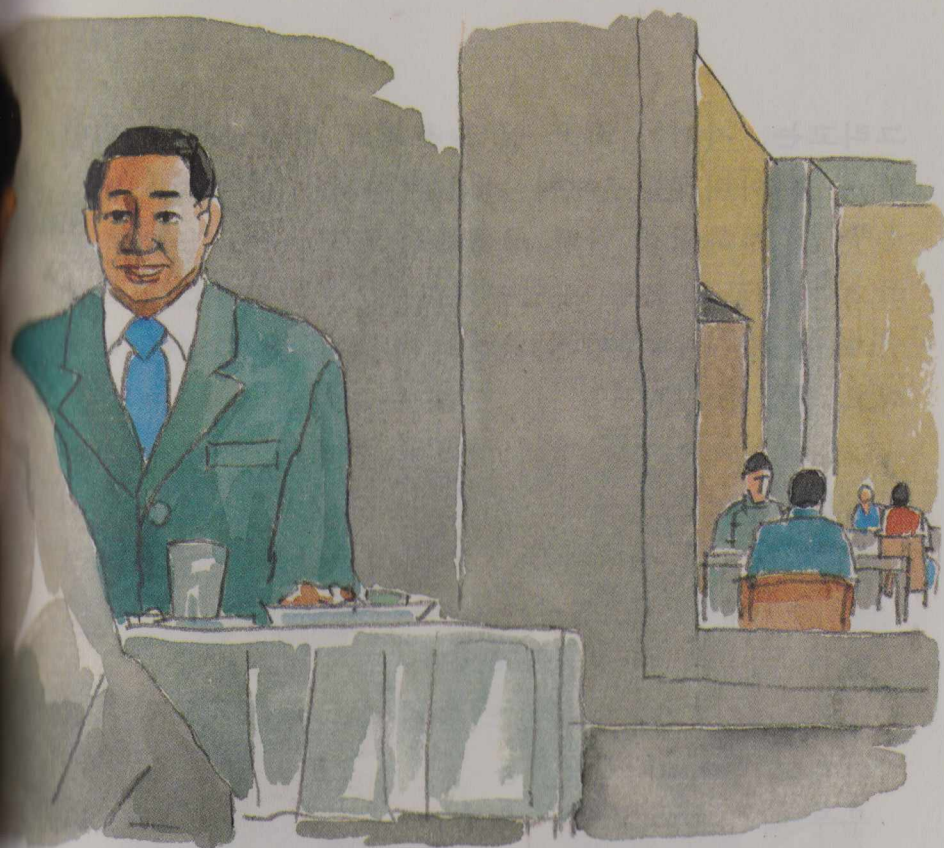
“오는 4월 29일은 일본 천황의 탄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이 아니오?”

“그런데요?”

“그 날 홍코우 공원에서는 천장절 경축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것이오. 그러니 그 때, 그 왜놈들의 콧대를 바싹 꺾어 버렸으면 하는 거요.”

“그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김 구는 그 날 윤 봉길이 사용할 폭탄을 직접, 상하
이 병공창장(兵工廠長)인 송 식마(宋式鵬)라는 사람에
게서 받아왔습니다.

4 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윤 봉길은 김 구가 마련해 준 돈으로 깨끗한 신사복
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김 구가 초청한 교포 김 해
산(金海山)이란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윤 봉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밥을 차려 주기 위해서, 김 구는
그 집에 부탁하여 특별 식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윤 봉길은 태연한 모습으로 양껏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와 주머니에 남아 있던 돈을 꺼내 김 구에게 건네 주면서,

“뒷날 지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자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날, 홍콩 공원에는 완전히 별집을 쭉서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 시경에 상하이 거리에 퍼지기 시작한 신문 호외는,

「오늘 홍콩 공원에서 열렸던 일본인들의 천장절 경축 식전에서, 한 조선 청년이 폭탄을 던져 일인 거류민 단장 카와바타가 즉사하고, 시라카와 대장, 시게미즈 공사, 그리고 노무라 중장 등 문무 백관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라는 기사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김 구는 자기 몸에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 관헌들은 눈이 빨개져서 김 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구는 몇 명의 동지와 함께 미국인 피치 목사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현상금이 걸린 김 구의 목

김 구는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애매한 교포들이 일본 관헌에게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목사 부인은 친절하게 김 구 일행의 식사 시중까지 들어 주었습니다.

“엄 동지, 성명서를 기초하시오. 지난번 토오쿄오 사건이나 이번 홍콩 공원 사건이 모두 한인 애국단을 지휘하는 김 구, 나 혼자서 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김 구는 같이 숨어 지내는 엄 항섭 동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신변이 위태로운 때에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하며 같이 있던 동지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수많은 애국 지사와 교포들이 수난을 겪는 게 가슴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 김 구의 목에는 2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구를 붙잡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었음인지, 그 현상금이 며칠 뒤에는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20만 원, 조선 총독부에서 20만 원, 상하이 주둔군 사령부에서 20만 원씩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도 김 구의 그림자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산 지 20여 일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피치 목사 부인이 김 구 등 우리 애국 지사들이 숨어 있는 2층으로 급히 올라오더니,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
겠어요.”

하고 겁먹은 목소리
로 말했습니다. 일본
밀정들이 피치 목사
집을 빙 둘러싸고 있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치를 챘
을까요?”

“여러분이 쓴 전
화로 실마리를 잡
은 모양이에요.”

사실 김 구 등 애국
지사들은 그 곳 피
치 목사 집에 숨어
지내는 동안, 모든
연락과 일을 전화로
만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니 들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
루도 더 그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서양 사람으
로 변장하고, 그 곳에서 빠져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구는 서양 사람으로 변장하고, 마치 부부인 양 피
치 부인과 나란히 그의 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리고, 피치 목사는 그 차의 운전자처럼 차를 몰고 밖으

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탈출이었습니니다.

이튿날, 김 구는 가흥(嘉興)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곳에는 애국 지사 박 찬익(朴贊翊)이 자기와 잘 아는 중국인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피신처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숨어 살던 어느 날, 김 구는 중국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구경하다가 어떤 군관의 눈에 수상하게 보여,

“당신은 어디 사람이오?”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 꺡똥 사람이오.”

“꺡똥이라고?”





그 군관은 다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안대 본부로 김 구를 끌고갔습니다. 그를 수상하게 여긴 그 중국인 군관이 바로 팽뚱 사람이어서, 김 구의 거짓말이 모두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김 구의 보호자인 중국인 저씨와 주씨 두 사람 덕분에, 김 구는 별다른 일 없이 보안대에서 풀려났습니다.

“선생님, 안전하시려면 결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과부 여선생이 한 분 있는데, 아주 착하고 교양도 있습니다.”

그를 보안대에서 빼내 온 저씨가 이렇게 건의해 왔읍니다. 그러자, 김 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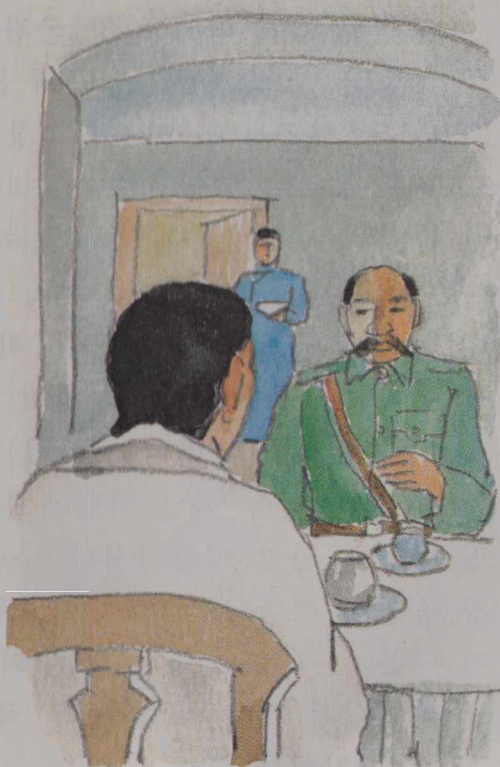
“그런 유식한 여자와 살게 되면 오히려 빨리 내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차라리 요전에 배에 태워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 준 주 애보라는 여자 뱃사공이 내게는 더 어울릴 것 같소.”

김 구는 그 뒤, 약 5년 동안이나 주 애보와 함께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읍니다.

이렇게 몸을 피하며 지내면서도, 김 구는 항상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신념을 버리지 않았읍니다.

1933년, 쉰 일곱이 되던 해의 어느 날, 김 구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사 위원장인 장 제스의 초청을 받았읍니다.

김 구는 장 제스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허난 성(河南省) 뤼양(洛陽) 군관 학교 본교에 한국 청년들을 입교할 수 있게 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중국 국민 정부의 군관 학교처럼 꾸며 놓고, 그 속에서는 한국 독립군의 지도 세력이 될 생도들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 곳에서 가르친 학과는 주로 민족 정신과(民族精神科), 내무과(內務科), 전술과(戰術科)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개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다는 일본 경찰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뤼양 군관 학교는 1기생 94명의 훈련을 끝내고, 만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1934년, 김 구는 난징에서 고물 장수로 변장하고 그 날 그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국의 어머니께서 두 손자를 데리고 상하이로 거쳐 가흥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들으니 네가 군관 학교를 차리고 청년들을 교육시켰다고 하던데,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9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이런 말부터 꺼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만난 아들에게 하시는 첫마디가 독립 운동에 관한 말씀이시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나!’

김 구는 가슴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 극진하게 잘 모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운 고국으로

김 구가 어머니를 난징에서 모시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네들이 내 생일 잔치를 차려 주겠다니 여간 고맙지 않네. 그런데, 이왕이면 그걸 그냥 돈으로 줄 수는 없겠나?”

김 구의 어머니는 청년단 동지들이 자기 생일 잔치를 차리기 위해 돈을 걷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청년단원 하나를 불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게요?”

“돈을 내가 갖고 써야 내 입에 맞는 음식들을 장만할 것이 아닌가?”





청년 단원들은 그 말이 옳을 것 같아서 돈을 모두 김 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생일날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는데도 음식상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얼마 후, 김 구 어머니는 음식상 대신에 총 두 자루를 여러 청년 단원과 손님들 앞에 내놓았읍니다.

“나는 여러분의 뜻만으로도 훌륭한 생일을 보내게 되었소. 그러니, 이 총 두 자루를 독립 운동에 쓰도록 하시오.”

김 구 어머니는 자기 생일에 음식을 차릴 돈으로 총 두 자루를 장만했던 것입니다.



아들 김 구는 물론, 그 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감격해서 입을 벌린 채 다 묻지 못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구교 사건은, 빼이징 교외의 노구교라는 다리 근처에서 야간 훈련 중인 일본군에게 중국군이 총질을 했다는 구실로, 중·일 전쟁의 실마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일 전쟁은, 날이 갈수록

중국군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김 구도 다른 동지들과 함께 중국군이 밀리는 대로 창사로 피난했습니다.

“우리도 단결합시다. 이렇게 서로 흩어져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김 구는 <한국 국민당> 대표로 <조선 혁명당>과 <한국 독립당>의 3당을 통합하자고 역설하고, 1938년 5월 7일 밤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구가 그 세 단체를 한 단체로 만들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 의견에 반대하는 <조선 혁명당>의 한 불평분자가 그 회의장에 나타나 마구 총을 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구도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다쳤습니다.

김 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조국을 떠나 독립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각기 단체를 만들어 욱하고 혈뜬으니, 그것은 곧 ‘비렁뱅이끼리 자루 찢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단체를 한 데 통합시켜 일본과 맞설 수 있는 단체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김 구는 충격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고 계속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보살핌 때문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1940년, 언제나 김 구를 뒤에서 보살피 주시던 어머니가 여든 한 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쁜 기후와 토질에서 얻은 병 때문이었습니다.

“독립 되는 걸 못 보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김 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왔고 땅이 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슬픔 속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커져 반드시 세계 대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김 구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도 군대를 연합군의 일
원으로 가담시켜야 합니다.”

라고, 동지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대
비하기 위해 광복군을 조직했습니다. 이 광복군은 미
국, 하와이, 멕시코 등지의 교포들이 보내온 4만 원



을 기금으로 튀양 군관 학교를 비롯한 여러 군관 학교를 나온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김 구는 광복군의 훈련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미육군 전략처(OSS)와 손을 잡고 비밀 특수 공작 훈련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인 장교들은 한결같이,

“한국 광복군은 정말 용기 있고 훌륭한 군인입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김 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 광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보는 것 같아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김 구는 산똥 해안에서 미국 잠수함 편으로 광복군을 본토에 상륙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성과 군은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광복군이 본토에 상륙하여 왜놈들을 무찌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인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36년 동안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김 구는 예순 아홉의 나이로, 고국을 떠난 지 만 26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끝낸 그는 1945년 11월 23일, 15명의 임시 정부 요인들과 수행원을 데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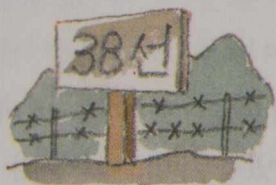
김 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 정부 요인들이 깊은 감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가

“야, 우리 나라가 보인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눈길을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조국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8선을 없애자

김 구 주석이 귀국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임시 정부는 왜놈들에게서 되찾은 나라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 외상(外相) 회의에서는 한국 문제를 남한과 북한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의 두 나라 사령관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시 정부의 요인
및 국무 위원들은 우리
나라를 우리 손
으로 세울 수 없게
한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
대하는 운동을 벌였
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앞
잡이인 공산주의자
들은 그러한 모스크
바 회의 내용을 지



남북 협상 개최를 위하여 38선을 넘는
김 구

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사회는 어
지러워지기만 했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미·소 공동 위원회를 즉시 중지하라!”

“우리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자주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대헌을 건설하려
고 하였지만, 북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국가를 세
우려고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 발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 구는 평양을 방문해서 그들을 설득시켜,
동강나지 않은 삼천리 강토에서 평화스럽게 살게 하려

고 생각했습니다. 1948년 4월 15일, 김 구는 경교장(김 구 선생의 저택) 출입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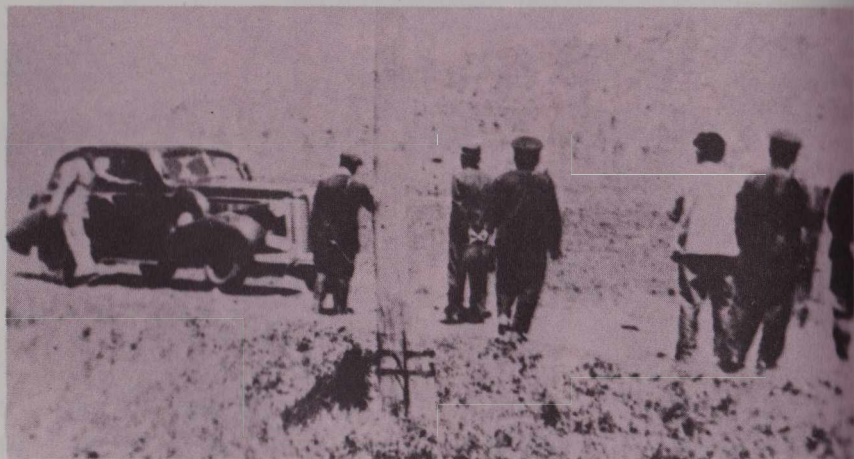
“나는 이북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겠소. 조상이 같고 피부가 같고 언어가 같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만나서, 같은 민족 정신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오. 만약에 내가 이번 이북에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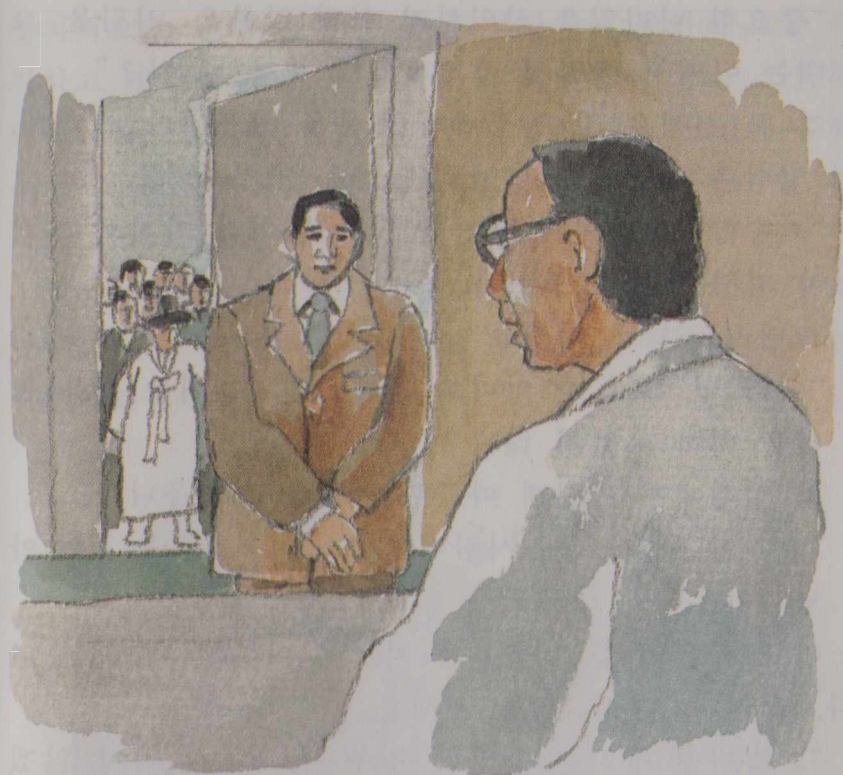
김 구 선생은 4월 19일 평양을 향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북에 가시면 놈들에게 잡히시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경교장으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김 구 선생의 앞을 막아서며 발을 굴렀습니다.

38선을 넘는 김 구 일행을 막는 북괴 경비병들





“여러분, 38선이 이대로 굳어지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되든 안 되든 한번 가서 38선을 없애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구 선생은 자기 앞을 막아서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구 선생은 경교장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부득이 일행과 함께 몰래 도망치듯이 경교장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 길로 평양에 간 김 구 선생은 김 일성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중요한 나라일을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그대는 어째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접하는가?”

김 구 선생은 김 일성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김 일성은 유들유들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불민한 탓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되시게 했나 봅니다.”

그러자, 김 구 선생은

“여러 말 많고 한 마디로 묻겠는데, 그대는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나?”

김 일성에게 이렇게 따끔한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거야 우리 조선 사람이면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일성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김 구 선생은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대는 소련의 간섭을 거절하고 우리 민족만의 힘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세우는 데에 찬성한단 말이지?”

하고 날카롭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김 일성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구 선생은

‘김 일성이가 벌써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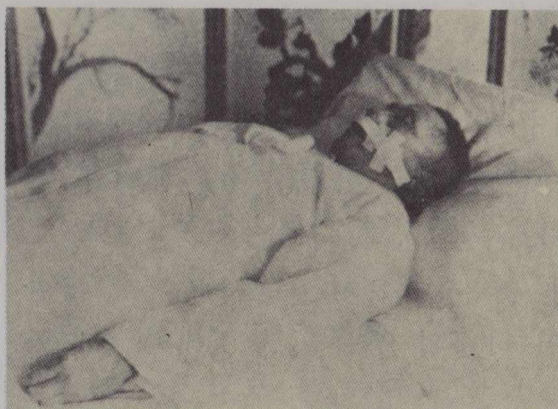
5월 4일, 남북 협상에 참석했던 김 구 선생 일행은 완전히 실의에 빠진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북 통일의 염원이 실패로 그치자, 김 구 선생과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공연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중상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범 김 구 선생은 경교장 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며 소일할 뿐, 정치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범 김 구 선생의 뜻은 오로지 38선이 터진 남북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하나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격당한 직후의 김 구

1949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날도 김 구 선생은 경교장 2층 서재에서 중국의 옛 시(詩)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포병 소위 안 두희 (安斗

熙)가 김 구 선생을 만나겠다고 경교장에 나타났습니다. 안 두희는 전에도 김 구 선생을 만나 이야기하다가곤 하던 사람이어서, 김 구 선생의 비서들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비서가 안 두희를 김 구 선생에게 안내했을 때, 김 구 선생은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안 두희가 김 구 선생 방으로 들어가 2, 3분 정도 지났을 때, 총소리가 났습니다. 포병 소위 안 두희는 김 구 선생을 권총으로 네 발이나 쏘았던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과 남북 통일을 위하여 평생을 몸바쳐 싸워 온 김 구 선생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일한 보람도 느껴 보지 못하고, 안 두희가 쏜 흉탄에 맞아 일흔세 살의 나이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김 구 선생은 흉탄에 쓰러져 갔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일해 온 업적은 우리 나라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광풍에 쓰러진 거목

김 문 수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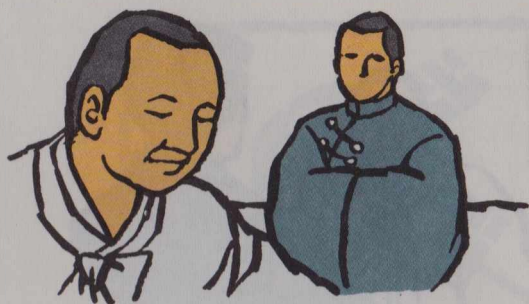
우리 민족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해 일본 체국주의와 싸운 독립 투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범 김 구 선생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겨레 누구나가 모두 떠받들고 있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 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의 소원은 조국 독립 하나밖에 없읍니다. 나는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 왔으며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또 미래에도 오직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글 한 귀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백범 김 구 선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김 구 선생은 독립 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유리창도 닫고 뜰도 쓸곤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나라가 독립된 뒤에 세워질 우리 정부 청사(廳舍)의 뜰도 쓸고 그 건물의 유리창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핏 생각하면, 겨우 그까짓 것을 비스냐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슴아픈 기도이며, 얼마나 피가 끓는 기도이며, 또한 얼마나 눈물이 흘러 나오게 하는 기도인지는, 나라를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 본 사람만이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정부 청사에 들어가 비로 마당도 쓸고 걸레로 유리창도 닦아 보고 싶은 그 진정한 애국자의 심정!

우리는 이 한 마디 그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그가 애타게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김 구 선생은 이역 만 리 상하이에 세운 우리나라의 임시 정부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그 곳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식까지 잃고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 뒤에는 엄청난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분단, 백범 김 구 선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민족의 비극이었기에, 그는 더욱 커다란 슬픔을 가슴에 지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 조각이 난 조국을 한데 뭉치고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북으로 떠났습니다. 붉은 무리 공산당들을 일깨우기 위한 협상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북 땅에는 붉은 마수의 손길이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 통일의 염원이 실패로 그치자, 김 구 선생은 경교장 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며 소일할 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49년 6월 26일 낮 12시 36분, 경교장에서 4발의 총성이 들려 왔습니다. 김 구 선생은 그렇게도 염원하던 조국 통일을 보지 못하고, 안 두희라는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독립당 본부에서 발표한 사건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포병 소위의 복장을 한 안 두희라는 34세의 청년이 김 구 선생께 면회를 청하였다. 청년은 선생에게 인사를 드린 후, 갑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발사하였다. 범인은 선생의 방에서 나와 군복을 벗고 복장의 표장을 떼며, ‘내가 쏘았다!’고 소리쳤다.……선생께서는 가장



평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애국자이신 까닭에 모든 겨레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시며,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면회를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이번의 흉변도 선생의 이러한 박애 정신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김 구 선생이 흉한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그 비통한 소식을 들은 온 겨레는, 성난 파도와 같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겨레의 슬픔 속에서, 김 구 선생의 유해는 효창 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떠돌아 70년을 비바람 새롭더니
돌아와 마지막에 광풍으로 지시다니
열매를 맺으려고 지는 꽃 어이리까
뿔으신 피의 값이 헛되지 않으리다.
헛되지 않으리다 !

백범 김 구 선생을 기리는 이 노래가 지금도 온 강산에 메아리치는 듯합니다. 1962년 3월 1일,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중장이 선생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연 표

연대	나이	김 구의 생애와 업적	
1876		음력 7월 11일, 황해도 백운방 기동(텃골)에서 출생.	
1879	3	천연두(마마)를 앓아 곰보가 됨.	
1884	8	한글과 《천자문》을 배움.	
1887	11	사당을 고쳐 서당으로 차리고, 이 생원을 초빙하여 글을 배움.	
1890	14	정 문재의 서당에서 당시와 《대학》을 배움.	
1892	16	우리 나라의 마지막 경과에 응시하러 갔으나, 과거 제도의 부패에 크게 실망하여 포기함.	
1896	20	대동강 부근의 치하포에서 일본 육군 중위를 죽이고 인천 감영에 수감됨.	
1899	23	인천 감영 탈출.	
1901	25	아버지 사망.	
1903	27	기독교도가 되어 장연읍으로 이사.	
1904	28	최 준례 여인과 결혼.	
1905	29	예수교 청년회의 진남포 대표로 서울 전국 대회에 참석. 을사 보호 조약 철회 상소를 결의.	

연대	나이	김 구의 생애와 업적	
1909	33	이토오 히로부미 암살 사건에 관련, 해주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곧 석방됨.	
1910	34	신민회 비밀 회의 서울 대회에 황해도 대표로 참석.	
1911	35	안 명근 사건에 관련되어, 징역 17년을 언도받음.	
1914	38	감형으로 출옥하여 망명을 꾀함.	
1917	41	맏아들 인(仁)이 출생.	
1919	43	중국 상하이 임시 정부의 경무국장이 됨.	
1922	46	둘째 아들 신(信)이 출생.	
1923	47	임시 정부의 내무 총장에 취임.	
1924	48	부인 사망.	
1927	51	11월, 임시 정부의 수반인 국무령이 됨.	
1931	55	이 봉창 의사를 시켜 일본 천황을 저격했으나 실패.	
1932	56	윤 봉길 의사를 시켜 상하이의 천장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지게 하여 성공.	
1933	57	장 제스와 회담, 중국 군관 학교에 입학 허가 합의.	
1935	59	한국 국민당 조직.	

연대	나이	김 구의 생애와 업적	
1938	62	조선 혁명당,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통합 회의 석상에서 저격당해 중상.	
1939	63	충칭으로 임시 정부 옮김.	
1940	64	광복군을 조직하여 총사령관에 지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임명.	
1941	65	12월 9일,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	
1944	68	임시 정부의 헌법을 개정, 국무위원을 개선하고 자신은 주석에 추대됨.	
1945	69	만아들 인이 사망. 조국이 해방되자 임시 정부의 국무위원과 함께 귀국.	
1948	72	주위 사람들의 극력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 협상차 평양에 감. 그러나, 김 일성의 무성의한 태도로, 분단 조국을 통일시켜 보려던 그의 뜻은 좌절됨.	
1949	73	6월 26일 낮 12시 36분,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의 저격을 받고 운명.	
1962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중장이 추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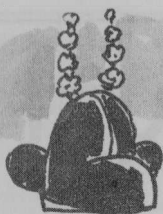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감 수/심 경석(아동문학가·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무순> 김 종상(아동문학가·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아동문학가·서울 광장국민학교 교사)
김 일환(아동문학가·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아동문학가·서울 신월국민학교 교사)

● 정 극인	162
● 정 도전	165
● 정 두원	169
● 정 몽주	171
● 정 선	177
● 정 약용	179
● 정 인보	184
● 정 인지	186
● 정 조	189
● 정 지상	191
● 정 철	193
● 제 너	199
● 제퍼슨	204

● 이 <학습 역사 인명 사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공부나 전기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사 공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큰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 사전은 이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丁 克 仁
정 극 인 (1401~1481)

—《상춘곡》의 저자—

조선 시대 초에 군수(郡守)로 있던 정 인(丁寅)의 아들로 태어난 정 극인의 자는 가택(可宅)이며, 호는 불우헌(不憂軒), 다헌(茶軒), 또는 다각(茶角)이라고 했다.

정 극인은 1429년(세종 11)에 생원(生員)이 되고, 문종 때에 음보(陰補 :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는 일)로 인수부승(仁壽府承)을 지냈다.

그 후, 1453년(단종 1)에는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正言 : 사간원에 딸린 벼슬로 품계는 정 6 품)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종이 그의 숙부인 수양 대군에 의하여 왕위를 빼앗기고 유폐되자, 벼슬에 뜻을 잃어 고향인 태인으로 내려갔다.

태인에 머무르는 동안, 정 극인은 영달에 뜻을 두지 않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였다.

이에, 정 극인의 뜻을 가상하게 여긴 성종은 그에게 후한 상과 함께 삼품 교관(三品敎官)을 내렸다.



그러자, 정 극인은 임금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경기체가(景幾體歌)로 된 《불우현곡(不憂軒曲)》을 지어 불렀다.

경기체가란 고려 중엽 이후에 이루어진 장가(長歌)의 한 형식인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고려 제23대 고종 때의 신흥 사대부 출신 문인들의 활기에 찬 감정과 의식 세계를 읊은 《한림별곡》과, 고려 제27대 충숙왕 때에 안축(安軸)이 그의 고향인 죽계와 순흥의 경치를 읊은 《죽계별곡》, 그리고 조선 제14대 선조 때의 송강 정철(鄭澈)이 지은 《관동별곡》 등이 있는데, 그 작품들은 《악학궤범》 등에 국어 또는 이두로 실려 있다.



한편, 정 극인은 우리 나라 최초의 가사(歌辭)로 알려져 있는 《상춘곡(賞春曲)》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에 미칠 것인가, 못 미칠 것인가? 세상에 남자 된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겠지만, 어쩌서 나처럼 산림에 묻혀 있으면서도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는 것인가? 몇 간 안 되는 따로 엮어 지은 집을 시냇물 앞에 지어 두고, 송죽(松竹)이 뻗뻗이 우거진 속에 자연의 임자가 되었구나.’

이 《상춘곡》에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낙천적인 시풍으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명리(名利)를 버리고 유유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鄭 道 傳
정 도 전

(1337~1398)



— 조선 왕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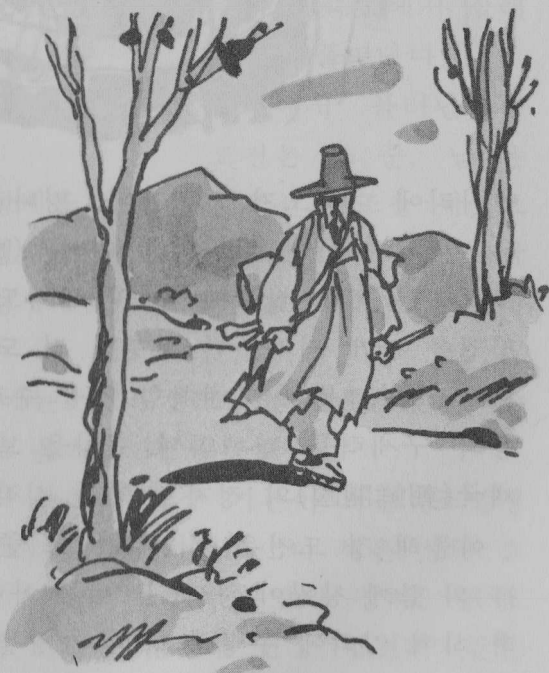
개국 공신 —

정 도전은 1337년(고려 충숙왕 6)에 형부 상서(刑部尚書)까지 지냈던 정 운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년 시절에는 유명한 학자 이 색(李穡)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26세 때부터 벼슬하였는데, 이 무렵에 그는 다른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새로 일어난 명나라를 가까이하며, 전에 오랫동안 고려를 지배한 원나라를 멀리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375년(우왕 1)에는 왕이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려 하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다가, 회진(전남 나주)으로 귀양을 가기도 했다.

2년 후, 귀양에서 풀려난 정 도전은 후진을 양성하다가, 1383년에 동북면 도지휘사로 있던 이 성계의 참모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정 몽주를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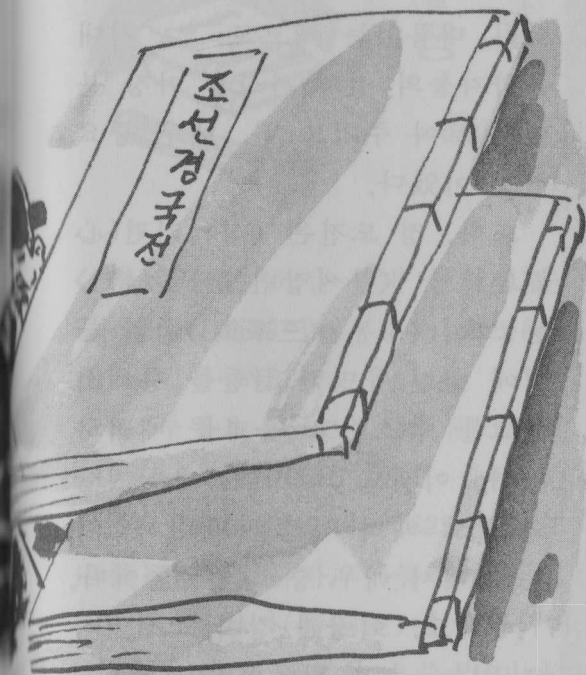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명나라에 다녀온 후 정 도전은 이 성계의 천거로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에 올랐다.

그러던 1388년, 이 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신진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 때부터 정 도전은 이 성계를 적극적으로 도와, 불교를 배척할 것을 주장하며, 조 민수(曹敏修) 등의 구세력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조선 개국(朝鮮開國)의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정 도전은 이 성계, 조 준(趙浚), 심 덕부(沈德符)와 함께 창왕이 왕씨(王氏)가 아니라, 요승 신 돈의 손이라 하여 강화에 추방하고, 공양왕을 왕위에 앉힌 다음 삼사 우사(三司右使)라는 벼슬에 올랐다.



그 뒤, 정 도전은 이 성계가 군사권을 장악하자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가 되었으나, 다시 세력을 쥔 구세력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고 봉화에 유배되었다. 이듬해인 1392년에 귀양에서 한때 풀려났으나, 정 몽주의 탄핵으로 다시 투옥되었다가 정 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된 뒤 풀려났다.

옥에서 풀려난 정 도전은 조 준, 남 은(南淵) 등과 함께 이 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세웠으며, 조선 건국 후, 38명의 개국 공신 중에서도 1등 개국 공신으로 문하시랑 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또, 1394년(태조 3)에는 한양 천도설(漢陽遷都說)을 주장하여 서울을 한양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해에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라는 저서를 펴냈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헌장 법전과 같은 것이다.

惟公莊茲土行旅欣出途清光那得
 似秋月映西湖署中何所有只有芙
 蓉石此石如甘棠令人思召奭
 鄭道傳贈

정 도전의 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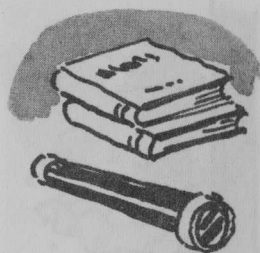
이 책은 조선 왕조 초기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책으로, 그 시대 유학자들의 정치 사상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기도 한, 매우 중요한 책이었다.

또한, 정 도전은 《심기리편(心氣理篇)》 《불씨잡변(佛氏雜辨)》 등 그의 《삼봉집(三峯集)》이란 문집에 실린 유명한 글들을 통해서 유교를 옹호하고 불교를 배척하였다. 이것도 그 시대 유학자들의 불교 배척 사상을 대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글들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이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정 도전은, 한편으로 태조 이 성계가 총애하여 세자로 삼은 방석을 도와, 그를 장차 태조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려 했다.

이 때문에, 태조의 다섯 번째 왕자(방원 : 뒤의 태종)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정실 소생의 왕자를 죽이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1398년(태조 7) 8월에 습격당해 살해되고 말았다.

정 도전은 시문(詩文)에 능하여 《문덕곡(文德曲)》 《신도가(新都歌)》 등의 여러 문학 작품도 남겼다. 호는 삼봉(三峯)이었다.



鄭 斗 源 (1581 ~ ?)
정 두 원

— 과학 기계를
처음 들어온 학자 —

정 두원은 조선 시대 중기의 문신(文臣)으로서, 그의 자는 정숙(丁叔)이며, 호는 호정(壺亭), 또는 풍악산인(楓嶽山人)이라 하였다.

정 두원은 1612년(광해군 4)에 생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 뒤인 1616년에는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며, 1623년(인조 1)에는 성천 부사(成川府使)가 되었다가, 이듬해에는 평안도의 군량을 관리하는 벼슬인 관향사(管餉使)에 임명되어, 우리 나라에게 후금(後金)을 치라고 강요하던 중국 명나라의 장군 모 문룡(毛文龍)에게 조정의 명을 받들어 군량을 조달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1627년 후금(뒤에 청나라)이 인조 반정(仁祖反正)의 부당성을 내세우고 우리 나라로 쳐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정묘호란 때에는, 전향사(轉餉使)가 되어 임진강에서 군량의 수송을 맡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1630년(인조 7)에는 진주사(陳秦使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생겼을 경우 임시로 파견하던 사신으로서, 그 구성 인원은 40여 명에 달했다) 자격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그 이듬해 귀국하면서,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이탈리아 신부(神父) 로드리게즈에게서 <홍이포>, <천리경>, <자명종> 등의 서양의 기계와, 마테오릿치의 《천문서(天文書)》《직방외기(職方外記)》《홍이포제본(紅夷砲題本)》 등 서적을 얻



어 지니고 돌아왔다.

정 두원이 가져 온 이러한 기계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물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다.

〈홍이포(紅夷砲)〉는 일명 서포(西砲)라는 것인데, 무기의 일종으로서, 화승(火繩 :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신에 돌로써 뇌관을 쳐 폭발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천리경(千里鏡)〉은 천문(天文)을 관측하고 100리 밖의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성능이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자명종(自鳴鐘)〉은 열 두 시간마다 그 스스로 종이 울리도록 만들어졌다는데, 그것들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문물로는 최초의 과학 기계였다.

그 후, 정 두원은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역임했으며, 벼슬이 지중추 부사에까지 이르렀다.

시호는 민충(敏忠)이다.



鄭 夢 周 (1337~1392)

— 선죽교에 피뿌린
고려의 충신 —

“앗!”

정 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을 깨었다. 일어나 보니 한낮의 꿈이었다. 꿈 속에서 커다란 검은 용이 뜰 가운데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를 따먹고 있었다. 이씨 부인이 배나무 아래로 다가가니, 용은 배를 따먹다 말고 이씨 부인을 보며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이씨 부인은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하여, 혹시 집 안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밖으로 나와 마당 가운데 있는 배나무 쪽을 바라보니, 마침 7살 먹은 아들 몽란(夢蘭)이 배나무 위에서 배를 따먹다가 어머니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이 꿈으로 해서 몽란은 다시 몽룡(夢龍)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고, 몽주라는 이름은 후에 그가 관례(冠禮)를 치르고 난 후에 붙여진 것이다.

정 몽주



정 몽주는 고려 1337년(충숙왕 6) 12월에 영천(永川)



에서 정 운관(云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고려 명유(名儒)의 후손으로서 훌륭한 가풍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자란 그는 머리가 영리하며 행실이 바르고 모든 것이 남보다 뛰어났다. 그는 배우면 배울수록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둘째는 나라에 충성하고, 세째는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19세 때 아버지를 여의어 3년상을 치른 뒤,

열심히 공부를 계속하여 그가 23세 되던 해에는 문과에 응시하여, 세 과목을 전부 장원으로 뽑혀,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1362년(공민왕 11) 3월에 예문관 검열의 벼슬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 후, 정몽주는 병마사(兵馬使) 이 성계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여진족을 격퇴하기도 하고 전농시승, 예조 정랑, 사성을 거치면서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 나갔다.

당시 중국에는 이제까지 고려와 친숙했던 원나라가 망해가고, 새로이 명나라가 왕성해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고려

에서는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자는 친원파와 명나라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친명파로 서로 갈라져 다투고 있었다. 정 몽주는 친원파도 아니었으며, 친명파도 아니었다. 오로지 고려를 위협으로 몰아 넣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길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의 고려 조정은 점차 부패해 가고 있었고,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때, 정 몽주는 고려왕조에 대한 불타는 듯한 사랑과 충성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일망정 좋은 정치만 베푼다면 다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고려의 안위에 관한 일만이 가득 차 있었다.

1376년, 정 몽주가 성균 대사성이 되었을 때였다. 고려에서는 하나의 큰 비극이 일어났다. 공민왕이 등극 23년만에 환관 최만생 등에 의해 독살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우왕이 왕위에 오르자, 또 다시 친원파와 친명파가 다투게 되었다. 권신(權臣) 이 인임이 친원파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명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공민왕 시절의 정책을 버리려고 하였다.

정 몽주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마마, 지금 명나라는 중원(중국)을 다 차지하여 힘이 커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 원나라만 믿고 있다가 명나라의 큰 힘을 저버린다면 고려는 나라의 운명을 보전하기 어렵사옵니다.”

그러나, 이 인임은 우왕을 협박해 정 몽주를 언양으로 귀양 보내게

했다. 임금은 정 몽주의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이 인임의 말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다. 정 몽주는 언양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그 곳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 후 귀양에서 풀려난 정 몽주는 1377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노략질을 금지할 것을 교섭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이 성계와 함께 왜구를 물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 몽주의 충성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성계 일파에 의해 창왕이 몰려 나고 공양왕이 새 왕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이 성계의 위력은 나날이 커져서 조 준, 정 도전 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다. 정 몽주는 이 성계가 이처럼 야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일찌기 눈치 채고 있었다. 그는 고려를 위해서는 함께 일해 온 이 성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 몽주의 마음을 눈치 챈 이 성계의 아들이 방원이 정 몽주를 죽일 것을 주장했으나, 이 성계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다고 물러설 방원이 아니었다. 그는 끝내 정 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이 성계가 낙마(落馬)하여 부상을 입고 누워 있음을 안 정 몽주는 그를 문병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정 몽주도 방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죽음이 두려워 망해 가는 나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성계 일파의 허실(虛實)을 알아볼 겸 이성계를 찾으려 한 것이다.

정 몽주가 선죽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별안간 다리 밑에서, 방원의 명을 받고 미리 숨어 있던 조영규 등이 쇠도리개를 휘두르며 뛰어 올라왔다. 정 몽주는 외마디 비명 속에 말 위에서 떨어졌다. 오직 고려만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쳤던 충신 정 몽주의 피는 선죽교를 붉게 물들었다. 이 때, 그의 나이 55세였다.



鄭
정

歆
선

(1676~1759)

—독창적 화풍을 이룩한
산수화의 대가—

정 선의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난곡(蘭谷)이다. 1676년(숙종 2), 부사 벼슬을 지낸 정설(鄭濬)의 손자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정시익(鄭時翊)은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가난한 선비였다.

나이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달리 뛰어난 재주를 보인 정 선은 어린 나이에, 훗날 영의정까지 지낸 숙종 때의 재상 김 창집(金昌集)에게 그 재질을 인정받아, 그의 천거로 도화서(圖畫署)의 화원(畫員)이 되었다가, 그 뒤 현감 벼슬에 이르렀다.

정 선은 처음에는 당시 많이 유행되고 있던 중국의 남화에서 출발했으나, 30세를 전후로 하여 한국적인 소재로써 산수화를 주로 그리면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필법으로 솔직하고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화풍을 이룩했다.

그는 여행을 몹시 즐겨서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산수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의 그림으로 보아, 금강산을 비롯하여 경주의 석굴암까지 안 간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산을 가장 사랑하였던 것 같다. 그가 부채에 그린 《금강산도》를 보아도, 신비롭고 우람한 금강산의 풍경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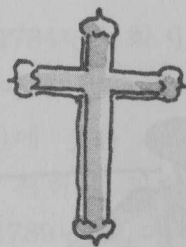


정 선의 그림 《인왕제색도(仁旺霽色圖)》

그는 같은 무렵의 화가인 심 사정(沈師正), 조 영석(趙榮祿)과 더불어 삼재(三齋)라고 불리고 있는데, 농담(濃淡)의 대조 위에 청색을 조화하여 암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그가 개척한 새로운 경지를 아무도 이어받는 이가 없어, 그의 독특한 화풍은 아깝게도 당대에서 끝나고 말았다.

다만 정 선은 글씨에는 관심이 없어 그의 그림에는 서명과 한두 개의 낙관(落款)만이 화폭의 한 귀퉁이에 찍혀 있을 뿐, 글귀나 그림의 제목 같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채를 더한다. 그의 작품에는 《입암도(立巖圖)》《여산초당도(廬山草堂圖)》《여산폭포도(廬山瀑布圖)》《내금강도(內金剛圖)》《금강산만폭동도(金剛山萬瀑洞圖)》《우경도(雨景圖)》등의 많은 작품이 전하고 있으며, 《도설경해(圖說經解)》라는 저서도 한 권 전하고 있다.

1759년(영조 35), 83세를 일기로, 산수화에 쏟은 그의 아름다운 꿈의 생애를 끝마쳤다.



丁 若 鏞
정 약 용 (1762~1836)

—실학을 집대성한
근세의 대학자—

정 약용은 조선 시대의 실학자로 아명은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 천주교 교명은 요안이다.

그는 1762년 6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진주 목사까지 지낸 정 재원(丁載元)의 네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정 재원은 여러 고을의 군수를 지낸 남인의 학자로,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조선 시대의 시조 문학의 으뜸인 윤 선도(尹善道)의 증손인 윤 두서의 손녀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여, 4살 때 벌써 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웠으며, 7세 때에는 스스로 시를 지을 정도였다.

1767년 그가 5세 때 아버지가 연천 현감으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다시 관직에서 물러나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서삼경》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학문의 기초를 다져 나갔다.

정 약용





정 약용은 어렸을 때 мам을 앓아 눈썹에 맘 자국이 생겨 눈썹이 세 개인 것처럼 보여 삼미(三眉)라는 별호를 갖게 되었는데, 10세 때 지은 시를 모아 《삼미집》이라는 책을 엮었다.

1777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시파 (사도 세자를 옹호한 파)로 몰려 벼슬길에서 밀려났던 그의 아버지는 다시 호조 좌랑이 되어 한성으로 올라오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정 약용도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면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문학과 열심히 익혔다. 또, 자기 매형인 이 승훈과 이 가환에게서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 가환의 집에서 본 실학의 대가인 이 익이 남긴 《성호새설》과 《관우록》은 뒷날 정 약용의 학문의 길과, 관리로서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1784년, 회시(會試)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 22세의 젊은 나이로 정조에게 《중용》을 강의하였는데, 이 때에도 서학(西學)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어전 강의를 계속하면서도 실학과 서학에 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1789년에 다시 식년 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정 7 품 벼슬인 가주서를 거쳐 이듬해에 검열이 되었다. 그러나, 서학을 숭상하고 천주교인이라는 점 등이 반대파의 모함을 받는 바 되어 해미에 유배되기도 했으나 곧 풀려 나와 지평, 수찬을 거쳤고, 1794년에는 경기도 암행 어사로 백성의 원성을 산 연천 현감 서 용보를 파직시켰다.

이어 홍문관 내교리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에는 동부승지, 병조참의를 거쳐 우부승지가 되었으나, 중국인 신부 주문모 사건에 연루되어 금정도 찰방으로 좌천되었다.

1795년 12월, 그는 무관직인 오위의 부사직이 되어 한성으로 올라와, 이듬해에는 유명한 유 득공, 이 가환, 박 제가 등의 한 학자들과 규장각에 들어가 여러 가지 책의 잘못을 교정하였다.





그러나, 서학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모함으로 1797년 6월, 정 약용은 다시 황해도 곡산 도호부사로 밀려나, 그 곳에서 백성들의 천연두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마과회통》을 편찬하는 등 고을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다.

1799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병조 참지, 동부승지,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천주교도라는 공서과의 탄핵을 받아, 자명소(自明疏)를 올리고 사직한 후, 1800년 가족과 함께 고향인 마재로 돌아갔다.

정조의 뒤를 이어 1801년 순조가 11세로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천주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신유 박해로, 매형 이 승훈과 형 정 약전, 그리고 이 가환은 옥에 갇히고, 자신은 장기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정 약용은 그 곳

에서 바깥 출입을 삼가며 학문 연구에 몰두, 《기해방예변》 등 3종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 해에 다시 황 사영의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어, 이 곳에서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며 오로지 학문에 힘썼다. 즉, 그는 유배지인 다산 기슭에 있는 윤 박의 산정(山亭)에서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하였는데, 1808년에 《다산문답》《제례고정》을 저술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썼다.

특히, 그는 부패한 관리들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처절한 생활 모습을 보고 나라의 그릇된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세유표》 40권을 저술하기 시작하여 1817년 끝냈으며, 《목민심서》를 다시 저술하기 시작하여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기 바로 전에 완성하였다.

1818년 8월, 56세의 그는 이 태순의 상소로 귀양지에서 풀려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귀양지에서 돌아와서도 저술에 온 힘을 기울여, 1819년에는 《목민심서》 9권인 《형전 육조》를 보충하고 확대하여 쓴 《흠흠심서》 30권을 완성하였다.

이 책도 정 약용의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쓴 것으로, 그의 형법 정신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정 약용은 그의 저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오직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저술하고 실천하기에 일생을 바치다가 1836년 2월 22일, 74세를 일기로 고향의 여유당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저서는 250권으로 된 《여유당집》과 246권으로 된 《다산총서》 등 무려 508권에 달하나, 모두 소실되고 이 중 일부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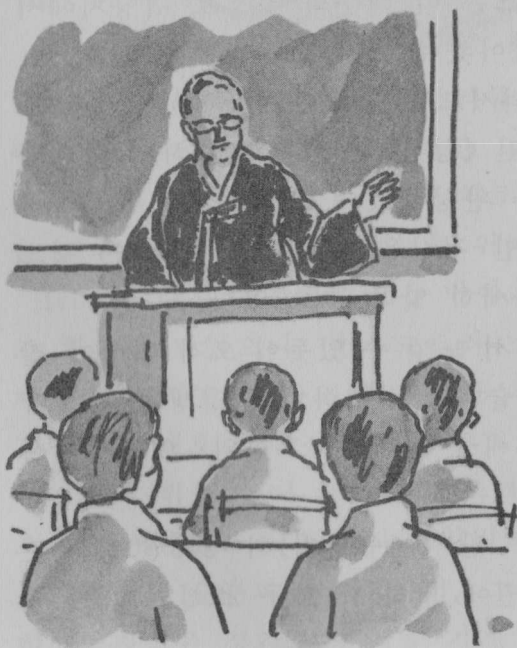
鄭 寅 普 (1893 ~ ?)
정 인 보

—민족의 일을

강조한 사학자—

유학자이며 사학자인 정 인보의 호는 담원(菴園)·위당(爲堂)이며,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말(韓末)의 양명학자인 이 건창(李建昌)의 문하에서 한학을 공부했으며,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자, 솟아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에서 동양학을 전공하였다. 그 곳에서 정 인보



는 박 은식(朴殷植), 신 채호(申采浩), 김 규식(金奎植) 등과 함께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벌이다가, 출국한 지만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한 후에는, 주로 연희 전문을 비롯하여 이화 여전과 세브란스의전, 중앙 불교 전문(中央佛教專門) 등에서 국학, 동양학을 강의

하였으며, 언론계에 투신하여 《시대 일보》, 《동아 일보》 등에서 논설 위원으로 일을 하는 동안, 일본 총독부의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민족 의식을 고취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무렵, 정 인보는 <국학(國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국학 연구의 전통을 조선 시대의 영조·정조 때의 실학(實學)에서 구하고, 그 중에서 귀중한 서적들을 골라 이의 해제(解題)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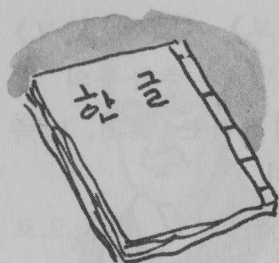
그리하여 정 인보는,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업적에 대해서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신 채호와는 다르게, 사료(史料)로서의 고서(古書)는 중요시하면서도 이를 연구 업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함을 깨우쳐 주려 하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민족 사관의 확립에 주력하는 일환으로 《동아 일보》에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재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근본을 <얼>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실의 규명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며, 만일 <얼>을 도외시하고서 역사적 사실만을 규명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작업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매우 보편적인 인간성 같은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성격이 대쪽 같았으며 민족적 지조가 곳곳했던 정 인보는,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감찰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청렴 결백하여, 집 한 채 없이 셋방으로 전전하였다.

또한, 그는 일찌기 문학에도 전념하여 1925년 이후의 국민 문학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鄭 麟 趾 정 인 지 (1396~1478)

—한글 창제를
도운 사람—

집현전 전각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가끔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안 공기를 흔들 뿐이었다.

“상감마마 납시오!”

조용히 책만 읽고 있던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부복하여 상감인 세종을 맞는다. 세종은 집현전 안을 두루 돌아보며 묻는다.

“경들의 연구는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소?”





엮드린 학사들 중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세종은 용안을 찌푸리며 힐책하듯 분부한다.

“경들은 어찌 그리도 생각이 좁더란 말시오! 나라의 글이 없음은 우리의 수치라고 짐이 누누히 일렀거늘, 어찌 그리 자신이 없더란 말시오! 집현전은 짐이 특별히 마음을 쓰는 곳이며, 수재들이 모인 곳이니 분발을 하오.” 정 인지가 세종의 진노에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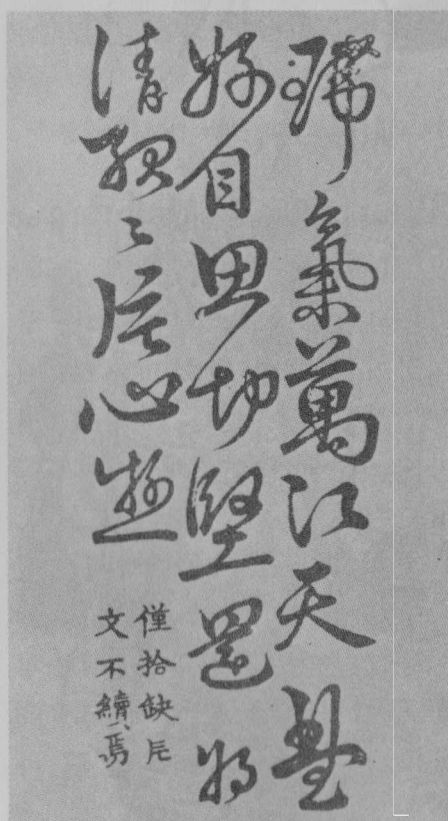
“황공하오이다. 성상께옵서 성려하심을 거울삼아서 신 등은 힘껏 글자를 연구하여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정 인지, 성 삼문, 신 숙주 등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의 특별한 분부를 받들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 인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은 바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 인지는 1396년(태조 5) 석성 현감으로 있던 정 흥인(鄭興仁)의 아들로 태어나, 1414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후 세종이 즉위하자, 그는 우수한 학자를 중용(重用)하는 세종의 사랑을 받게 되어, 집현전 학사, 집현전 직제학, 이조 참판 등 중요한 벼슬을 지내면서 한글을 창제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고 《고려사》《용비어천가》등을 쓰기도 했다.

그 후, 정 인지는 수양 대군을 도와 그가 어린 단종 밑에서 실권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수양 대군의 참

정 인지의 필적



모가 되었고 그 공로로 하동 부원군에 봉해졌다. 수양 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 임금이 되자 그는 영의정이 되었다.

세조 말년에 상감이 불교를 일으켜, 원각사를 짓고 불교를 신봉하게 되자, 정 인지는 세조의 숭불 정책을 완강히 반대하다가 상감의 미움을 사서 부여로 귀양 가기도 했다. 그러나, 귀양이 풀린 뒤 성종이 즉위한 해에는 원상으로서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기도 했다. 그는 1478년(성종 9)에 82세의 생애로 그 삶을 마쳤다.



正
정

祖
조

(1752~1800)

—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룩한 임금 —

조선조 22대 왕인 정조는 1752년(영조 28)에 태어났으며, 휘는 성(祘), 자는 형운(亨運), 호를 홍재(弘齋)라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에 너무 열중해서, 어머니인 혜빈 홍 씨로부터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타이름을 많이 받아 왔다. 아버지인 장헌 세자(사도 세자)가 품행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인 영조의 불같은 노여움을 사고, 뒤주에 갇혀 굶어 죽는 참화를 당한 것은 그가 11세 때이며, 그 때 왕세손(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손자)에 책봉되어, 영조가 세상을 떠난 1776년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선왕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써서, 당파 싸움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평민 중에서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서슴지 않고 뽑아 올려 벼슬자리를 주었다. 가난 속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세금을 대폭적으로 줄였고, 또 혹독한 형벌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도승지 겸 금위대장이었던 홍국영에게 맡기고, 자신은 왕실의 학문 연구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하고 학자들을 널리 모아 여러 학문을 연구하게 했고 많은 책을 펴내어 전국에 보급시켰다. 그러자니 자연 인쇄와 활자에도 관심이 많게 되어, 여러 종류의 새로운 활자를 만들고 인쇄술을 발달시켰다.



당시 규장각을 통해서 간행한 서적에는 《대전통편》《무예
도보통지》《규장전운》《전운옥편》《오륜행실》 등이 있
으며, 정조 자신이 찬수(撰修)한 《팔자백선》《주서백선》《오
경백선》이 나오게 되었고, 그가 지은 글들을 모은 방대한
책 《홍재전서》도 출간되었다.

정조는 아버지 장헌 세자가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
로 뒤주에 갇혀 죽은 것이, 사실은 당시의 극심했던 당파
싸움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억울한 참화를 잊을 길이 없어 수원에 새로이 성을 쌓
고 그 곳을 소경(小京)이라 이름지어 승격시키고 자주 내
왕하기도 했다.

이토록 효성이 지극한 정조는 궁중을 비롯한 전국에 사
치를 뿌리 뽑도록 하는 등 아주 검소한 생활로 24년 동안의
재위 기간을 보내어, 후세에 그 때를 문화의 르네상스 시
기라고 일컫게 했다.



鄭 知 常
정 지 상 (? ~1135)

—비명에 간 서정 시인—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에서 태어난 고려 시대의 명사인 정 지상의 처음 이름은 지원(之元)이었으며, 호는 남호(南湖)이다.

시인으로서의 탁월한 재주를 타고난 정 지상에 관하여 전해져 오는 야사에 의하면, 그가 다섯 살 적에 강 위에 뜬 해오리를 보고,

누가 흰 붓을 가지고 강물 위에 을자를 썼는가?
(何人將白筆 乙字寫江波)

라는 글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역시 소년 시절에 지었다는 《대동강 송별(送別)》이라는 시는 속세의 때를 벗어난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진한데,
남포에 임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정 지상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명에 따라 개경에 올라가 10여 년 간 학문에 몰두하였었다.



타고난 천재에다 힘써 공부를 한 정 지상은 과거에 응시, 장원 급제하여, 당시 문학을 숭상하던 예종 임금의 총애를 받아, 기거사인(起居舍人 : 종 5 품의 벼슬)으로 윤 관, 김 부식 등 명신들과 함께 어울려 교류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 지상은 다만 한낱 문신으로서뿐만 아니라, 간관(諫官)으로서도 말이 곧아, 충언과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예로, 그가 인종 5 년에 좌정언(左正言)으로서 권신 척 준경의 잘못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척 준경을 몰아 내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 지상은 그 당시 평양에서 반역을 꾀하던 승려 묘청의 꾀에 빠져 서경 천도(즉 고려의 서울을 평양으로 옮기자는 것)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역자의 한 사람으로 몰려, 토벌군 원수로 임명된 김 부식에 의해 개경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아까운 일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정 지상은 반역으로 몰려 죽은만큼, 완전한 작품집은 전해져 오는 것이 없고 《동국여지승람》에 그리 많지 않은 작품이 전할 뿐이다.



鄭
정

澈
철

(1536~1593)

—회오리 바람

숙의 시인 재상—

때는 1562년(명종 17)이었다. 용상에 높이 앉은 젊은 상감은 용안에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공, 고개를 들라.”

“마마.”

상감인 명종은 죽마 고우였던 정 철이 장원 급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축하하는 술과 음식을 내리도록 했다.

“이제 과인의 곁으로 돌아왔으니 다시는 과인의 곁을 떠나지 말라.”

“예예, 상감마마.”

정 철의 뇌리에는 불현듯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20여년 전, 당시의 상감 인종의 귀인(貴人)이었던 큰누나가 궁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 철은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때 대군(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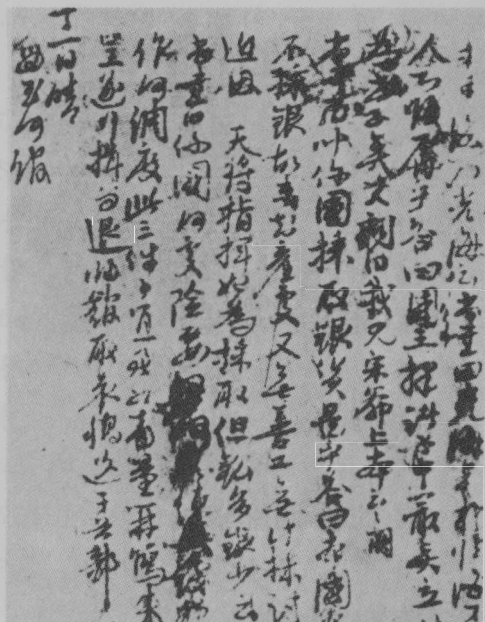
君)이었던 지금의 상감
명종과 소꿉친구가 되
어 즐거운 나날을 보
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545년 초 가을,
이른바 을사사화가 터
지면서부터 그의 집안
에는 태풍이 불어 닥
치게 된 것이다.

작은누나가 계림군
(桂林君)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의 아
버지 정 유침(鄭惟沈)
과 큰형인 정 자(鄭滋)
가 각각 먼 땅으로 귀
양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어
린 시절은 아버지의 귀
양 땅을 따라다니는
방랑의 생활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
철은 아버지의 귀양지
를 돌아다니면서도 어
린 시절을 고난과 역
경을 헤치면서 의젓하
게 자라났다.

그러는 동안 1551년(명종 6), 특사를 받게 되어 아버지가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인 전라도 청평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면서, 정 철은 김윤제(金允悌)의 문하가 되어 성산 기슭의 송강(松江)가에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 때 기대승(奇大升)과 같은 당대의 석학들에게서 사사(師事)하며 이이(李珥), 성혼(成



정 철의 필적

渾) 등과 사귀었다. 이를 미루어 그가 송강이라는 호를 지은 마음을 알 것 같다.

“문과에 장원 급제한 정 철을 성균관 전적 겸 지제교에 임명하노라.”

명종은 정 철에게 오늘날의 국립 대학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정 6 품의 벼슬을 내렸다. 정 철은 얼마 안 되어 사헌부 지평으로 승진되었으나, 경양군(景陽君) 옥사(獄事)로 인해 명종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어 미미한 직책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되었다. 벼슬길에 오른 지 4 년째 되던 해에 함경도 방면의 암행 어사로 임명되어 북쪽 지방의 민정을 살펴본 뒤에 이이와 함께 학문에 열중했다.

1570년, 아버지의 3 년상을 치르고 난 정 철은 다시 얼마 안 되어 어머니마저 잃게 되었다. 그는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받들고 상복을 벗은 뒤 다시 조정에 되돌아와 여러 가지 벼슬을 맡아 보았다.

명종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선조가 왕위에 올랐으나 일찌기 분열되어 암투하던 조정의 당파 싸움은 연일 편할 날이 없었다. 벼슬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사사 건건 트집과 모함으로 서로 싸웠기 때문에 조정은 올바른 정치를 시행할 틈도 없었다.

이러한 나라꼴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정 철은 당파 싸움을 싫어했으나, 자신의 학문과 이론·주장, 그리고, 성격에 맞는 글벗이나 관리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당파에 휩쓸리게 되어 1575년과 1578년 두 차례에 걸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을 벗삼으며 글을 읽고 시를 읊었다.



그러던 중 1580년(선조 13), 그의 나이 44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그 후 3년 동안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면서 그의 천재적인 재질을 나타낸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최초의 가사인 《관동별곡》은 관동 팔경을 돌아보고 쓴 것이며, 《사미인곡》《속미인곡》《성산별곡》 등은 당파 싸움으로 1585년에 대사헌의 자리를 사직하고 고향에 들어가 4년 동안 머물면서 쓴 작품들이다.

그 후, 1589년에는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정철은 서인의 우두머리가 되어 동인들을 철저히 추방했으며, 15



90년에는 좌의정에 올랐으나 다음 해 영의정 이 산해(李山海)의 계략에 빠져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진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평안 북도의 강계로 귀양을 갔다.

강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 철은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며 긴 한숨을 토해 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귀양살이가 풀리자 그는 곧장 상감이 피난하고 있는 평양으로 달려갔다.

그는 상감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상감마마, 이 어인 일이옵니까?”

선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과인은 경을 대할 면목이 없구료!”

선조는 지난날을 뒤우치며 정 철을 반가이 맞이했다. 이때, 정 철은 상감의 수레를 따라 의주까지 내려 갔다. 그는 국난을 당하여 왕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동분 서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관찰사가 되어, 삼남을 돌기도 했고,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늙은 몸을 이끌고 명나라를 다녀오니, 당과 싸움은 여전하여 조정은 시끄럽기만 했다.

그는 이제 벼슬길에도 미련이 없고, 당과 싸움의 불꽃이 자기로 인해 더욱 번질 것을 염려하여 벼슬을 내놓고 강화도로 물러났다.

청렴하고 결백했던 정 철의 말년은 궁핍할 대로 궁핍한 생활이었다. 1593년 12월 18일, 그는 강화도 송정촌에서 뜬 구름 같은 그의 삶을 끝마쳤다.



제 너 (1749~1823)

—우두의 접종법 발견자—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고 있던 병이 있었다.

이 병에 걸리면 대단히 높은 열이 나면서 온몸에 발진이 생겨 죽는 사람이 많았다. 다행히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기에 흉한 곰보 얼굴이 되었다.

이것이 천연두, 또는 두창, 포창이라고 하는 병이다. 이것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악성 전염병인데 인디아,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남 아메리카 등의 풍토병으로서 해마다 10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때로는 이들 지방에서 비롯되어 세계 각지에 퍼지게 된다.

제 너

예전에는 대유행이 되풀이되어서 많은 사망자를 냈다. 이렇게 무서운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완전히 추방해 준 사람이 종두를 발견한 에드워드 제너이다.

제너는 1749년 5월 17일, 영국 글로스터셔의 버클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목사인 아버지 스티븐 제너





는 그가 5세 때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 제너는 역시 목사인 형의 손에서 자라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작은 새들의 우짖는 소리를 분별해 낸다든지 꽃이나 풀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알아맞히기를 좋아했다.

제너는 13세 때부터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21세 때 런던으로 나가 그 무렵 제1급 외과 의사였던 존 헌터에게서 약 2년 동안 공부하였고, 세인트 존 병원에서도 공부했다. 특히 헌터는 모든 것을 실험에 바탕을 두어 연구한다는 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젊은 제너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24세가 되던 1773년, 제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병원을 개업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런던으로 가기 전 15세쯤 되었을 때의 일

이었다. 그 때, 제너는 어느 외과 의사한테서 의술을 지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쇠젖을 짜는 농가의 아낙네들로부터,

“한번 우두에 감염된 일이 있는 사람은 한평생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때 깊은 흥미를 가지고 그 말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해 주는 한편 연구를 계속하여 1780년에, 소의 포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천연두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 동안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쳐서 연구를 거듭하여 확신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실험에 착수했다.

1796년 5월 14일, 농촌 아낙네의 소에서 우두균을 채취하여 8세 된 제임스 핍스라는 소년의 팔에 접종시켰다. 우두를 맞은 소년은 이튿날 약간의 열이 났을 뿐, 곧 기운을 되찾았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6월 17일, 그는 이번에는 천연두에 걸린 환자에게서 천연두균을 뽑아 그 소년에게 접종을 시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친구나 의사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으나 그의 신념은 확고 부동했다. 과연 그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과학적인 종두법의 발견이 되었다.

이것은 근대 의학의 과학적인 방법이 확고하게 확립된 19세기 중엽보다도 훨씬 전이었으므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실험을 계기로 제너는 왕립 협회(로열 소사이어티)라는 학자들 모임에 이를 보고했으나,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계속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실험 결과를 세상에 전했다. 그리고 종두법의 참다운 가치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협회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과 고생을 치렀다.

1798년, 제너는 《천연두균의 원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된 작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양론 중, 영국에서는 반대론이 강렬한 데 비해 외국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욱 많았다.

그러나, 마침내 우두 접종이 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어, 1803년에 런던에 우두 접종의 보급을 위한 왕립 제너 협회가 설립되었고, 제너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었다.

이 때문에, 천연두를 앓다가 죽은 사람의 수가 놀랄 만큼 줄어들었으며, 영국 의회는 그의 공적을 기리어 1802년에 1만 파운드, 1807년에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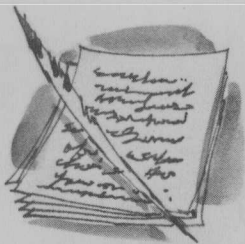
그 후, 그는 세계 인류의 은인으로서 숭앙받게 되었다.

제너의 종두법은 여러 가지 다른 전염병의 예방 접종까지도 생각해 내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전원 생활을 좋아하여 고향인 버클리에서 병원을 경영하였다.

1823년, 제너는 74세로 일생을 마쳤다.





제 퍼 슨 (1743~1826)

—미국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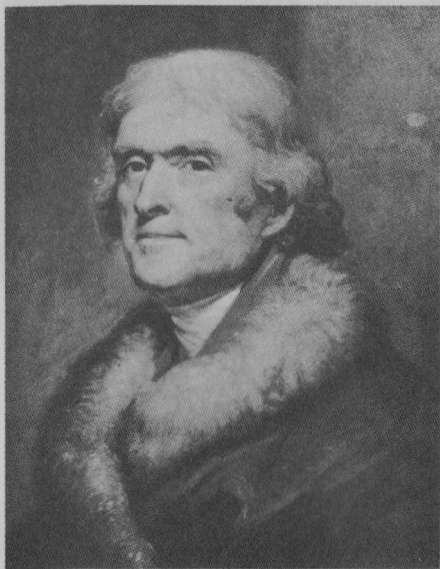
선언서를 쓴 사람—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성전(聖典)>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쓴 사람이다.

제퍼슨은 버이지니아 식민지에서 개척민의 아들로 출생했다. 아버지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강한 의지와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제퍼슨은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건실한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다.

18세 때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에 입학하여 법률, 정치, 철학, 자연 과학 등을 배웠고, 이 때 진보적인 정치가인 패

제퍼슨



트릭 헨리의 영향을 받아 정치가가 되려고 결심했다. 1762년에 대학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1769년에는 버이지니아 식민지의 회의 의원이 되었다.

그 무렵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식민지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본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무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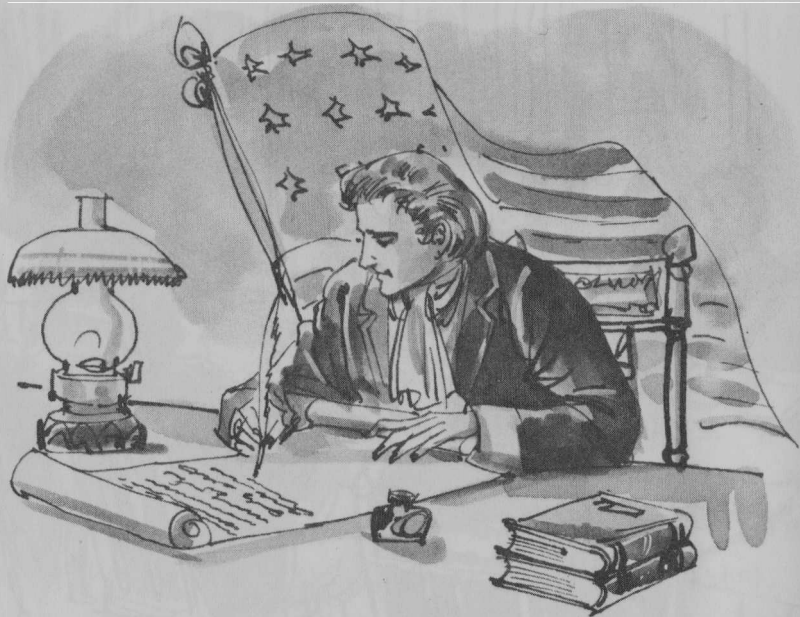


세금을 강요해 왔다. 대륙에 건너온 개척민들은 본국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땅을 개척하겠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 때문에 본국의 압정에 반대하여 1774년에 13주의 대표자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 1 차 대륙 회의를 열었다. 제퍼슨도 워싱턴과 함께 버어지니아 주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

다음 해에도 제 2 차 대륙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영국 본국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의회는 제퍼슨에게 독립 선언서의 기초를 명령했다.

이리하여 1776년 7월 4일에, 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다.



독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제퍼슨은 버이지니아 주 지사로 선출되어 봉건적인 제도를 고치는 데 힘썼다.

그 후, 프랑스 주재 공사를 거쳐 1790년에 워싱턴 대통령 밑에서 초대 국무 장관이 되었고, 1796년에 공화파인 제퍼슨은 연방파의 존 애덤즈와 대통령 선거에서 겨루다가 저서 부통령이 되었다.

그 후 연방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압박했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잃어, 1800년의 선거에서는 애덤즈를 물리치고 제3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민중의 권리 확립과 헌법 엄수 및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 따른 정치를 확립하여 오늘날의 미국의 기초를 쌓았다.

1809년, 고향에 돌아가서 버이지니아 대학을 만들고 그 학장이 되어 민주적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힘썼다.

칼라판 / 소년소녀

위인전기 47

김 구



개정신판 인쇄 1982년 9월 20일
개정신판 발행 1982년 9월 30일

글쓴이	김	문	수
발행인	김	락	준
발행처	금성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 2-63호
전화(713)9651~8 우편번호 121

제 판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칼라
인 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삼화인쇄 주식회사 제책부 당산실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위 인 전 기

소년소녀

전 64 권

- | | | |
|------------|------------|------------|
| 1 김 유 신 | 23 이 순 신 | 45 주 시 경 |
| 2 그 리 스 도 | 24 다 아 원 | 46 난 센 |
| 3 원 효 대 사 | 25 허 준 | 47 김 구 |
| 4 콜 림 부 스 | 26 리 빙 스 턴 | 48 쓴 원 |
| 5 고 선 지 | 27 박 지 원 | 49 안 창 호 |
| 6 갈 릴 레 이 | 28 밀 레 | 50 퀴 리 부 인 |
| 7 장 보 고 | 29 김 홍 도 | 51 안 중 근 |
| 8 뉴 우 틴 | 30 휘 트 먼 | 52 라이트 형제 |
| 9 최 치 원 | 31 정 약 용 | 53 한 용 운 |
| 10 페스탈로찌 | 32 나이팅게일 | 54 간 디 |
| 11 왕 건 | 33 김 정 희 | 55 신 채 호 |
| 12 모 짜 르 트 | 34 파 스 퇴 르 | 56 시 바 이 켄 |
| 13 문 익 점 | 35 김 정 호 | 57 홍 난 파 |
| 14 나 폴 레 옹 | 36 파 브 르 | 58 아인슈타인 |
| 15 세 종 대 왕 | 37 홍선대원군 | 59 방 정 환 |
| 16 베 에 토 벤 | 38 톨 스 토 이 | 60 헬렌 켈러 |
| 17 장 영 실 | 39 김 대 건 | 61 유 관 순 |
| 18 슈 베 르 트 | 40 노 벨 | 62 마리아 안더슨 |
| 19 이 황 | 41 김 옥 균 | 63 윤 동 주 |
| 20 안 데 르 센 | 42 에 디 슨 | 64 케 네 디 |
| 21 신 사 임 당 | 43 전 봉 준 | |
| 22 링 컨 | 44 고 호 | |



조선의 명필
33 김 정 희



세균학의 창시자
34 파 스토르



〈대동여지도〉를 만든
35 김 정 호



곤충학자
36 파 브 르



조선 말기의 풍운아
41 김 옥 준



발명왕
42 에 디 슨



동학 혁명의 지도자
43 전 봉 준



정열의 화가
44 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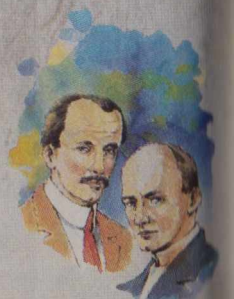
항일 독립 운동가
49 안 창 호



뛰어난 물리학자
50 퀴리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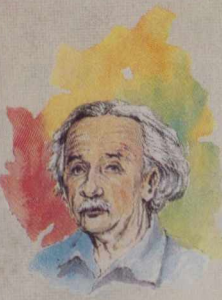
항일 순국 의사
51 안 중 근



비행기의 발명자
52 라이트 형제



민족 음악가
57 홍 난 파



천재 물리학자
58 아인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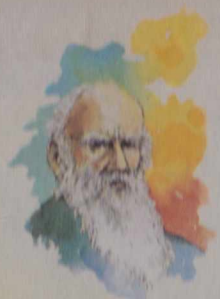
영원한 어린이의 벗
59 방 정 환



여류 교육가
60 헬렌 켈러



조선 말기의 거목
37 홍선 대원군



러시아의 문호
38 톨스토이



한국 최초의 신부
39 김 대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40 노 벨



국어학의 선구자
45 주 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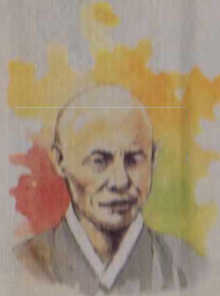
북극 탐험가
46 난 센



한일 독립의 혁명가
47 길 구



중국 독립의 아버지
48 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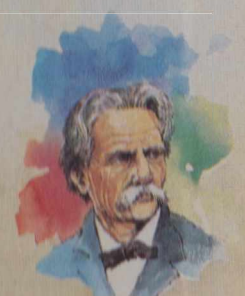
한일 민족 시인
53 한 용운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54 간 디



민족의 사학자
55 신 채호



일립의 성자
56 시바이찌



한일 순국 소녀
61 유 관순



흑인 가수
62 마리안 앤더슨



저항 문학의 시인
63 윤 동주



뉴루 프렌치어의 가수
64 케 네디

소년소녀 위인전기 47 김 구

특집 부록 :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경주